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 박사학위 논문

현대 한국어 어미 결합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ding Compounds
in Contemporary Korean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 전공

팽이림

현대 한국어 어미 결합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유필재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 전공

팽이림

팽이림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은 섭 

심사위원 최 홍 주 

심사위원 채 숙 희 

심사위원 안 소 진 

심사위원 유 필 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년 2월

국 문 초 록

팽이림(彭伊琳)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어미 결합형을 망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여부, 사용 빈도, 단일어미화 여부와 관련된 원인을 밝히는 데에 있다.

3장에서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 해당된 모든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 실제의 사용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확인하였고 다섯 가지 체계적 특징과 개별 어미 결합형에 관한 세 가지 양상을 제시하였다. 체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단일어미화 과정을 거쳐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셋째,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과 연결형 내포절 중에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분포되어 있다. 넷째, 평서형과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내포절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그렇지 않은 어미 결합형보다 사용 빈도가 낮고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적다. 다섯째,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다.

이외에 개별 어미 결합형에 대해 사전 또는 기존 연구에 밝혀지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밝혔다. 첫째,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지만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대’는 ‘-고 하-’가 환원되면 ‘인용’이 아닌 ‘명령’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둘째, 연결형 ‘-(으)려 하-’ 구성에 해요체 ‘-(으)려요’와 해체 ‘-(으)려’인 어미 결합형이 쓰이지 않는 것은 고유어 어휘 중 비어두음절(非語頭音節)이 ‘레’로 발음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다고 하-’ 구성에 하오체 어미 결합형 ‘-다오’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과 달리 ‘-다고 하더-’ 구성에 해당되는 어미 결합형 중 하오체 어미 결합형인 ‘-답디다’의 사용 빈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하오체 어미 결합형인 ‘-답디다’는 대부분 해체나 해요체와 함께 쓰이고 있는 만큼 현재 ‘-답디다’는 하오체와 거리가 생겼고 해체나 해요체와 근접해졌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체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둘째,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모든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으로 인해 단일어미화로 새로운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이 없다. 셋째,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다.

5장에서는 상위절이 의문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 세 가지 체계적 특징을 보였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

형은 대부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둘째,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로부터 형성된 ‘-더라’, ‘-더냐’, ‘-더니’와 ‘-데’ 중에 ‘-더라’, ‘-더냐’와 ‘-더니’는 해라체로만 실현될 수 있고 ‘-데’는 평서형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결형 내포절인 경우에도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어미 결합형에 관한 기존 연구와 사전 해석이 결여되어 있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논의하였다. 첫째,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다오’, ‘-다는가’, ‘-다냐’와 ‘-대요’는 단일어미화가 되어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다느냐’와 ‘-다냐’ 중에 ‘-다느냐’는 예문이 없고 ‘-다냐’만 예문이 확인되었다. 이는 ‘-느냐/오냐’가 ‘느’ 탈락에 의해 ‘-냐/오냐’로 변화하였고, ‘-냐/오냐’는 다시 이형태 ‘-냐’로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내포절 종결어미 ‘-다’에 ‘-느냐’와 ‘-냐’ 간에 ‘-냐’가 결합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셋째, ‘-다니’는 ‘원인’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 또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는 ‘-고 하-’의 환원뿐만 아니라 뒷발화의 유무로 ‘인용’의 어미 결합형과는 별개의 종결어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결어미 ‘-(으)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도 이어지지 않는다. 넷째, ‘-냐/(으)라/자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다니’와 동일한 해석을 취할 수 있다. ‘-냐니’는 청자의 정보 요청 의문 발화를, ‘-(으)라니’는 청자의 명령 발화를, ‘-자니’는 청자의 청유 발화를 반복하고 청자에게 되묻는 데 쓰인다. 다섯째, ‘-ㄴ/는’이 통합되지 않은 ‘-다니’는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하고 단일어미화가 된 ‘-다니’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간접인용문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체계에 두는 것보다 별개의 어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해라체 ‘-다더냐’의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보았다.

6장은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체계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연결어미 ‘-고’, ‘-(으)면서’, ‘-(으)니까’, ‘-(으)니’행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가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보다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많다. 둘째, 내포절이 의문형이고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에는 ‘-더냐고’를 제외하면 어떤 어미 결합형도 예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어미 결합형에 대해 면밀히 기술하였다. 첫째,

연결어미 ‘-고’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고’ 중에 ‘-다고’ 외에 ‘-냐/(으)라/자고’도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결어미 ‘-(으)면서(며)’와 결합되어 형성된 ‘-냐면서(며)’에 대해 이필영(1993)과 김수태(2001)에서 ‘-냐면서(며)’는 비환원적 융합형이 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러 예문을 검토한 결과 ‘-냐면서(며)’도 ‘-다/(으)라/자면서(며)’처럼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종결어미로서의 ‘-냐면서(며)’는 ‘아는 내용에 대한 확인 물음’과 ‘따짐’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셋째, 연결어미 ‘-(으)면’과 결합되어 형성된 ‘-더라면’은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고 ‘-다면’처럼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아닌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연결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넷째, 연결어미 ‘-(으)니까’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까’ 중에 ‘-다니까’는 단일어미화로 ‘반복 강조’와 ‘불만’의 의미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였다. 이와 달리 ‘-냐/(으)라/자니까’는 단일어미화로 ‘반복 강조’의 의미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기능만 획득하였고 ‘불만’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종결어미 ‘-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에 비해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한 ‘인용’의 어미 결합형에 해당된다. 여섯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더라니’는 예문이 극히 적지만 모두 종결 위치에 쓰이며 구문에는 부사 ‘어쩐지’가 함께 사용된다. 부사 ‘어쩐지’는 주로 혼잣말에 쓰이기 때문에 ‘-더라니’는 화자가 목격하거나 겪은 일에 대한 혼잣말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일곱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으)려니’는 화자 또는 구문 행위 주체의 예측이나 생각을 나타낼 경우 연결어미 ‘-(으)려’와 ‘-하니’로 환원될 수 없는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연결어미로 쓰인다.

7장은 상위절이 관형사형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살펴본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르/을/던’ 중 상위절(후행절) 동사 ‘하-’에 결합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은/는/르/던’ 4개뿐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어미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 그 중 실제로 예문이 추출되지 않은 몇몇 어미 결합형이 있는데 이를 <표62>로 정리하였다.

8장은 상위절이 명사형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살펴본 것이다. 명사형 어미 ‘-기’와 ‘-음’ 중에 ‘-기’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모두 사용되고 있는 데에 반해 ‘-음’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어미 결합형, ‘-고 하-’ 축약, 단일어미화, 간접인용, -(으)려 하-

목 차

| | |
|---------------------------------|-----------|
| 1. 서론 | 1 |
| 1.1 연구목적 | 1 |
| 1.2 연구사 및 문제점 | 3 |
|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9 |
| | |
| 2. 용어 및 개념 | 11 |
| 2.1 어미 결합형 | 11 |
| 2.2 문법화 | 12 |
| 2.3 단일어미화 | 13 |
| | |
| 3. 상위절이 평서문인 경우 | 15 |
| 3.1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15 |
| 3.1.1 평서형 내포절 | 15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15 |
| 2) ‘-더-’가 쓰인 경우 | 22 |
| 3.1.2 의문형 내포절 | 23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23 |
| 2) ‘-더-’가 쓰인 경우 | 25 |
| 3.1.3 명령형 내포절 | 26 |
| 3.1.4 청유형 내포절 | 27 |
| 3.1.5 연결형 ‘-(으)려 하-’ | 28 |
| 3.2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 | 31 |
| 3.2.1 평서형 내포절 | 31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31 |
| 2) ‘-더-’가 쓰인 경우 | 34 |
| 3.2.2 의문형 내포절 | 35 |
| 3.2.3 명령형 내포절 | 36 |
| 3.2.4 청유형 내포절 | 37 |
| 3.2.5 연결형 ‘-(으)려 하-’ | 38 |
| 3.3 소결 | 40 |
| | |
| 4. 상위절이 감탄문인 경우 | 42 |
| 4.1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42 |
| 4.1.1 평서형 내포절 | 42 |

| | |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42 |
| 2) ‘-더-’가 쓰인 경우 | 43 |
| 4.1.2 의문형 내포절 | 44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44 |
| 2) ‘-더-’가 쓰인 경우 | 44 |
| 4.1.3 명령형 내포절 | 45 |
| 4.1.4 청유형 내포절 | 45 |
| 4.1.5 연결형 ‘-(으)려 하-’ | 46 |
| 4.2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 | 47 |
| 4.2.1 평서형 내포절 | 47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47 |
| 2) ‘-더-’가 쓰인 경우 | 48 |
| 4.2.2 의문형 내포절 | 48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48 |
| 2) ‘-더-’가 쓰인 경우 | 48 |
| 4.2.3 명령형 내포절 | 49 |
| 4.2.4 청유형 내포절 | 50 |
| 4.2.5 연결형 ‘-(으)려 하-’ | 50 |
| 4.3 소결 | 51 |
| 5. 상위절이 의문문인 경우 | 53 |
| 5.1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53 |
| 5.1.1 평서형 내포절 | 53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53 |
| 2) ‘-더-’가 쓰인 경우 | 61 |
| 5.1.2 의문형 내포절 | 62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62 |
| 2) ‘-더-’가 쓰인 경우 | 64 |
| 5.1.3 명령형 내포절 | 65 |
| 5.1.4 청유형 내포절 | 66 |
| 5.1.5 연결형 ‘-(으)려 하-’ | 67 |
| 5.2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 | 68 |
| 5.2.1 평서형 내포절 | 68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68 |
| 2) ‘-더-’가 쓰인 경우 | 70 |
| 5.2.2 의문형 내포절 | 71 |

| | |
|---|-----------|
|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 71 |
| 2) ‘-더-’가 쓰인 경우 | 71 |
| 5.2.3 명령형 내포절 | 72 |
| 5.2.4 청유형 내포절 | 72 |
| 5.2.5 연결형 ‘-(으)러 하-’ | 73 |
| 5.3 소결 | 73 |
| 6.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 | 76 |
| 6.1 ‘-고’형 | 77 |
| 6.1.1 -다/냐/(으)라/자고 | 78 |
| 6.1.2 -더라/더냐고 | 88 |
| 6.1.3 -(으)려고 | 89 |
| 6.2 ‘-(으)면서, -(으)며’형 | 89 |
| 6.2.1 -다/냐/(으)라/자면서, -다/냐/(으)라/자며 | 90 |
| 6.2.2 -더라/더냐면서, -더라/더냐며 | 95 |
| 6.2.3 -(으)러면서, -(으)러며 | 96 |
| 6.3 ‘-(으)면, -거든’형 | 97 |
| 6.3.1 -다/냐/(으)라/자면 | 98 |
| 6.3.2 -더라/더냐면 | 102 |
| 6.3.3 -(으)려면 | 103 |
| 6.4 ‘-(으)니까’형 | 103 |
| 6.4.1 -다/냐/(으)라/자니까 | 104 |
| 6.4.2 -더라/더냐니까 | 107 |
| 6.4.3 -(으)려니까 | 109 |
| 6.5 ‘-(으)니’형 | 110 |
| 6.5.1 -다/냐/(으)라/자니 | 110 |
| 6.5.2 -더라/더냐니 | 112 |
| 6.5.3 -(으)려니 | 114 |
| 6.6 ‘-거나, -든지, -든가’형 | 115 |
| 6.6.1 -다/냐/(으)라/자거나, -다/냐/(으)라/자든지, -다/냐/(으)라/자든가 | 116 |
| 6.6.2 -더라/더냐거나, -더라/더냐든지, -더라/더냐든가 | 119 |
| 6.6.3 -(으)려거나, -(으)려든지, -(으)려든가 | 119 |
| 6.7 ‘-느니’형 | 120 |
| 6.8 ‘-는데’형 | 121 |
| 6.9 ‘-던데’형 | 122 |
| 6.10 ‘-지만’형 | 123 |

| | |
|--------------------------------|------------|
| 6.11 ‘-더니’형 | 124 |
| 6.12 소결 | 126 |
| 7. 상위절이 관형사형인 경우 | 128 |
| 7.1 - 다/냐/(으)라/자+ㄴ/는/르/던 | 128 |
| 7.2 - 더라/다나+ㄴ/는/르/던 | 130 |
| 7.3 - (으)려+ㄴ/는/르/던 | 131 |
| 7.4 소결 | 131 |
| 8. 상위절이 명사형인 경우 | 133 |
| 9. 결론 | 135 |
| <참고문헌> | 144 |
| <Abstract> | 147 |

1. 서론

1.1 연구목적

현대 한국어 간접인용문으로 쓰이는 ‘-다고 합니다’는 인용표지 ‘-고’¹⁾와 상위동사 ‘하-’²⁾의 축약에 따라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와 합쇼체 종결어미 ‘-ㅂ니다’가 남아 ‘-답니다’로 쓰이게 된다.³⁾ 이처럼 간접인용문에서 인용표지 ‘-고’와 상위동사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것을 고영근(1974:127)에서 ‘합성형’이라고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합성형’은 ‘밥’과 ‘상(床)’이 결합된 ‘합성어’의 상하위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어 ‘-답니다’에 사용되면 혼동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와 합쇼체 종결어미 ‘-ㅂ니다’, 즉 두 개의 어미가 결합된 것에 초점을 맞춰 ‘-답니다’를 어미 결합형이라 부르기로 한다.⁴⁾

이러한 어미 결합형은 간접인용문에서만 비롯한다고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간접인용문에서 ‘-고 하-’가 축약된 것과 같이 연결어미 ‘-(으)려’가 관련된 형태도 ‘하-’의 축약에 따라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 연결어미 ‘-(으)려’는 ‘집에 가려 하지만 야근해야 돼.’처럼 ‘-(으)려 하-’로 많이 쓰인다. 이때 ‘하-’가 축약되면 ‘집에 가려지만 야근해야 돼.’에서 연결어미 ‘-(으)려’는 연결어미 ‘-지만’과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과 같다.

한편, 간접인용문과 ‘-(으)려 하-’의 인용동사(상위동사)에 연결어미 ‘-고’나 ‘-(으)니까’가 결합된 경우가 있다. 이는 ‘-고 하-’나 ‘하-’가 축약되면 ‘-다고’나 ‘-다니까’ 등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 또 인용동사(상위동사) ‘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는’과 명사형 어미 ‘-기/음’이 결합된 경우가 있어 이로 형성된 ‘-다는’과 ‘-다기’ 등도 어미 결합형이다.

그러나 모든 간접인용문에서 어미 결합형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접인용문의

- 1) 김수태(1994), 안주호(2003), 남미정(2010), 강규영(2017), 구종남(2017), 김선혜·남신혜(2022)에서 간접인용문에 쓰인 ‘-고’를 ‘인용표지’로 지칭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지칭한다.
- 2) 이필영(1993)에서 간접인용문의 상위절 서술어를 ‘상위동사’로, 남기심(1973)에서 ‘보문동사’로, 전영철(1990), 박재연(2000), 이금희(2005), 안주호(2006), 남미정(2010), 명정희(2017)와 구종남(2019) 등 논의에서는 간접인용문 상위절에 쓰인 동사를 ‘인용동사’라 지칭하고 있다. 본고는 이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간접인용문은 ‘인용동사’로 일컫는다. 이들은 모두 간접인용문의 상위절 서술어를 가리키는데 본고에서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용동사’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연결형 ‘-으려 하-’의 구문은 간접인용문이 아니기에 ‘하-’를 ‘인용동사’라 할 수 없다. 이때 ‘-으려 하-’ 구문의 구조상 ‘하-’는 상위절에 쓰인 것이므로 ‘하-’를 ‘상위동사’라고 할 수 있다.
- 3) 설명의 편의상 인용표지 ‘-고’와 인용동사 ‘하-’를 통합하여 ‘-고 하-’라고 한다.
- 4) 이필영(1993) 등 일부 연구자들은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와 합쇼체 종결어미 ‘-ㅂ니다’가 결합하게 된 것은 ‘-고 하-’가 아닌 ‘하-’의 축약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의해 ‘-답니다’는 ‘-고 하-’의 축약이나 ‘하-’의 축약으로 형성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간접인용문 외에 ‘가야 하겠다.’, ‘익숙하지 않다’ 등 쓰임도 ‘하-’의 축약에 따라 ‘가야겠다.’와 ‘익숙지 않다’로 쓰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답니다’를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나 ‘-고 하-’의 축약과 ‘하-’의 축약 간에 ‘하-’의 축약으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수태(2005:22)에서 언어생활에서 ‘-고 하-’의 꼴을 보이므로 꼴을 실현하지 않은 것들은 ‘-고 하-’의 생략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법 설명을 간략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간접인용문인 경우에 ‘-고 하-’가 축약되어 ‘-답니다’ 등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상위절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상위절이 명령형과 청유형인 경우에 ‘-고 하-’가 축약되지 못함으로 인해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다. 다음 (1)은 해당 예문들이다.

- (1) 가. 아프다고 합니다.
나. 공부한다고 해요?
다. 아프다고 하세요.
라. 공부한다고 하자.

- (1') 가. 아프습니다.
나. 공부한대요?
다. *아프다세요.
라. *공부한다자.

(1가-나)는 상위절이 평서형과 의문형인 경우고 (1'가-나)는 (1가-나)에 쓰인 ‘-고 하-’를 축약시킨 구문이다. (1'가-나)에 쓰인 ‘-답니다’와 ‘-대요’는 ‘인용’을 나타낼 수 있는 어미 결합형이다. 상위절이 명령형인 (1다)와 청유형인 (1라)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1'다-라)에서 볼 수 있듯이 ‘-고 하-’를 축약시키면 비문이 된 결과가 초래된다.

뿐만 아니라 ‘-(으)려 하-’의 경우 합쇼체인 ‘-렵니다’, 하오체인 ‘-(으)려오’, 하게체인 ‘-(으)려네’와 해라체인 ‘-런다’가 있을 수 있으나 해요체인 ‘-레요’와 해체인 ‘-레’는 쓰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모든 간접인용문과 ‘-(으)려 하-’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어미 결합형을 주로 이룬 이필영(1993)과 이금희(2005) 등 대표적인 연구에서 개별 어미 결합형의 정체성 및 쓰임, 또는 공통성을 가진 몇 개의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논의하였으나 이것으로 현대 한국어에 어떠한 어미 결합형이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 이에 의해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 어떠한 어미 결합형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한편, 간접인용문에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기본적으로 ‘인용’의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어미 결합형은 ‘인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별개의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 (2) 가. 의사 말이 생명이 {위험하답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 23회]

나. 대단한 {집이라니까, 집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복잡해.

[사랑해 당신을 02회]

(3) 가. 저도 신문보고 무한 {놀랐답니다, *놀랐다고 합니다}.

[소울메이트 11회]

나. 아무튼 지고는 못 사는 {녀석이라니까, *녀석이라고 하니까}.

[1%의 어떤 것 5회]

(2)에 쓰인 ‘-답니다’와 ‘-이라니까’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3)에 쓰인 ‘-답니다’는 화자 ‘나’가 ‘놀랐다’는 것을 친근하게 알려주는 데에 사용한 것이고, ‘-이라니까’는 발화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답니다’와 ‘-이라니까’는 (2)의 경우와 달리 축약된 ‘-고 하-’가 환원될 수 없다. 이처럼 ‘-고 하-’의 환원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의미로 쓰인 ‘-답니다’와 ‘-이라니까’를 하나의 어미로 간주해야 적합하다. 그러나 여러 어미 결합형 중에 어느 것이 별개의 어미로 쓰일 수 있는지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본고의 두 번째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1.2 연구사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어미 결합형은 간접인용문에서 ‘-고 하-’의 축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어미 결합형에 관한 논의 중에 간접인용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앞서 그간 간접인용문에 관한 초기 연구, 간접인용문에서 포착된 개별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정한 공통점에 의해 별개의 어미로 쓰이는 몇몇의 어미 결합형을 묶어 다룬 연구를 살펴보며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간접인용문을 포괄적으로 다룬 대표적 논의는 Jespersen(1924), 이상복(1974), 이필영(1993), 이창덕(1999), 채숙희(2013)가 있다. 이들에 제시된 ‘인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거나 말했던 것 또는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했던 것을 전달하는 행위 (Jespersen 1924:290)
- ②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는 자신의 말을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두고 인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장 (이상복 1974:131)
- ③ 언어를 표현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필영 1993:11)
- ④ 실제 언어사용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된 발화나 문장(표현행위)의 부분이나 전체, 내용이 형식 어느 부분만이라도 화자가 담화사용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어다 언어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창덕 1999:258)
- ⑤ 인용동사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 (채숙희 2013:50)

이처럼 ‘인용’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이 중에 Jespersen(1924), 이상복(1974)과

채숙희(2013)의 정의에 소위 간접인용문의 ‘피인용문’, ‘피인용문 화자’, ‘인용화자’라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언어 표현이 표현의 대상이 된 문장을 모두 인용구문으로 간주하는 이필영(1993)의 정의는 광범한 것이므로 ‘피인용문’, ‘피인용문 화자’와 ‘인용화자’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꽃’이란 한 음절로 된 명사이다.”라는 구문이 이필영(1993)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본고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냐/(으)라/자’와 종결어미 ‘-ㅂ니다’나 연결어미 ‘-고’를 비롯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인용’ 또는 하나의 어미로 쓰이는지를 밝히는 것을 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미 결합형은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하여 기본적 기능이 ‘인용’이다. 이에 의해 광범한 ‘인용’의 정의보다 ‘피인용문’ 등 요소가 내포된 정의가 적합하다. 따라서 본고는 Jespersen(1924), 이상복(1974)과 채숙희(2013)의 정의를 택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간접인용문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인용동사에 결합된 어미가 결합한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菅野裕臣 외(1991)에서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을 나열하기는 하였으나 어미 결합형의 사용 여부 등 관련 기술을 하지 않았으며 ‘-(으)러 하-’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어미 결합형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별개의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문법화’나 ‘융합’으로 지칭하고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가 있다. 안명철(1990), 한길(1991), 이지양(1994, 1998), 이필영(1995), 김현정(1997), 최형용(1997), 허재영(1997), 안주호(2001, 2003), 이금희(2006, 2017) 등이 이에 해당된 논의들이다.

안명철(1990)에서 한국어의 ‘융합’ 현상을 음운론적 축약과 통사론적 축약으로 분류하고 통사론적 축약은 둘 이상의 단어가 특별한 통사론적 조건에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 어미 등으로 발전해 오며 의미 변화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융합으로 정의하고 음운론적 축약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고 하-’ 탈락에 따라 형성된 ‘-ㄴ다’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고 하-’의 ‘하다’가 의문문인 경우와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경우에 축약이 가능하나 상위절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래 내포문의 서술어가 융합 후에는 모문의 서술어로 되고 내포문의 주어도 융합 후 모문의 주어가 된다는 융합에 따른 통사 기능의 변화를 밝혔다.

안명철(1990)에서 ‘융합’의 기본적 개념과 간접인용문 ‘융합’의 일부만 다루었다면 이지양(1998)은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대부분의 융합 양상을 보다 자세히 다룬 것이므로 부족한 부분에 관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금희(2005)는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로 쓰이는 ‘-단다, -다면서, -다면, -다네, -자니까, -자고’ 등이 하나의 어미로 쓰이게 된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중에 종결어미 ‘-답니다, -단다, -다오, -다네’와 연결어미 ‘-다고, -자고, -자니까, -자면, -다면’ 등은 ‘-다 하-’ 구성에서 ‘ㅎ’의 탈락, 피인용절과의 축약, 그리고 융합의 과정을 겪어 문법화된 것이고 종결어미 ‘-다고, -다면서, -다며, -자니까, -다니, -다나’ 등은 ‘ㅎ’의 탈락과 피인용절과의 축약 이후 생략이라는 과정을 더 겪은 것이라 분류하고 설명하였다.

간접인용문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금희(2017)에서는 ‘문법화’의 개념, 적용 범위와 상대 개념을 고찰하였는데 한국어의 문법화를 ‘문법적 요소가 아닌 것이 하나의 문법 요소로, 또는 두 개 이상의 범주가 결합된 형식이 하나의 문법 요소로 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법화된 과정에 문법 범주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형태 변화도 몇몇 예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구조화와 탈락, 축약 현상이 일어나 형식의 감소가 일어나며 의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이른바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어미로 쓰이게 된 하나 또는 공통점을 지닌 여러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축적되어 왔다. 하나의 어미 결합형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는 전해영(1984, 1996), 손세모돌(1998), 박재연(2000), 유현경(2001), 손옥현·김영주(2009), 이소훈(2013), 장요한(2013), 서희정(2013), 진관초(2016), 명정희(2017), 강규영(2020), 구중남(2019, 2020), 목지선(2020), 김선혜·남신혜(2022), 채숙희(2023)가 있다. 여러 어미 결합형을 다룬 논의로는 남기심(1973), 김홍범(1987), 서대룡(1988), 안명철(1990), 한길(1991), 이필영(1993, 1995), 김현정(1997), 최형용(1997), 허재영(1997), 이지양(1998), 김수태(2000, 2001, 2022), 안주호(2001, 2003, 2011), 이금희(2005, 2006, 2014, 2017), 박재연(2009), 남미정(2010), 이금영(2015), 양지현(2013), 구중남(2017), 양정석(2022)이 있다.

전자에 해당된 논의 중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다고’, ‘-다니까’와 ‘-다니’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다. 우선 전해영(1996)과 박재연(2000)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종결어미 ‘-다고’의 화용적 기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유현경(2001), 남미정(2010)과 명정희(2017)는 의미적 관점 및 기준에 의해 ‘-다고’를 간접인용문에 쓰인 것, ‘원인’이나 ‘이유’의 연결어미로 쓰인 것과 ‘강조하고 일러줌’의 종결어미로 쓰인 것으로 나눠 논의하였다.

김선혜·남신혜(2022)에서는 공식적 측면에서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다고’, 연결어미 ‘-다고’와 종결어미 ‘-다고’의 용례를 상위절 서술어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다고’ 용례에 포괄 동사 ‘하다’ 외에 의미가 퇴색되고 추상화된 ‘하다’가 있음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결어미 ‘-다고’의 ‘확인’과 ‘강조’의 의미는 후행절의 의미가 전이되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채숙희(2011)는 별개의 어미로 쓰이는 ‘-라고’와 ‘-자고’를, 채숙희(2023)는 연결어미로서의 ‘-다고’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결합한 절이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닌 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라고’, ‘-자고’ 앞에 형용사가 사용되는 점, ‘그렇게’로 대응되지 않고 ‘뭐라고’나 ‘어떻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 점, ‘-고’가 생략되지 않는 점, ‘-다라고, -냐라고, -라라고, -자라고’의 연쇄가 불가능한 점으로 이들을 별개의 어미로 판별하였다.

한편, ‘-다니까’를 대상으로 구중남(2019)과 목지선(2020)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구중남(2019)은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다니까’를 ‘융합형 종결어미’로 간주하고 이를 ‘-다니까1’, ‘-다니까2’와 ‘-다니까3’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에 따라 각각의 형태, 통사적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구중남(2019)과 달리 목지선(2020)에서는 종결어미 ‘-다니까’의 용법을 연결어미 ‘-(으)니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

하며 연결어미 ‘-다니까’와 관련을 지어 종결어미 ‘-다니까’의 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두 논의 외에 어미로 쓰이는 ‘-다니까’를 포함시킨 논의로는 한길(1991), 이필영(1993), 하지선(2006), 이금희(2006), 손옥현·김영주(2009)와 서희정(2013)을 더 들 수 있다. 그 중 ‘-다니까’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손옥현·김영주(2009:12)에서 ‘-다니까’는 종결어미로서 앞서 말한 내용을 재확인이나 재단언 외에 억양에 따라 화자의 못마땅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 서희정(2013)에서는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보고 있으나 이의 ‘인용’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지 않기에 이를 ‘인용 종결어미’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초점이 각각 다르나 하나의 어미로서의 ‘-다니까’의 정체성, 기본적인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다니까’와의 문법적·통사적 차이점 등에 관한 일부 해석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다니’에 대해 이소훈(2013)은 ‘-다니’류를 대상으로 하며 ‘-다니’를 ‘제1유형’인 종결어미 결합 유형과 ‘제2유형’인 연결어미 결합 유형으로 나누는데 후자에 해당된 ‘-다니’를 다시 ‘-다니1’과 ‘-다니2’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 ‘-다니’는 의문형으로 나타나 ‘-고 하-’가 환원되는 경우와 환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환원되지 않은 ‘-다니’는 단일형태가 되었고 확인, 놀람, 감탄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이소훈(2013)의 출발점과 달리 장요한(2013)은 ‘-커니와’와 ‘-다니’의 통시적 변화를 밝히는 데에 ‘-다니’에 문법화가 일어나 하나의 종결어미로 쓰인 것을 논의하였다. 강규영(2020)에서는 ‘-다니’가 쓰인 구문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구문을 수사의문문, 메아리의문문(echo question)과 감탄문으로 분류하고 ‘-대’형의 사용 여부 등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구문에 쓰인 ‘-다니’ 간의 문법적·통사적·의미적 차이를 밝혔다.

문법적·통사적·의미적 분석과 달리 진관초(2016)에서는 의외성(mirativity)의 관점에서 인용 융합형 어미 ‘-다니’는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임을 논증한 것이 어미 결합형 ‘-다니’를 기술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살펴본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하고 ‘인용’ 기능만 하는 어미 결합형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별개의 어미로 쓰이게 된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뒤 새로 적용된 문법적·통사적·의미적·화용론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간접인용문 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특정한 공통점에 의해 별개의 어미로 쓰이는 몇몇의 어미 결합형을 묶어 이들의 형태·통사·의미·화용론적 특징을 고찰한 후자의 논의 중 간접인용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간접인용문에 나타난 ‘-고 하-’의 축약 및 축약에 따른 어미 결합형의 기능 변화 등 포괄적으로 한 논의는 남기심(1986)과 이필영(1993)이 있다.

남기심(1986)은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이 포함된 완형보문을 대상으로 하여 재귀대명사화, 동일명사구 삭제, 보문 주어의 상승, 관형수식구화, 명사구로부터의 외치변형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았다. 특히 완형보문술부 구성에서 형태음운변화를 거친 융합축약, 보문자축약과 절단축약에 대해 예문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필영(1993)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부터 인용구문에서의 축약의 유형과 조건까지 인용구

문을 중심으로 하되 ‘-고 하-’가 축약된 경우에 해당된 일부 어미 결합형의 통사적·의미적 변화를 다루었다. 여기서 ‘-고 하-’가 축약된 경우를 ‘융합’과 ‘절단’으로 나누고 ‘-고 하-’의 환원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환원적 융합형’, ‘환원적 절단형’과 ‘비환원적 융합형’, ‘비환원적 절단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간접인용문 구성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 중 이른바 문법화 과정을 통해 별개의 어미로 쓰이게 된 어미 결합형을 묶어 다룬 논의로는 이금희(2005)가 있다. 이금희(2005)는 인용구문에서 ‘-고 하-’가 탈락한 후 남은 요소들이 하나의 어미로 굳어지는 융합된 것을 ‘문법화’라고 지칭하고 문법화된 어미와 조사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에 따른 통사적·의미적 변화를 밝혔다. 이러한 어미와 조사를 형태적으로 ‘-다/라/냐/자’류, ‘-이라-’류, ‘-더라’류로 나누고 이들의 형태적·통사적 특징과 ‘탈락·축약·융합’ 과정의 실현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우선 문법화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들이 원래 인용문 형식으로 되돌렸을 경우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임이라 하였다. 그리고 각 어미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라’로 시작된 어미에 있어 ‘-(으)르래, -(으)르란다, -(으)르랍니다, -(으)르라네’처럼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주어를 1인칭으로 제한하는 통사적인 변화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법화된 어미들 중에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고, 완전히 문법화된 것들이 있으며 한 형태의 쓰임에도 이런 문법화의 과정성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문 서법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다면서’, ‘-다고’와 ‘다니’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김홍범(1987)에서는 ‘-다면서’, ‘-다고’와 ‘-다니’의 형성 과정,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김홍범(1987)과 같이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의문형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이금희(2014)가 있다. 다만, 이금희(2014)에서는 原發話의 出處와 原發話와 現發話의 時間的 差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공통점, 용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김수태(2000)는 ‘-(으)니’가 쓰인 어미 합성형 중에 ‘-고 하-’의 복원이 허용되지 않는 ‘-다니’, ‘-느냐니’, ‘-으라니’와 ‘-자니’를 묶어 이들의 통어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이들 중에 ‘-고 하-’를 복원할 수 없는 것은 ‘-다니’와 ‘-자니’로 한정되며 월의 끝에 쓰여 올림의 억양과 내림의 억양이 실현된다고 한 것이 김홍범(1987)과 대체로 일치한다.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에 비해 연결형 ‘-(으)려 하-’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에 관한 기존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이금영(2015)에서 ‘-(으)니’가 쓰인 어미 결합형에 ‘-(으)려니’를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으)려니’는 중세 한국어에서 강조 및 확인의 서법 의미를 나타내는 ‘-거/어-’가 통합된 ‘-리--거/어--(으)니’로 보면서 ‘-(으)려 하니’의 준말로 파악하였으며 동작 주체가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후행절 사태의 근거나 원인이 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실을 미루어 추측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지현(2013)은 ‘-(으)려 하-(다)’는 중세부터 선행용언에 [+내면성]을 부여하는 ‘-

리-'가 결합한 '-리어 흐(다)'에서 온 것이라고 한 점이 이금영(2015)과 일치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으)려고(요)'의 '-(으)려고'는 '-(으)려 흐고'로 쓰던 말에서 '흐-'가 줄어들어 '-(으)려고'가 남은 것이고 '-(으)려고 하(다)'는 접속어미 '-(으)려고'로 연결된 복문의 후행절이 '하(다)'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으)려 흐고 하(다)' 구성에서 온 것이라 설명하고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결어미 '-(으)려'로 시작된 어미 결합형은 '-(으)려 하-' 구성과 연결어미의 결합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세부적 논의는 각 어미 결합형에 관한 논의와 함께 기술할 것이므로 본 소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분류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펴본 논의를 통해 '인용'으로 쓰였던 어미 결합형이 별개의 어미로 쓰이게 된다고 판별한 공통적 기준은 '-고 하-'나 '하-'의 환원이 불가능한 것과 '인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쓰인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법적 기준: 간접인용문에서 축약되었던 '-고 하-'나 '-(으)려 하-'에 축약되었던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다.

② 의미적 기준: '인용'의 기능이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다.

본고의 두 번째 연구 목적, 즉 어미로 쓰일 수 있는 어미 결합형을 확보하는 데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부터 어미 결합형에 관한 전반적 정보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다고 합니다'를 예로 들면 '-고 하-'가 축약되어 남은 요소인 '-다'와 '-습니다'가 결합하고 '-답니다'가 형성된다.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답니다'에 대해 이필영(1993)은 '환원적 융합형', 이지양(1994)은 '융합형'으로 지칭하고 있고 간접인용문이 아닌 별개의 어미로 쓰이는 '-답니다'를 이필영(1993)은 '비환원적 융합형', 이지양(1994)은 '진진된 융합형', 명정희(2017)는 '통합형 어미', 목지선(2020)은 '복합형 어미'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인용'을 나타내는 '-답니다'가 하나의 종결어미로 쓰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금희(2005)는 '문법화', 이지양(1998)은 '융합', 구종남(2019)과 서희정(2013)은 '종결어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답니다' 자체와 '-답니다'가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과정에 관한 용어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어 사용 및 사용 원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어미와 어미가 결합된 양상에 관한 전반적 정보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미와 어미가 결합된 양상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간접인용문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만큼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만 다룬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논의에서 간접인용문 내포절이 평서형인 '-다고 하-' 구성의 경우만 다루거나 상위절이 합쇼체 평서형인 '-다고 합니다'와 해라체인 '-다고 한다'의 경우만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간접인용문이라는 범위 내에 내포절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의 경우, 상위절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과 명사형의 경우, 내포절과 상위절이 평서형과 의문형인 경우에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경

우와 쓰이지 않은 경우, 인용동사 ‘하-’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고 하-’가 축약되면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간접인용문 구성이 아닌 연결형인 ‘-(으)려 하-’는 ‘하-’의 축약에 의해 ‘-(으)립니다’, ‘-런다’나 ‘-(으)려고’ 등 어미 결합형이 생성된다.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결합형을 망라하고 어미 결합형의 체계 및 각기 사용 양상을 기술하려면 상술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도 포함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 목적을 실현하며 연구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본고의 연구 대상, 즉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는 범위부터 정리해야 한다. 간접인용문의 경우 내포절과 상위절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있다. 그리고 상위절은 인용동사 ‘하-’에 연결어미,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경우가 있음에 의해 편의상 이들을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 관형사형인 경우와 명사형인 경우라고 한다. 이 외에 ‘-(으)려 하-’는 간접인용문이 아니지만 ‘하-’의 축약에 따라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 ‘-(으)려’는 연결어미인 점과 간접인용문의 분류를 고려하여 ‘-(으)려 하-’를 내포절이 연결형인 경우로 해 둔다. 한편, 상위절이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과 청유형인 경우에 어미 결합형은 상대경어법에 의해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와 해체로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상대경어법을 합쇼체로 설정한다면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는 범위를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 합쇼체 어미 결합형 분포도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의문형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⁵⁾ |
|------------|-------------|-------------|----------------|-------------|-------------------|
| 평서형 | -답니다 | -납니다 | -(으)랍니다 | -잡니다 | -(으)립니다 |
| 의문형 | -답니까 | -납니까 | -(으)랍니다까 | -잡니까 | -(으)립니다까 |
| 명령형 | — | — | — | — | — |
| 청유형 | — | — | — | — | — |
| 연결형 | -다면 | -냐면 | -(으)라면 | -자면 | -(으)려면 |
| 관형사형 | -다는 | -냐는 | -(으)라는 | -자는 | -(으)려는 |
| 명사형 | -다기 (보다) | -냐기 (보다) | -(으)라기 (보다) | -자기 (보다) | -(으)러기 (보다) |

<표1>의 범위 내에 내포절과 상위절이 평서문과 의문문인 경우에 ‘-더-’가 쓰여 ‘-답디다’나 ‘-더라고’ 등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기도 한다.⁶⁾ 이를 언급한 이유는 선어말어미 ‘-겠-’,

5) ‘-(으)려 하-’는 간접인용문이 아니지만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는 데 간접인용문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1>에서는 이를 간접인용문 내포절의 유형과 함께 나열한다.

6) 이익섭 외(1997:193)와 박재연(2006:52)에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다고

‘-시-’와 ‘-더-’ 중에 ‘-더-’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 중에 ‘-더-’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된 경우와 별개의 어미로 쓰이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더라니까’가 종결어미로, ‘-더라면’은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고는 <표1>에 의해 상위절의 유형에 의해 장을 설정한 뒤 내포절의 유형별로 절을 나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포절과 상위절이 평서문과 의문문인 경우에 대해 해당 장과 절을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본다.

한편, 본고의 연구목적을 위해 각기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이용하여 예문을 추출함으로써 해당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와 어미로 쓰이는 여부 등 사용 양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여기서 사용 빈도를 조사한 이유는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해당 어미 결합형이 어미로 쓰이는 여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문이 추출되지 않은 어미 결합형은 제약 또는 사용 빈도 저하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결합형을 망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간접인용문,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대해 소홀이 다루어진 부분에 대한 규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밝힌 바 있다.

2. 용어 및 개념

간접인용문 구성과 연결형 ‘-(으)려 하-’ 구성에서 ‘-고 하-’나 ‘하-’가 축약되지만 여전히 기존 기능을 수행한 경우에 축약된 형태를 흔히 ‘축약형’이라 부른다(이필영 1993, 남기심 1973). 이 외에 ‘-고 하-’의 축약으로 인해 간접인용문 내포절 종결어미와 상위절에 쓰인 어미가 결합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합성형’이라 일컫는 학자도 있다(고영근 1974). 또 이러한 축약된 형태가 기존 기능을 수행한 경우와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여 별개의 어미로 쓰인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에 속한 것을 ‘단순 융합형’, 후자에 속한 것을 ‘진전된 융합형’이라 부르며 분류한 연구자도 있다(이지양 1994).

‘-고 하-’가 축약된 형태가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하나의 어미로 변화한 과정에 대해 이성하(1998), 안주호(2003), 이금희(2005), 이금영(2015), 구종남(2020) 등에서 ‘문법화’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였고 유창돈(1976), 김현정(1997), 김태엽(1998), 손세모들(1998), 최형용(2003), 서태룡(2005)에서는 ‘문법화’의 하위 개념인 ‘어미화’ 또는 ‘종결어미화’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축약형’에 대해서는 김홍범(1987)은 ‘단일 형태소’, 이금희(2020)는 ‘어미’, 이필영(1993)은 ‘비환원적 융합형’, 이지양(1994)은 ‘진전된 융합형’, 명정희(2017)는 ‘통합형 어미’, 목지선(2020)은 ‘복합형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고 하-’가 축약된 형태,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형태, 그리고 축약된 형태에서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형태로의 변화의 과정에 대한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가 각각 다르다. 물론 논의의 초점과 연구 목적에 따라 이러한 용어들의 옳고 그름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본고는 간접인용문 구성과 ‘-(으)려 하-’ 구성에서 비롯한 모든 ‘축약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용어부터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1 어미 결합형

고영근(1974)에서 ‘-고 하-’의 축약과 각 문체법 간의 상호 통합에 의해 형성된 것을 ‘합성형’이라고 부르고 이필영(1993)과 손세모들(1998)은 ‘-고 하-’나 ‘하-’가 축약된 형태를 ‘축약형’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이 중에 ‘합성’은 ‘-고 하-’의 축약에 따라 내포절 종결어미와 상위절 어미가 합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다고 합니다’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남은 내포절 종결어미인 ‘-다’와 상위절 종결어미 ‘-습니다’가 합성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어휘에 있어서도 ‘합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 용어가 적용되는 범위를 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축약형’은 ‘-고 하-’나 ‘하-’의 축약 양상에 초점을 맞춰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본고에서 축약이라는 양상보다 축약된 형태 자체의 사용 양상 및 기타 활용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축약이 완료된 형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

다시 ‘-다고 합니다’에서 ‘-고 하-’가 축약된 경우를 보면 ‘-고 하-’의 축약에 따라 내포절 종결어미 ‘-다’와 상위절 종결어미 ‘-습니다’가 남는다. 즉 축약이 완료된 형태는 두 가지 어

미의 결합인 것이다. 연결형 ‘-(으)려 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으)려 합니다’는 ‘하-’의 축약에 따라 연결어미 ‘-(으)려’와 종결어미 ‘-입니다’가 남아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인용문 구성과 연결형 ‘-(으)려 하-’ 구성에서 ‘-고 하-’나 ‘하-’가 축약된 형태를 형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미 결합형’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2.2 문법화

‘-고 하-’나 ‘하-’가 축약된 형태를 ‘어미 결합형’이라고 지칭하기로 한 뒤 이러한 어미 결합형이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형태로 변화한 과정에 대해 ‘문법화’보다 적합한 용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Meillet(2017[1912]:35-36)에서 문법적 속성은 한때는 독자적 단어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문법화’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 그 후 학자들이 규명한 ‘문법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를 보면 ‘문법화’는 대체적으로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한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덜 문법적인 것’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더 문법적인 것’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이다. 어미 결합형인 ‘-답니다’를 예로 들어 ‘문법화’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간접인용으로 쓰인 어미 결합형 ‘-답니다’든 ‘어떤 사실을 친근하게 베풀어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답니다’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미 결합형 ‘-답니다’는 ‘덜 문법적인 것’이고 종결어미 ‘-답니다’는 ‘더 문법적인 것’이라 하기에 두 ‘-답니다’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문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어미 결합형 ‘-답니다’는 의미적 기능 없이 문법적으로 종결 기능만 지니고 있고 종결어미 ‘-답니다’는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기능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전자가 ‘더 문법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어미 결합형 ‘-답니다’는 종결어미 ‘-답니다’로 변한 것을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한편, ‘문법화’와 역으로 해석된 개념인 ‘어휘화(lexicalization)’가 있다. 그러나 김성규(1987), 송철의(1992), 박진호(1994), 송원용(1998), 채현식(2000)에서 논의한 바에 의해 ‘어휘화’는 어휘가 아닌 것이 어휘가 되는 것인데, 종결어미 ‘-답니다’는 어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휘화’의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⁷⁾

7) 어휘화는 두 가지 의미로 파악되어 왔다. 한 가지는 김성규(1987:23), 송철의(1992:32)에서 제기한 개념인데 이에 따르면 어휘화는 어떤 복합어가 동시에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변화를 입어 공식적인 규칙으로 생성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다른 한 가지는 박진호(1994:13), 송원용(1998:26), 채현식(2000:6)에서 제기한 개념인데 어휘 밖에 존재하는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어휘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단어가 아닌 것이 단어로 재분석되는 계층구조상의 변화 (김창섭 1996:25)
- b. 단어가 아닌 요소가 주요 범주로서의 단어 지위를 얻게 되는 경우 (노명희 2003:113)
- c. 어휘부 밖에 존재했던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 (박진호 1994:13)
- d. 협의의 어휘화는 ‘어휘의미가 없는 문법소가 어휘의미를 갖는 자립적 어휘소로 되는 것’이고 광의의 어휘화는 ‘두 형태소 이상이 결합함으로써 형태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어 어

2.3 단일어미화(單一語尾化)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용’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 결합형이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고 하나의 어미로 쓰인 과정을 ‘단일어미화’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우선 일부 기존 연구에서 어미 결합형이 하나의 종결어미로 쓰인 현상을 ‘종결어미화’로 다루고 있다. 유창돈(1976), 안주호(1997), 김태엽(1998), 최형용(2002), 손옥현·김영주(2009), 구종남(2019) 등이 그것들이다.⁸⁾ 하지만 ‘인용’의 어미 결합형은 하나의 어미로 쓰이는 데에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도 있어 ‘종결어미화’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한편, 한국어 조어법에 있어서 이선웅(2012), 정한데로(2015), 오규환(2013)과 김의수·김건영(2017)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나 단어를 새로운 하나의 단위가 되는 현상’을 ‘단일어화’로 정의하였다.

① 복합어가 단일어로 변하는 현상 (이선웅 2012:113)

② 고정된 표현이나 둘 이상의 성분이 결합한 단위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현상 (오규환 2013:326)

③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율적인 언어 단위를 구성 성분으로 한 복합체가 형태론적·의미론적 측면에서 제3의 형식으로 통합되는 것 (정한데로 2015:24)

④ 개념 명명을 위해 단순어가 생성되거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요소가 새로운 하나의 요소로 되어 단일어가 만들어지는 현상 (김의수·김건영 2017:28)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하나의 어미로 쓰인 과정은 두 어미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일어화’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단일어화’는 어휘에 적용하는 개념이라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지칭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개의 어미로 구성된 어미 결합형이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하나의 어미로 쓰인 현상을 ‘단일어미화’라고 지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이어서 한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단일어미화가 되었다는 판별의 기준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용’으로 쓰였던 어미 결합형은 별개의 어미로 쓰이게 된다고 판별한 공통적 기준은 ‘-고 하-’나 ‘하-’의 환원이 불가능한 것과 ‘인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쓰인 것이다. 즉 판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휘로 굳어진 것’ (안주호 1997:29)

8) 유창돈(1975:201)에서 문법화에는 조사화, 선어말어미화, 어말어미화, 접미사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안주호(1997:223)에서 ‘종결어미화’에 대해 의존적 요소가 문법소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공통사적인 구조가 형태론적인 구조로 바뀌어간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 최형용(2003:89)에서 어미와 조사의 결합이 하나의 어미로 발달한 것은 통시성의 측면에서 일종의 어미화로 다루고 있다.

그 외에 김태엽(1998), 김혜지(2016), 손옥현·김영주(2009), 구종남(2019) 등 논의에서는 ‘종결어미화’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 아닌 종결어미 기능이 없었던 것이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경우에 대해 ‘종결어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문법적 기준: 간접인용문에서 축약되었던 ‘-고 하-’나 ‘-(으)려 하-’에 축약되었던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다.

② 의미적 기준: ‘인용’의 기능이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다.

3. 상위절이 평서문인 경우

3.1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3.1.1 평서형 내포절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으므로 내포절과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는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와 ‘-더-’가 쓰인 경우로 나뉜다. 먼저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과 내포절에 모두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은 ‘-다고 하-’이다. ‘-고 하-’의 축약에 따라 이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인 ‘-답니다’, 하오체인 ‘-다오’, 하게체인 ‘-다네’, 해라체인 ‘-단다’, 해요체인 ‘-대요’, 해체인 ‘-대’가 있다. 단일어미화 여부와 무관하여 단순히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을 추출함으로써 사용 빈도를 통계하였을 경우 하오체인 ‘-다오’와 하게체인 ‘-다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더-’가 없는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답니다 | -답니다 | 4266 |
| 하오체 | -다오 | -다오 | 744 |
| 하게체 | -다네 | -다네 | 1443 |
| 해라체 | -단다 | -단다 | 3141 |
| 해요체 | -대요 | -대요 | 10142 |
| 해체 | -대 | — | 14687 |

[범례] 1. 단일어미화가 되어 별개의 어미로 쓰인 경우 ‘단일어미’란에 해당 어미를 표시한다.

2. 단어미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 ‘단일어미’란에 ‘—’로 표기한다.

우선 하오체 ‘-다오’와 하게체 ‘-다네’의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현대 한국어에 하오체와 하게체의 쓰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섭·채완(1999:355-357)에서 하게체는 근래에 그 쓰임이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여, 예전 같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 나이만 되면 친구 간에도 하게체가 쓰이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대학원생이나 조교 정도의 나이가 되어도 하게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오체에 대해 중세국어나 근세국어는 물론, 개화기까지만 해도 매우 활발히 쓰이던 경어법이었으나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하오체가 쓰이던 자리에는 후술할 해요체가 대신 자리 잡고, 하오체는 아랫사람이나 친

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경어법으로 그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승희(2007:293-295)에서 19세기 해체와 해오체의 확립은 그 이후 현대국어에서 하계체와 하오체가 쇠퇴하게 된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해라체가 사용될 만한 상황에 하오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으며 해오체가 대부분 하오체와 함께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필재(2014:65)에는 현대국어의 하오체는 음성언어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번역체에서 남성 화자에 의해 격식적인 상황 혹은 관계에서 상대를 낮추지 않는 정도의 등급으로 사용된다고 실증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표2>에 하오체와 하계체 어미 결합형이 비교적 낮은 사용 빈도로 나타난 것은 현대 한국어 하오체와 하계체의 쓰임이 줄어들고 있음으로 인한 것이라 귀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하오체와 하계체는 활발히 쓰이지 못한 것은 이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표2>와 같이 다른 어미 결합형에 비해 하오체와 하계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본고에서 살펴볼 다른 구성에 해당된 하오체와 하계체 어미 결합형의 경우에도 나타난다.⁹⁾

그리고 <표2>에 각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여부도 표기되어 있다.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인 경우 ‘단일어미’란에 해당 어미를 기재하였다. 단일어미화에 대해 남기심(1973), 이필영(1993), 허원욱(1995), 권재일(1998), 이창덕(1999), 이금희(2005)와 채숙희(2013)에서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이 단일어미화가 된다고 판단하는 데에 축약되었던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근거를 받아들여서 다음 (4-5)와 같이 추출한 예문을 보도록 한다.

(4) 가. 사장님께서서 {찾으신답니다,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린로즈21회]

나.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받는다고 하오}.

[성균관스캔들1회]

다.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네, 말한다고 하네}.

[진경환·우용순 외(1993), 고전문학 이야기 주머니, 도서출판 녹두]

라. 관동지방에는 눈이 내리고 {있단다, 있다고 한다}.

[수필공원94년 봄호, 한샘출판사]

마. 외상값 금방 {갚는대요, 갚는다고 해요}.

[육남매6회]

바. 아빠도 같이 해야 {좋대, 좋다고 해}.

[소문난 칠공주01-80회]

(5) 가. 저 손이 큰 {여자랍니다, *여자라고 합니다}.

[소울메이트 6회]

9) 각 어미 결합형의 구체적 양상은 해당 소절에서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것이다.

나.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거부했다오,*거부했다고 하오}.

[MBC 봉두완칼럼(1991)]

다. 나는 유월의 뉴욕을 {좋아한다네,*좋아한다고 하네}.

[정재운(1994), 영화즐기기, 한샘출판사]

라. 나 오늘 똑똑히 {보았다, *보았다고 한다}.

[우리교육 중등용 10월호, 1994]

마. 재는 {오줌싸개래요,*오줌싸개라고 해요}.

[표준국어대사전]

(4)에 쓰인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 ‘-대요’와 ‘-대’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므로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에 쓰인 ‘-답니다’ 등은 (4)에 쓰인 어미 결합형과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나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5)에 쓰인 ‘-답니다’ 등은 ‘인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5)에 쓰인 ‘-답니다’ 등은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아니라 단일 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인 것이다. 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 개의 사전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바가 가장 상세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어미의 해석을 아래와 같이 가져와 본다.¹⁰⁾

10) <연세한국어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기재된 해석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유사하여 해당 내용을 각주로 제시한다.

-답니다¹⁾

[종결어미]

- 1. 어떤 사실을 친근하게 베풀어 말함을 나타냄.
예: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무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 2. 어떤 사실을 객관화시켜 강조하거나 자랑함을 나타냄.
예: 우린 특별하답니다.
- 관련어: -는답니다/-ㄴ답니다/-랍니다

-다오¹⁾

[하오체의 종결어미]

- 1. 어떤 사실을 완곡하게 또는 친근하게 베풀어 말하는 뜻을 나타냄.
예: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없다오.
- 2. 어떤 사실을 가볍게 자랑하듯이 말함을 나타냄.
예: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오.

-다네¹⁾

[종결어미]

- 말하는 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볍게 주장함을 나타냄.
예: 사실은 요즘의 내 입장이 떳떳하지 못하다네.

-단다¹⁾

[종결어미]

- 1. 어떤 사실을 듣는 이에게 친근하게 말하여 줌을 나타냄.
예: 나는 고향을 가진 친구들이 제일 부럽단다.
- 2. 어떤 사실을 객관화시켜 강조하거나 자랑할 때 쓰임.

-답니다

[I]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더-’, ‘-으리-’ 뒤에 붙어))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사랑하는 따위의 뜻이 비칠 때가 있다.

¶ 저는 아무 건강하답니다.

내가 심은 채송화도 잘 피었답니다.

참고 어휘: -ㄴ 답니다, -답니다, -으랍니다

-다오

[I] 「어미」

((하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사랑하는 따위의 뜻이 비칠 때가 있다.

¶ 인삼은 몸에 좋다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께서는 내내 편찮으시다오.

참고 어휘: -ㄴ 다오, -는다오, -라오, -자오

-다네

[I]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친근감이나 감탄, 사랑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다.

예: 너 어렸을 땐 집안 이 구석 저 구석에 도자기들이 굴러다녔단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답니다’, ‘-단다’, ‘-대요’와 ‘-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오¹

[종결어미]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완곡하게 말하거나 감탄하여 나타내는 말. 하오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예: 우리에게도 저런 딸이 하나 있다오.

참고어: -는다오¹, -ㄴ 다오¹, -라오¹

-다네¹

[종결어미]

1.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화자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가볍게 설명하여 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하게체로 쓰인다.

예: 모든 진리가 다 그렇다네.

2.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해 가볍게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하게체로 쓰인다.

예: 오, 그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했다네.

참고어: -는다네¹, -ㄴ 다네¹, -라네¹

¶ 담배는 술보다 더 해롭다네.

이 사람, 그땐 나도 좀 섭섭했다네.

참고 어휘: -ㄴ다네, -는다네, -라네, -자네

-단다

[I]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주는 데 쓰는 종결 어미.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자랑하는 것 같은 뜻이 비칠 때가 있다.

¶ 나도 슬프단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단다.

참고 어휘: -ㄴ단다, -는단다, -란다, -잔다

-래요

[I]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더-’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요할 자리에 쓰여, 알고 있는 것을 일러바친다는 뜻이 포함된 종결 어미. 주로 어린이 말에 쓰인다.

¶ 재는 오줌싸개래요.

참고 어휘: -ㄴ대요, -대요, -으래요

사전 해석에 의하면 (5)에 쓰인 ‘-(으)랍니다’, ‘-다오’, ‘-다네’와 ‘-단다’는 대체적으로 ‘청자에게 일러 줌’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 외에 기존 연구 중 남기심(1973), 이필영(1993), 이금희(2005)도 별개의 어미가 된 이들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기심(1973:81-84)에서는 먼저 융합축약으로 보이는 세 가지, 즉 완형보문술부구성으로부터 도출된 것, 그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것과 두 가지로 모두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완형보문술부구성으로부터 도출된 축약형은 ‘인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참된 축약형’으로 일컫는데 그로부터 도출되지 못한 축약형은 ‘참된 축약형’과 모양만 같아 ‘유사축약형’이라 명명하였다. 또 유사축약형에 대해 종결형 ‘-다네’, ‘-단다’와 연결형 ‘-다고’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필영(1993:143-147)에서 (5)에 쓰인 ‘-단다’가 비환원적 융합형이라고 지칭하였다.¹¹⁾ 왜냐하면 이때 인용동사였던 ‘하-’가 탈락하면서 그것에 결합되었던 어미는 선행어미(본래 내포절 어미)와 결합하여 어미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상위절의 어미 역할을 할 수 없

11) 이필영(1993:132-150)에서 ‘-단다’를 포함하여 ‘-다나’, ‘-다면서’, ‘-다니까’, ‘-다니’, ‘-다지’와 같은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비환원적 융합형의 종결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 됨으로 인해 서법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다’는 ‘사태에 대해 기정 사실로 화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밝혔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상대경어법의 어미로는 ‘-다네’, ‘-다오’와 ‘-답니다’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또 이금희(2005:106-118)에서 ‘-답니다’, ‘-단다’, ‘-다오’와 ‘-다네’에 대해 각각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우선 ‘-답니다’와 ‘-단다’는 모두 청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친근하게 전해줄 때 쓰는 융합형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 앞서 찾아본 사전의 해석과 일치하다. 그리고 융합형 ‘-단다’의 구문에서 원발화자와 그 말을 듣는 청자를 설정할 수 없는 점, ‘-난/란/잔다’가 없는 점, ‘-단다’는 선어말어미 ‘-더-’, ‘-겠-’과 결합할 수 없는 점을 밝힘으로써 간접인용문에 쓰인 ‘-단다’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어서 ‘-다오’는 인용의 표현으로 쓰이지 않고 화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표현으로만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오’는 하오체가 아닌 해오체와 함께 어울려 쓰이므로 상대경어법의 등급이 ‘해오체’의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다네’에 대해 이금희(2005:115-118)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다네’는 ‘-다하네’가 축약된 것과 축약된 후에 융합의 과정을 겪은 것이 있다고 하였으며 후자에 해당된 ‘-다네’는 자신이 알고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이야기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다룬 ‘-답니다’ 등 어미 결합형이 별개의 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해체 어미 결합형인 ‘-대’가 쓰인 예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양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¹²⁾

‘인용’으로 쓰이는 ‘-대’는 ‘-답니다’ 등 어미 결합형과 같이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어야 하나 일부 추출된 예문 중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먼저 이러한 예문과 ‘-고 하-’가 환원된 예문을 다음 (6)과 (6’)로 제시한다.

(6) 가. 한 번만 더 구경하고 {싶대, ?싶다고 해}.

[육남매7회]

나. 스티브가 너를 좋아하고 {있대, ?있다고 해}.

[이하나(1987), 캠퍼스의 비망록2, 센세기코믹스]

다. 수술하면 금방 {괜찮대, ?괜찮다고 해}.

[궁 14회]

(6)에서 ‘한 번만 더 구경하고 싶다’, ‘좋아하고 있다’와 ‘수술하면 금방 괜찮다’와 같은 피인용문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대’는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이므로 ‘-고 하-’가 환원되어도 구문의 의미가 환원되기 이전과 동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 하-’가 환원

12) 해체 어미 결합형 ‘-대’는 의문형으로 쓰인 경우에만 단일어미화가 되고 평서형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인용’만 기능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 대해 상위절이 의문문인 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된 부분을 보면 구문은 ‘인용’ 외에 ‘명령’의 의미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 하-’가 환원된 (6가)는 ‘한 번만 구경하고 싶다’는 피인용문을, (6나)는 ‘스티브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발화를, (6다)는 ‘수술하면 금방 괜찮다’는 발화를 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한 ‘-다고 해’의 대화(7)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보인다.

(7) 가. 미정: 상견례?

다현: 네. 재인씨네 집에서 한번 뵈면 하는데요.

진만: 무슨 상견례를 벌써 해? 내년에 날짜 잡기 전에 {한번 뵈는다고 해, 한번 뵈는다고 해요}.

[1%의 어떤 것 18회]

나. 신자: 빨리 번호 불러!

난희: 번호 부르래. 어떻게?

형태: {번호로 못 연다고 해, 번호로 못 연다고 해요}!

[9회말 2아웃 7회]

다. 여학생: 저 이번에 빵구 나면 졸업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교수님: 부모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해요}.

[가문의 영광 12회]

라. 강석: 끝까지 견디면 견뎌지. 도망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혜주: 오빠가 설득해 봐. 오빠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해, 안 되겠다고 해요}.

강석: 그 말도 오빠 못해.

[가문의 영광 35회]

대화(7)을 통해 ‘-다고 해’ 구문에 (7가)의 경우 ‘날짜 잡기 전에 한번 뵈는다’는 발화를, (7나)의 경우 ‘번호로 못 연다’는 발화를, (7다)의 경우 ‘죄송하다’는 발화를, (7라)의 경우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발화를 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7)에서 해체로 실현된 ‘-다고 해’의 예문을 해요체로 변경하면 ‘명령’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처럼 ‘-대’의 형태로 쓰일 경우에 ‘인용’만을 나타내는데 해체 ‘-다고 해’로 ‘-고 하-’가 환원되면 ‘명령’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 이유는 동사 ‘하다’가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해체로 활용될 경우 ‘명령’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¹³⁾ ‘공부하다’를 예로 들어 ‘철수가 공부해’와 ‘철수, 공부해’라는 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에 쓰인 ‘하다’는 ‘공부하다’는 행위를 ‘진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후자에 쓰인 ‘하다’는 ‘공부하다’는 행위를 ‘명령’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해라체 어미 결합형 ‘-대’는 ‘-고 하-’가 환원된 ‘-다고 해’의 구성으로 쓰일 경우에 ‘하다’가 해체로 활용되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다고 해’

13) ‘-대’는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된 경우에는 오로지 ‘인용’의 의미만 드러낸다.

¶ 언니가 같이 {간뎠어, 간다고 했어}. [지붕뚫고하이킥44회]

선주에게 전화를 {했뎠어, 했다고 했어}. [서영은(1993), 나의 미끄럼틀 그리고 오후, 동화서적]

의 구문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즉 (6’)과 (7)이 ‘명령’을 나타낸 것은 동사 ‘하다’의 활용으로 인한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더-’가 쓰인 경우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 내포절이 있는 데에 반해 ‘-더-’가 쓰인 평서형 내포절도 있다. 즉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인데 해당 구성은 ‘-더라고 하-’이다. 이는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더랍니다’, 하오체는 ‘-더라오’, 하계체는 ‘-더라네’, 해라체는 ‘-더란다’, 해요체는 ‘-더래요’와 해체는 ‘-더래’이다. 앞서 언급한 하오체와 하계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낮다는 양상은 ‘-더라고 하-’ 구성의 어미 결합형에도 나타났다. 그리고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다고 하-’ 구성에 비해 ‘-더라고 하-’ 구성의 모든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고 하-’에 해당된 대부분 어미 결합형이 단일어미화를 겪어 별개의 어미로 쓰이기도 하는 데에 반해 ‘-더라고 하-’ 구성의 어미 결합형들은 ‘인용’으로만 쓰인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더-’가 있는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랍니다 | — | 3 |
| 하오체 | -더라오 | — | 0 |
| 하계체 | -더라네 | — | 10 |
| 해라체 | -더란다 | — | 247 |
| 해요체 | -더래요 | — | 158 |
| 해체 | -더래 | — | 168 |

우선 <표3>에 하오체와 하계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다는 양상을 현대 한국어 하오체와 하계체의 쓰임이 줄어들음으로 인한 것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더라고 하-’ 구문은 비문이 아니기에 여기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들은 문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낮은 사용 빈도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8)로 검증할 수 있다.

(8) 가. 국제전화가 왔더랍니다.

[에덴의 동쪽33회]

나. 윤영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네.

[그들이 사는 세상05회]

다.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자기 딸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란다.

[임계순(1994), 한국인의 짝사랑, 김영사]

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송하춘(1994), 하백의 딸들, 문학과지성사]

마. 얼마 전에도 친정에 들렀더라.

[이혜경(2002), 꽃그늘 아래, 창작과비평사]

(8)에서 ‘-더랍니다’를 비롯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내포절에 쓰인 ‘-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인용 화자가 피인용문에 쓰인 ‘-더-’를 생략한 뒤 피인용문을 인용하여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가. 피인용문: 어제 비가 왔더라.

간접인용: 어제 비가 왔더랍니다.

어제 비가 왔답니다.

나. 피인용문: 그 집 떡볶이가 맛있더라고요.

간접인용: 그 집 떡볶이가 맛있더랍니다.

그 집 떡볶이가 맛있답니다.

(9)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간접인용문은 모두 정문이고 피인용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법·의미적 오류가 없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더-’를 생략하고 만든 간접인용문은 ‘-더-’가 의미하는 피인용문 화자의 ‘경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팽이림(2023)에는 내포절에 ‘-더-’가 쓰인 간접인용문은 인용동사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 선어말어미 ‘-더-’와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 ‘-다고 하-’에 비해 ‘-더라고 하-’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훨씬 낮고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의 수도 훨씬 적다는 문법적 차이와 사용 양상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또 두 가지 간접인용문이 쓰인 대화를 비교함으로써 인용화자가 피인용문에 해당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더라고 하-’ 대신 ‘-다고 하-’를 사용하여도 ‘-더-’가 의미하는 ‘경험’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답니다’를 비롯한 어미 결합형보다 ‘-더랍니다’ 등의 어미 결합형들의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표3>과 종합해 보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여부와 정비례가 되는 체계적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어미 결합형이 단일어미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¹⁴⁾

3.1.2 의문형 내포절

14) 이는 다른 구성의 어미 결합형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해당 소절에서 이를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형과 의문형에만 쓰일 수 있다고 밝혀진 바에 의해 간접인용문의 의문형 내포절도 역시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본 소절에서도 먼저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인 구성은 ‘-냐고 하-’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납니다’, 하오체는 ‘-냐오’, 하게체는 ‘-냐네’, 해라체는 ‘-난다’, 해요체는 ‘-내요’, 해체는 ‘-내’이다. 이러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살펴보고 사용 빈도를 통계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더-’가 없는 의문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납니다 | — | 1 |
| 하오체 | -냐오 | — | 0 |
| 하게체 | -냐네 | — | 0 |
| 해라체 | -난다 | — | 5 |
| 해요체 | -내요 | — | 3 |
| 해체 | -내 | — | 12 |

먼저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개의 어미 결합형 중 하오체 ‘-냐오’와 하게체 ‘-냐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 이는 앞 소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의 하오체와 하게체의 쓰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4>의 어미 결합형은 3.1.1에서 살펴본 ‘-다고 하-’와 ‘-더라고 하-’ 구성의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보다 훨씬 낮으며 단일어미화된 어미 결합형도 없다.

‘-다고 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고 하-’가 축약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고 하-’가 보유된 기본형 예문의 사용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본형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 축약형의 사용 빈도도 높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다고 하-’ 구성의 어미 결합형은 모두 높은 사용 빈도로 나타났으므로 ‘-다고 하-’ 구성의 기본형의 사용 빈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냐고 하-’ 구성의 어미 결합형이 낮은 사용 빈도로 확인됨에 의해 해당 기본형의 사용 빈도도 ‘-다고 하-’보다 낮을 것이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다고 하-’와 ‘-냐고 하-’ 구성의 기본형 예문을 추출하였는데 ‘-다고 하-’의 예문은 208,475개, ‘-냐고 하-’의 예문은 8,081개이다.¹⁵⁾ 이러한 결과는 ‘-고 하-’가 축약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고 하-’가 축약되지 않은 기본형 예문의 사용 빈도와 정비례가 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냐고 하-’에 해당된

15) 통계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이고 ‘하다’ 이외의 인용동사도 포함시켜 예문을 집계하였다.

어미 결합형이 ‘-다고 하-’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보다 사용 빈도가 낮다는 것은 기본형의 사용 빈도가 낮아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인 구성은 ‘-더냐고 하-’이다. ‘-더냐고 하-’ 구성의 ‘-고 하-’가 축약되면 합쇼체는 ‘-더납니다’, 하오체는 ‘-더냐오’, 하게체는 ‘-더냐네’, 해라체는 ‘-더난다’, 해요체는 ‘-더내요’, 해체는 ‘-더내’이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더-’가 있는 의문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납니다 | — | 0 |
| 하오체 | -더냐오 | — | 0 |
| 하게체 | -더냐네 | — | 0 |
| 해라체 | -더난다 | — | 0 |
| 해요체 | -더내요 | — | 0 |
| 해체 | -더내 | — | 0 |

‘-고 하-’가 축약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추출하지 못하였으나 ‘-고 하-’가 보유된 기본형인 ‘-더냐고 하-’의 예문을 28개 추출하였다. 그 중에 몇 개의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 (10)과 같다.

(10) 가. 담화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이더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현희(1991),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2, 고려원]

나.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더냐고 이야기하였다.

[김재원(1991), 경복궁 야화, 탐구당]

다. 현진이 윤남송 어머니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고 물었다.

[한승원(1986), 폭군과 강아지, 문학사상사]

라. 떠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시인은 큰소리쳤지만...

[한겨레신문사(1997/12/25), 한겨레21]

(10)을 통해 이들의 피인용문을 가정해 본다면 (10가)는 ‘담화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이더냐?’, (10나)는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더냐?’, (10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10라)는 ‘떠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와 같을 것이다. 이때 ‘-더-’는 피인용문 청자의 ‘경험’에 대해 묻는 것이므로 (10)의 내포절에 쓰인 ‘-더-’는 피인용문에서 옮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에 의해 (10)과 같은 예문은 수량이 적으나 비문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에 쓰인 ‘-고 하-’가 축약되면 <표6>에 제시된 어미 결합형이 실제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0') 가. 담화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이더납니다.

나.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더냐네.

다. 현진이 윤남송 어머니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더란다.

라.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내요.

(10)과 (10')을 보면 ‘-고 하-’의 축약과 <표5>의 어미 결합형의 사용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6>의 어미 결합형이 쓰인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문법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본형의 사용 빈도가 낮아서이다. 이에 앞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고 하-’가 축약되지 않은 기본형의 사용 빈도와 정비례가 된다고 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

3.1.3 명령형 내포절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형과 의문형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내포절이 명령형인 구성은 ‘-(으)라고 하-’뿐이다. 그리고 이의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으)랍니다’, 하오체는 ‘-(으)라오’, 하게체는 ‘-(으)라네’, 해라체는 ‘-란다’, 해요체는 ‘-래요’, 해체는 ‘-래’이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추출해 봄으로써 하오체와 하게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역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미 결합형과 사용 빈도만 정리하여 다음 <표6>로 나타낸다.

<표6> 명령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랍니다 | — | 12 |
| 하오체 | -(으)라오 | — | 12 |
| 하게체 | -(으)라네 | — | 100 |
| 해라체 | -(으)란다 | — | 112 |
| 해요체 | -(으)래요 | — | 629 |
| 해체 | -(으)래 | — | 745 |

다음 예문(11)은 이들의 예문인데 ‘-래요’와 ‘-래’가 비교적 높은 사용 빈도로 집계되었으나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다.

(11) 가. {들어오시랍니다,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린로즈21회]

나. 그만 {멈추라오, 멈추라고 하오}!

[영화 의형제]

다.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네, 도와달라고 하네}.

[트리플04회]

라. 이젠 3억 5천을 {내놓으란다, 내놓으라고 한다}.

[영화 잔혹한 출근]

마. {앉으래요, 앉으라고 해요}.

[드라마여행98/06/14]

바. 같이 {오래, 오라고 해}.

[육남매8회]

<표6>과 (11)을 종합하여 <표6>의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더라도 ‘인용’만 기능한다.

3.1.4 청유형 내포절

선어말어미 ‘-더-’는 청유형에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청유형인 구성은 ‘-자고 하-’뿐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잡니다’, 하오체는 ‘-자오’, 하게체는 ‘-자네’, 해라체는 ‘-잔다’, 해요체는 ‘-재요’, 해체는 ‘-재’이다. 먼저 이를 사용 빈도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유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잡니다 | — | 15 |
| 하오체 | -자오 | — | 2 |
| 하게체 | -자네 | — | 16 |
| 해라체 | -잔다 | — | 41 |
| 해요체 | -재요 | — | 17 |
| 해체 | -재 | — | 30 |

<표7>의 어미 결합형 중에 하오체와 하게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다음 예문(12)를 통해 해당 어미 결합형은 모두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 가. 끝까지 {해보잡니다, 해보자고 합니다}.

[그린로즈18회]

나.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자오, 하자고 하오}.

[설창수(1986), 설창수 전집-5, 시문학사]

다. 장경위가 줌 {보자네, 보자고 하네}.

[고스트08회]

라. 재영이가 셋이서 점심 {먹잔다, 먹자고 한다}.

[1%의 어떤 것06회]

마. 집사람이 다시 {시작하재요, 시작하고 해요}.

[노란 손수건90회]

바. 가서 술 {먹재, 먹자고 해}.

[일상대화]

3.1.5 연결형 ‘-(으)려 하-’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결형 ‘-(으)려 하-’는 간접인용문에 해당되지 않으나 간접인용문과 같이 축약에 의해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장 내에서 절을 별도로 설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본 소절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으로는 합쇼체인 ‘-(으)립니다’, 하오체인 ‘-(으)려오’, 하게체인 ‘-(으)려네’, 해라체인 ‘-(으)려단’이다.¹⁶⁾¹⁷⁾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통해 이들의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다음 <표8>과 같이 확인하고 정리한

16) 현대 한국어에 행위주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중 ‘-(으)려 하-’ 구성 외에 ‘-(으)려고 하-’ 구성도 있다. 그리고 일부 상황에 두 구성은 상호적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으)립니다’ 등 어미 결합형들은 ‘-(으)려 하-’ 구성이 아닌 ‘-(으)려고 하-’ 구성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의 해답은 ‘-(으)려 하-’와 ‘-(으)려고 하-’의 관계 및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양지현(2013)에서 ‘-(으)려 하-’는 중세, ‘-(으)려고 하-’는 17세기, ‘-(으)려고 하-’는 19세기 말부터 쓰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으)려고(요)’는 ‘-(으)려 하-’에서 ‘하-’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고 ‘-(으)려고’의 후행절이 ‘하-’가 대체되어 ‘-(으)려고 하-’가 구성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한편, 19세기 중반부터 ‘-(으)려고’는 점차 하나의 어미로 쓰이기 시작하였고 ‘-(으)려고’의 ‘-고’가 입말에서 된소리로 발음된 것은 이는 하나의 어미임을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표명한 논의는 손세모들(1997)이 있다. 손세모들(1997)에서 ‘-(으)려고 하-’가 ‘-(으)려고 하-’로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으)려고 하-’의 쓰임은 접속어미 ‘-(으)려고’보다 먼저 쓰이거나 ‘-(으)려고’와 마찬가지로 활발히 쓰였어야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아서 ‘-(으)려고’가 ‘-(으)려고 하-’보다 먼저 나타난 것이다.

두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으)려고 하-’에서 ‘-고’의 축약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에 의하면 ‘-(으)립니다’ 등 어미 결합형은 ‘-(으)려고 하-’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도 잇따라 확인할 수 있다.

17)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 중에 ‘-(으)려 하-’가 아닌 ‘-(으)르라고 하-’에서 온 ‘-(으)르라고’가 쓰인 예문도 있다.

¶ 두 그릇 먹을라고 그런 거거든! [파라다이스 목장31회]

노래 들을라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날들19회]

나뉘 먹을라고 날 불렀어? [화려한 시절41-50회]

다.

<표8> 연결형 내포절 + ‘-더-’가 없는 평서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립니다 | — | 15 |
| 하오체 | -(으)려오 | — | 2 |
| 하게체 | -(으)려네 | — | 16 |
| 해라체 | -(으)런다 | — | 41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표8>에서 ‘-(으)려 하-’ 구성의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해요체 ‘-(으)려 해요’와 해체 ‘-(으)려 해’에서 음운론적 제약이 적용되어 ‘하-’가 축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으)려 하-’에 종결어미 ‘-여(요)’와 결합된 경우에는 ‘하-’의 축약이 불가능하다. 우선 ‘-(으)려 하-’ 구성은 간접인용문에서 인용동하 ‘하-’가 축약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의 축약은 의미적 변동과 문법적 오류를 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으)려 해요’와 ‘-(으)려 해’에서 ‘하-’가 축약되지 못한 것은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의 형성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양지현(2013)에서 ‘-(으)려 하(다)’는 중세에서부터 쓰였으며 선행용언에 [+내면성]을 부여하는 ‘-리-’와 ‘-어 흐(다)’가 결합한 것이라 하였다.¹⁸⁾ 다만, ‘-리-’의 경우는 ‘브/브’에 의해 ‘기쁘다’와 같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기 보다는 뒤의 ‘-려 흐(다)’에 녹아 ‘-(으)려 흐(다)’ 구성을 이루는 형태로 굳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으)려 하-’와 종결어미 ‘-여(요)’가 결합된 것은 ‘-(으)리어 하-’와 ‘-여(요)’의 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하-’가 축약되면 ‘-리어’와 ‘-여(요)’는 모음조화를 겪고 ‘-레(요)’가 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고유어 어휘 중 비어두음절(非語頭音節)이 ‘레’로 발음된 것이 없다. 즉 어미 결합형 ‘-레(요)’가 있으나 해당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으)레(요)’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쓰임이나 해당 발음이 쓰이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에 의해 ‘-(으)려 하-’ 구성은 해요체와 해체로 쓰일 경우 ‘하-’가 축약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으)려 하-’ 구성에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하-’가 축약되기 이전의 구문에 주어는 1인칭과 3인칭이 모두 쓰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하-’가 축약된 구문에는 1인칭 주어가 쓰인 구문만 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가 축약된 구문의 1인칭 주

18) 양지현(2013:55)에서 제시한 중세국어에 쓰인 ‘-(으)려 흐(다)’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시름 모습 업스샤터 이 지브 자려 흐시니 하눌히 므스물 뉘우시니 <龍歌102>
 諸將之功에 獨眼이 노푼시니 님그미 나가려 흐샤 <龍歌49>
 나라해 그득흔 夜叉羅刹이 와 사르물 알효려 흐다가 <釋詳21:4b>

어를 3인칭으로 교체하면 구문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먼저 ‘하-’가 축약되지 않은 기본형에 해당된 예문을 다음 (13)과 같이 가져와 본다.

(13) 가.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려 합니다.

[한겨레신문(1999)칼럼]

나. 이제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께 맡기고 떠나려 합니다.

[밤이면 밤마다17]

다. 저는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포도밭 그 사나이5회]

라. 황규택이 양심선언을 한다고 모처로 떠나려 합니다.

[에덴의 동쪽51회]

마. 다만 사진 속 그녀가 지금 절 떠나려 합니다.

[열혈장사군01회]

바. 그런 저를 형님들이 죽이려 합니다.

[주몽08회]

(13)에서 ‘하-’가 축약되지 않은 기본형 구문에 1인칭과 3인칭이 자연스럽게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가 축약된 다음 예문(14)에 쓰인 1인칭 주어를 3인칭으로 교체하여 제시한다.

(14) 가. {나는, *그는} 사랑의 나무를 당신께 보여 드리렵니다.

[김경민(1993),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림]

나. {나, *그}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이광수(1994), 유정/꿈, 마당미디어]

다. {나, *그}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학교2회]

(14)에서 1인칭 주어를 3인칭 주어로 교체하면 비문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으)려 하-’ 구성에서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으)렵니다’ 등 어미 결합형이 쓰인 구문에 1인칭 주어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해 ‘하-’가 축약되지 않은 기본형 구문은 3인칭 주어로 ‘타인의 의도’를, 1인칭 주어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데에 비해 ‘하-’가 축약된 구문은 1인칭 주어로 ‘자신의 의도’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일부 어미 결합형 단일어미화가 되어 별개의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의 축약으로 인해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고 ‘자신의 의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기존 의미 기능 및 사용 범위보다 축소된 것이므로 단일어미화로 간주하기가 적합해 보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기능과 사용 범위의 축소는 단일어미화의 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3.2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 상위절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더-’가 쓰인 평서형 상위절인 경우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3.2.1 평서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은 ‘-다고 하더-’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다더랍니다’, 하계체는 ‘-다더라네’, 해라체는 ‘-다더라’, 해요체 ‘-다데요’, 해체는 ‘-다데’이다.

이때 하오체 어미 결합형은 ‘-다더라오’가 아닌 ‘-답디다’이다. ‘-다고 하더-’에 결합된 하오체 어미는 ‘-오’가 아닌 ‘-디다’기 때문이다.¹⁹⁾ 이 외에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은 ‘-다고 하더래(요)’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형성되는 ‘-다더래요’와 ‘-다더래’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우선 종결어미 ‘-더라’는 해라체 어미에 해당되고 ‘-더래’는 ‘-더라’와 ‘-아/아/여’의 결합이 아닌 ‘-더라고 해’가 줄어든 것이다.²⁰⁾ 이에 의해 ‘-더래요’는 ‘-더라고 해요’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더래요’는 ‘-다고 하더라고 해요’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결어미 ‘-더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 ‘-데’는 해요체와 해체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더라’를 대체하여 ‘-다고 하-’와 결합하여 ‘-다고 하데(요)’의 구성을 형성한다.²¹⁾ 그리고 ‘-다고 하데(요)’는 ‘-고 하-’가 축약됨에 따라 해요체

19)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하오체 종결어미 ‘-디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디다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을 전달하여 알립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보리가 잘 자라디다.

키가 크기는 클디다.

「참고어휘」 -습디다

20) <표준국어대사전>에 종결어미 ‘-더래’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더래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더라고 해’가 줄어든 말.

¶ 진짜로 개가 친구들과 싸우더래.

21) <표준국어대사전>에 종결어미 ‘-데’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데³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다테요’와 해체 ‘-다테’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다고 하더-’의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은 ‘-다테요’와 ‘-다테’인 것이다.

이러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에는 하오체 ‘-답디다’, 해요체 ‘-다테요’와 해체 ‘-다테’만 예문이 추출되었고 ‘-답디다’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있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다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답디다 | — | 182 |
| 하계체 | -다더라네 | — | 0 |
| 해라체 | -다더라 | — | 0 |
| 해요체 | -다테요 | — | 6 |
| 해체 | -다테 | — | 33 |

앞서 현대 하오체의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표9>의 어미 결합형 중 하오체 ‘-답디다’의 사용 빈도는 오히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답디다’가 쓰인 예문을 몇 개 가져오면 다음 (15)와 같다.

(15) 가. 그 기자가 오늘 인터뷰를 하러 {온답디다, 온다고 합디다}.

[채희윤(1993), 한평 구휼의 안식, 민음사]

나. 구서방은 회사 들렀다 {온답디다, 온다고 합디다}.

[소문난 칠공주01-80회]

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답디다, 좋다고 합디다}.

[수상한 삼형제11회]

라. 다른 건 몰라도 소아마비는 부모 {탓이랍디다, 탓이라고 합디다}.

[신경숙(1990), 겨울 우화, 고려원]

(15)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므로 ‘-답디다’는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15가-나)를 통해 피인용문 화자는 ‘그 기자’와 ‘구서방’인 것이며 각각 ‘인터뷰를 하러 왔다.’와 ‘회사 들렀다 간다.’를 비롯한 발화를 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5다-라)에는 피인용문 화자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 피인용문 화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의 내포절을 통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와 ‘소아마비는 부모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그 친구는 아들만 돌이데.

고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데.

탓이다.’를 비롯한 피인용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맥상 구체적 피인용문 화자가 보이지 않으나 화자가 누군가에게 피인용문과 같은 발화를 들었거나 청자와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발화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15다-라)도 간접인용문에 해당되고 이에 쓰인 ‘-답디다’도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다른 하오체 어미 결합형이 모두 낮은 사용 빈도로 나타난 것에 반해 ‘-답디다’는 <표9>의 어미 결합형 중에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보다 많은 ‘-답디다’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이는 주로 해체나 해요체와 함께 쓰이고 있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몇 개의 대화를 가져오면 다음 (16)과 같다.

(16) 가. A: 떡칠이네는 거기로 바로 온대?

B: 네. 구서방은 회사 들렀다 온답디다. 당신 성질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비위 좀 맞춰요.

[소문난 칠공주01-80회]

나. A: 인물은요? 심하게 이빠야 되는데.

B: 인물 보게?

A: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답디다. 생긴대로 논다는 말도 있잖아요.

[수상한 삼형제11회]

다. A: 개가 어디 물 건너갔어? 단속 잘하라고 했잖아.

B: 결혼 물 건너갔다구요. 그쪽에서 그만두자고 했답디다.

A: 이게 무슨 병아리 계란 후라이 해먹는 소리야?

[소문난 칠공주01-80회]

라. A: 두구두구 먹으면 되지, 나이들면 그런 거 자주 먹어야 한답디다.

B: 혼자 먹자고 몇 시간씩 음식 하려면 심란해.

A: 혼자기 때문에 더 먹는 거랑 신경 써야지.

[보고 또 보고221회]

이러한 양상에 대해 이상복(1984:22)과 이익섭·채완(1999:357)에서 기본적으로 상대경어법 중 하오체는 들을이를 높여 말하기는 하되, 아주 높여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으로 높여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현대에 오면서 하오체가 쓰이던 자리에는 후술할 해요체가 대신 자리 잡고, 하오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경어법으로 범위가 좁혀졌다고 해석하였다. 또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연구로는 서정수(1984), 이익섭·임홍빈(1988), 이승희(2007)와 유필재(2014)가 있다.

이 중에 이승희(2007:260-294)에서 19세기에 해요체와 하오체의 사용 범위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해요체와 하오체가 함께 쓰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나이나 현재의 지위와 같은 더 다양한 변수들이 대화참여자들의 상하 격차를 줄이는 적극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필재(2014)에서는 해요체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20세기 초의 하오체는 현재의 해요체 정도의 등급으로 하락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오체는 주로 번역체에서 남성 화자에 의해 격식적인 상황 혹은 관계에서 상대를 낮추지 않는 정도의 등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해 해체나 해요체와 함께 쓰인 ‘-답디다’는 상대경어법 등급이 성립 시에 해당된 기본적 하오체와 형태가 같으나 기능에 있어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5-16)에 ‘-답디다’는 해체나 해요체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이의 등급을 적어도 해요체와 근접하거나 같은 등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오체 어미 결합형 ‘-답디다’는 비교적 높은 빈도로 쓰이고 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이고 내포절도 ‘-더-’가 쓰인 평서형인 구성은 ‘-더라고 하더-’이다. 이는 ‘-고 하-’의 축약에 의해 합쇼체는 ‘-더라더랍니다’, 하오체는 ‘-더라더라오’, 하게체 ‘-더라더라네’, 해라체는 ‘-더라더라’, 해요체는 ‘-더라테요’와 해체는 ‘-더라테’가 된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10>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있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라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더라더라오 | — | 0 |
| 하게체 | -더라더라네 | — | 0 |
| 해라체 | -더라더라 | — | 0 |
| 해요체 | -더라테요 | — | 0 |
| 해체 | -더라테 | — | 0 |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고 하-’의 축약에 의해 형성된 어미 결합형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간접인용문에 선어말어미 ‘-더-’가 두 번 쓰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내포절에 쓰인 ‘-더-’는 피인용문에 쓰인 ‘-더-’가 옮겨진 것이며 피인용문 화자의 ‘경험’이나 ‘회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법적 오용이 아니다. 그리고 상위절 인용동사에 결합된 ‘-더-’는 피인용문을 인용하는 인용 화자의 ‘경험’이나 ‘회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더라고 하더-’ 구성에 ‘-더-’가 두 번으로 쓰인 것은 문법적으로는 오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예문도 추출하지 못한 이유는 ‘-더-’가 두 번으로 쓰인 ‘-더라고 하더-’ 구성의 예문 자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서가 아닌가 추정된다. 왜냐하면 간

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는 전제는 ‘-고 하-’가 축약되기 이전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의 예문이 적으면 ‘-고 하-’가 축약되어 활용될 가능성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여 말뭉치에서 ‘-고 하-’가 축약되지 않은 ‘-더라고 하더-’ 구성의 예문을 6개만 추출하였다. 몇 개를 가져오면 다음 (17)과 같다.

(17) 가. 높이 담을 싸 올리고 있더라고 하더군요.

[한승원(1986), 폭군과 강아지, 문학사상사]

나. 근석하고 나가더라고 하던데.

[KBS2, 솔약국집 아들들, 37회]

다. 연락편지를 전하러 가더냐고 묻더라고.

[이주홍(1980), 아름다운 고향, 창작과 미평사]

(17)과 같은 예문의 수가 극히 적으나 통사·문법적 구조는 ‘-더-’가 쓰이지 않은 간접인용문과 같으므로 오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라고 하더-’ 구성의 어미 결합형이 실제로 쓰이지 않은 양상이 자연스레 설명이 된다.

3.2.2 의문형 내포절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형과 의문형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의문형 내포절에도 역시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더-’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양상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두 구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상위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인 구성은 ‘-냐고 하더-’이고 동일한 상위절에 ‘-더-’가 쓰인 내포절인 경우에 해당된 구성은 ‘-더냐고 하더-’이다. 두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다음 <표11>로 나타내어 본다.

<표11> ‘-냐고 하더-’와 ‘-더냐고 하더-’ 구성의 어미 결합형

| 상대경어법 | 어미 결합형 | | 단일어미 | 사용 빈도 |
|-------|---------|---------|------|-------|
| | ‘-더-’ 無 | ‘-더-’ 有 | | |
| 합쇼체 | -냐더랍니다 | -더냐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냐더라오 | -더냐더랍니다 | — | 0 |
| 하개체 | -냐더라네 | -더냐더라네 | — | 0 |
| 해라체 | -냐더라 | -더냐더라 | — | 3/0 |
| 해요체 | -냐데요 | -더냐데요 | — | 0 |
| 해체 | -냐데 | -더냐데 | — | 0 |

<표11>에서 제시된 두 부류의 어미 결합형은 ‘-냐더라’ 외에 모두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3.1.2에서 밝혔듯이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고 하-’가 축약되지 않은 기본형의 사용 빈도와 정비례가 된다. 여기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표11> 어미 결합형의 기

본형인 ‘-냐고 하더-’와 ‘-더냐고 하더-’ 구성의 예문을 검색해 보았는데 추출된 예문의 수는 ‘-냐고 하더-’ 76개, ‘-더냐고 하더-’ 0개이다.

또한 ‘-냐고 하더-’의 76개 예문 중에 인용동사가 ‘하-’인 예문은 24개이고 ‘묻-’인 예문은 53개이다.²²⁾ 이필영(1993:116-117)에서 ‘-고 하-’가 축약될 수 있는 조건은 구문이 간접인용문이고 인용동사는 ‘하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하면 인용동사가 ‘하-’인 24개의 예문에서만 ‘-고 하-’가 축약될 수 있는 것이다. 24개 예문 중 몇 개를 가져와 ‘-고 하-’를 축약시키면 다음 (18)과 같다.

(18) 가. 장 선배가 오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않았느냐더군요}.

[이신현(1990), 공존의 그늘(5), 도서출판 다나]

나. 우리 식구 집에 들어와 {어떻게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냐더라고요}.

[열아홉순정80-167회]

다. 사람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하더라, 하는 거냐더라}.

[상도20회]

라. 자기 좀 봐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 없겠냐더라고}.

[영화 걸프렌즈]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18)의 ‘-고 하-’를 축약시켜도 문법적 오류나 의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고 하-’의 축약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예문의 수가 극히 적음으로 인해 해당 어미 결합형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도 매우 적다. 이로 인해 ‘-냐고 하더-’ 구성의 어미 결합형은 아직까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상위절과 내포절에 모두 ‘-더-’가 쓰인 ‘-더냐고 하더-’ 구성의 기본형 예문조차 없는 바람에 해당 어미결합체가 활발히 쓰일 가능성 또한 없는 것이다.

3.2.3 명령형 내포절

상위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명령형인 구성은 ‘-(으)라고 하더-’이다. 이는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으)라더랍니다’, 하오체는 ‘-(으)랍니다’, 하게체는 ‘-(으)라더라네’, 해라체는 ‘-(으)라더라’, 해요체는 ‘-(으)라데요’, 해체는 ‘-(으)라데’이다.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검색한 결과로는 하오체 ‘-(으)랍니다’, 해라체 ‘-(으)라더라’와 해체 ‘-(으)라데’의 예문만 추출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22) 인용동사가 ‘묻-’인 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결혼을 했었느냐고 묻더라. [이승우(2000), 식물들의 사생활, 문학동네]

왜 그랬냐고 물으시더라. [불꽃놀이08회]

테리고 와도 되겠느냐고 묻더군요. [신은경(1992), 9시 뉴스를 기다리며, 김영사]

그러더니 아줌마 안 오냐고 묻더라고. [소문난 칠공주01-80회]

<표12> 명령형 내포절 + ‘-더-’가 있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라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으)랍디다 | — | 7 |
| 하계체 | -(으)라더라네 | — | 0 |
| 해라체 | -(으)라더라 | — | 29 |
| 해요체 | -(으)라데요 | — | 0 |
| 해체 | -(으)라테 | — | 6 |

이어서 추출된 ‘-(으)랍디다’, ‘-(으)라더라’와 ‘-(으)라테’의 예문을 다음 (19)와 같이 가져와 본다.

(19) 가. 웬 부인이 이 택이 동생집이라면서 {배달해주랍디다, 배달해 주라고 합디다}.

[김원우(1993), 별거벗은 마음, 술출판사]

나. 영진이가 {갖다주랍디다, 갖다주라고 합디다}.

[강적들05회]

다. 마누라가 당장 가서 돈 돌려주고 {오라더라, 오라고 하더라, 오라시더라}!

[내조의 여왕13회]

라. 너한테 {전해달라더라, 전해달라고 하더라, 전해달라시더라}.

[알게 될거야18회]

마. 자네한테 {전하라테, 전하라고 하테, 전하라시테}.

[오태석(1998), 백마강 달밤에, 공연극본]

(19)에서 ‘-고 하-’를 환원시켰는데 환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해 (19)에 쓰인 ‘-(으)랍디다’, ‘-(으)라더라’와 ‘-(으)라테’는 3.1.2에서 살펴본 ‘-답디다’와 달리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으며 ‘인용’의 기능만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 하-’가 축약되지 않은 ‘-(으)라고 합디다’, ‘-(으)라고 하더라’와 ‘-(으)라고 하테’의 예문을 검색해 보았는데 각각 8개, 16개와 1개의 예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기본형의 사용 빈도 역시 높지 않아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와 정비례가 된 것도 잇따라 확인할 수 있다.

3.2.4 청유형 내포절

상위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이고 내포절은 청유형인 구성은 ‘-자고 하더-’이다. 이에 쓰인 ‘-고 하-’를 축약시키고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형을 만든다면 합쇼체는 ‘-자더랍니다’, 하오체는 ‘-잡디다’, 하계체는 ‘-자더라네’, 해라체는 ‘-자더라’, 해요체는 ‘-자데요’, 해체는 ‘-자테’이다. 10만 어절 중 ‘-잡디다’의 예문 2개, ‘-자더라’의 예문 13개만 추출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3>과 같고 해당 예문은 다음 (20)과 같다.

<표13> 청유형 내포절 + ‘-더-’가 있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자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잡디다 | — | 2 |
| 하게체 | -자더라네 | — | 0 |
| 해라체 | -자더라 | — | 13 |
| 해요체 | -자데요 | — | 0 |
| 해체 | -자데 | — | 0 |

(20) 가. 그 엄마 찾아와서 {결혼시키잡디다, 결혼시키자고 합디다}.

[보고 또 보고91-100회]

나. 열흘 있다가 {보잡디다, 보자고 합디다}.

[청춘의 덧5-6회]

다. 도끼형님이 사이 좋게 나눠 {먹자더라, 먹자고 하더라, 먹자시더라}.

[송능한(1997), 넘버3, 시나리오]

라. 할 말 있다고 좀 {보자더라, 보자고 하더라, 보자시더라}.

[강남엄마 따라잡기9회]

(20)에 쓰인 ‘-잡디다’와 ‘-자더래요’는 ‘-(으)랍디다’와 같이 ‘인용’을 나타내고 있고 극히 낮은 사용 빈도로 인해 단일어미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2.5 연결형 ‘-(으)려 하-’

‘-(으)려 하더-’ 구성은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으)려더랍니다’, 하오체는 ‘-(으)렵디다’, 하게체 ‘-(으)려더라네’, 해라체 ‘-(으)려더라’, 해요체 ‘-(으)려데요’, 해체 ‘-(으)려데’가 된다. 3.1.5에서 살펴본 ‘-(으)렵니다’ 등 어미 결합형에 비해 상위동사 ‘하-’에 ‘-더-’가 쓰인 ‘-(으)려더랍니다’를 비롯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단 하나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가 보유된 기본형의 예문을 11개를 추출하였다. 먼저 어미 결합형과 사용 빈도를 다음 <표14>와 같이 정리한다.

<표14> 연결형 내포절 + ‘-더-’가 있는 평서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려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으)렵디다 | — | 0 |
| 하게체 | -(으)려더라네 | — | 0 |
| 해라체 | -(으)려더라 | — | 0 |

| | | | |
|-----|---------|---|---|
| 해요체 | -(으)려데요 | — | 0 |
| 해체 | -(으)려데 | — | 0 |

‘하-’가 축약되지 않은 ‘-(으)려 하더-’의 예문에서 3.1.5에서 다룬 ‘-(으)려 하-’의 예문과 다른 양상을 발견하였다. 3.1.5에서 ‘-(으)려 하-’의 구문에 1인칭과 3인칭이 모두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으)려 하더-’ 구문에서는 3인칭 주어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몇 개의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 (21)과 같다.

(21) 가. 돈을 보내는 사람들도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더군요.
[동아일보 2003년 기사: 종합]

나. 당파들이 화친을 저해하려 하더라.

[이승만(1995), 청일전기, 솔빛조선미디어]

다. (그는)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 남편 권위는 있는 대로 내세우려 하더라고.

[유시춘 외(1993), 여성 이야기 주머니, 도서출판 녹두]

라. 그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계속 저를 안으려 하더군요.

[한창훈(2003),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창작과 비평사]

‘-(으)려 하더-’ 구성의 예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으)려 하-’에 ‘-더-’가 결합된 것은 오용(誤用)이 아닌가 의심스러워할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으)려 하-’에 결합된 ‘-더-’는 화자가 제3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행위를 취하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1가)를 예로 들면 화자는 주어인 ‘사람들’은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행위를 목격하였다. 여기서 목격하였다는 의미는 ‘하-’와 함께 쓰인 ‘-더-’에 있다. 따라서 ‘-(으)려 하-’에 ‘-더-’가 결합된 것은 문법·의미적으로 오용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1)과 아래 (21’)를 들여다보면 (21)의 주어는 모두 3인칭이며 이를 (21’)처럼 1인칭 주어로 교체하면 구문이 비문이 된다.

(21’) 가. *저도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더군요.

나. *내가 화친을 저해하려 하더라.

다. *나는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 남편 권위는 있는 대로 내세우려 하더라고.

라. *나는 하나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계속 나를 안으려 하더군요.

‘-(으)려 하더-’ 구성에 1인칭 주어가 아닌 3인칭 주어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 선어말어미 ‘-더-’의 ‘비동일 주어’ 제약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서정수(1977), 송재목(1998), 고영근(2004)과 박재연(2006)에서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평서문은 1인칭 주어, 의문문은 2인칭 주어를 가지지 못한다는 ‘비동일 주어 제약’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로 인해 ‘-더-’가 결합된 ‘-(으)려 하더-’에는 1인칭 주어가 쓰이지 못한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으)려 하-’ 구문에 적용하면 ‘-(으)려 하-’는 ‘하-’가 축약됨에 따라 1인칭 주어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칭 주어만 취할 수 있는 ‘-(으)려 하-’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들은 ‘비동일 주어 제약’을 지닌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레 설명이 된다. 한편, ‘-(으)려 하더-’ 구성은 이러한 문법적 제약으로 인해 ‘-(으)려 하-’ 구성처럼 높은 사용 빈도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고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도 없는 것이다.

3.3 소결

여기까지 살펴본 바를 보면 상위절이 평서형인 간접인용문인 구성과 연결형 ‘-(으)려 하-’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내포절 유형과 상위절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고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 단일어미화 양상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미 결합형에 관한 문법·의미적 특징도 확보하였으므로 본 장의 끝에서 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소결에서는 어미 결합형의 존재 여부, 실제 사용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다음 <표15>과 같이 나타내어 본다.

<표15> 평서형 상위절인 구성의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 상대 경어법 | -더- 無 | -더- 有 | -더- 無 | | | |
| -더- 無 | 합쇼체 | -답니다 ○ | -더드립니다 | -납니다 | (-더드립니다) | -으랍니다 | -잡니다 | -으립니다 |
| | 하오체 | -다오 ○ | (-더라오) | (-냐오) | (-더냐오) | -으라오 | -자오 | -으려오 |
| | 하계체 | -다네 ○ | -더라네 | (-냐네) | (-더냐네) | -으라네 | -자네 | -으려네 |
| | 해라체 | -단다 ○ | -더란다 | -난다 | (-더난다) | -으란다 | -잔다 | -으런다 |
| | 해요체 | -대요 ○ | -더래요 | -내요 | (-더내요) | -으래요 | -재요 | — |
| | 해체 | -대 | -더래 | -내 | (-더내) | -으래 | -재 | — |
| -더- 有 | 합쇼체 | (-다더드립니다) | (-더라더드립니다) | (-냐더드립니다) | (-더냐더드립니다) | (-으라더드립니다) | (-자더드립니다) | (-으려더드립니다) |
| | 하오체 | -답디다 | (-더라더라오) | (-냐더라오) | (-더냐더라오) | -으랍디다 | -잡디다 | (-으럽디다) |
| | 하계체 | (-다더라네) | (-더라더라네) | (-냐더라네) | (-더냐더라네) | (-으라더라네) | (-자더라네) | (-으려더라네) |
| | 해라체 | (-다더란다) | (-더라더라) | -냐더라 | (-더냐더라) | -으라더라 | -자더라 | (-으려더라) |
| | 해요체 | -다테요 | (-더라테요) | (-냐테요) | (-더냐테요) | (-으라테요) | (-자테요) | (-으려테요) |
| | 해체 | -다테 | (-더라테) | (-냐테) | (-더냐테) | -으라테 | (-자테) | (-으려테) |

[범례]

1. 단일어미화한 형태 뒤에는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표15>에 의해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 어미 결합형의 존재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체계적 특징도 잇따라 확인할 수 있다. 어미 결합형의 존재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는 바로 <표15>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표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체계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위절에 ‘-더-’가 쓰인 구성에는 하오체 ‘-답디다’, ‘-(으)랍디다’와 ‘-잡디다’만 쓰이고 있다.

둘째, 단일어미화 과정을 거쳐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셋째,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과 연결형 내포절 중에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평서형 내포절인 경우에 분포되어 있다.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이 가장 적다.

넷째, 평서형과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내포절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그렇지 않은 어미 결합형보다 사용 빈도가 낮고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적다.

다섯째,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존재하나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미 결합형을 살펴봄으로써 사전이나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해체 어미 결합형 ‘-대’는 일부 경우에 인용동사 ‘하다’가 해체로 활용된 경우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에 의해 ‘-고 하-’가 환원된 구문이 ‘인용’ 외에 ‘명령’의 의미도 드러난다.

둘째, 연결형 ‘-(으)려 하-’ 구성에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다고 하-’ 구성에 하오체 어미 결합형 ‘-다오’는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과 달리 ‘-다고 하더-’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하오체 어미 결합형인 ‘-답디다’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 해체나 해요체와 함께 쓰이고 있는 만큼 상대경어법 등급이 성립 시에 해당된 하오체와 거리가 생겼고 해체나 해요체와 근접해졌다. 이는 ‘-답디다’가 하오체에 해당되지만 다른 어미 결합형보다 높은 사용 빈도로 나타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4. 상위절이 감탄문인 경우

이익섭·채완(1999:225-231)에서 ‘-구나, -군, -구려, -네, -오, -어(요), -습니다’ 등은 평서문을 만드는 종결어미이고 이들은 환경에 따라 약속문이나 감탄문에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평서문과 감탄문은 어떠한 어미가 쓰여 있다는 기준으로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논의에서 이익섭·채완(1999)과 같이 감탄문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평서문의 한 하위부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를 따로 장을 설정한 이유는 간접인용문의 인용동사 ‘하-’에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결합된 경우에 나타난 양상을 3장 상위절이 평서문인 경우에 나타난 양상과 구분하고 해당 어미 결합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구나, -군, -구려, -네’ 중에 간접인용문 인용동사 ‘하-’와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되어 쓰인 것은 ‘-구나, -군, -네’이다. 그리고 ‘-구나’는 해체 종결어미고 ‘-군’과 ‘-네’는 해요체와 해체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위절이 감탄문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해요체와 해체의 경우만 있다.

4.1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4.1.1 평서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경우에 ‘-구나’, ‘-군’과 ‘-네’가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다는구나’, ‘-다는군’과 ‘-다네’이다. 이들은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사용 빈도까지 정리하면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평서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다는군요 | — | 117 |
| | -다네요 | — | 395 |
| 해체 | -다는구나 | — | 153 |
| | -다는군 | — | 8 |
| | -다네 | — | 1443 |

그리고 이들의 예문(22)를 보면 이들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고 ‘인용’과 ‘감탄’의 의미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군요, 부러졌다고 하는군요}.

[메디컬센터20회]

나. 그 집이 그렇게 {팬찮다네요, 팬찮다고 하네요}.

[1%의 어떤 것08회]

다. 역장님께서 데리고 {갔다는구나, 갔다고 하는구나}.

[에텐의동쪽12회]

라. 그들은 조약을 {맺는다네, 맺는다고 하네}.

[김윤식(1992), 운명과 형식, 술출판사]

(22)에 쓰인 ‘-군(요)’, ‘-네(요)’와 ‘-구나’를 ‘-고 하-’가 있는 기본형으로 환원시켜도 문법·의미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2)에 쓰인 ‘-다는구나’, ‘-다는군(요)’과 ‘-다네(요)’를 ‘인용’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어미 결합형으로 귀결할 수 있다.

2) ‘-더-’가 쓰인 경우

앞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하여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더라는구나구나’, ‘-더라는군’과 ‘-더라네’인 것이다. 이들은 해요체와 해체로 나뉘고 사용 빈도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평서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더라는군요 | — | 3 |
| | -더라네요 | — | 1 |
| 해체 | -더라는구나 | — | 0 |
| | -더라는군 | — | 4 |
| | -더라네 | — | 13 |

그리고 이들의 예문(23)을 보면 이들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고 ‘인용’과 ‘감탄’의 의미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가.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는군요, 되풀이하더라고 하는군요}.

[김주현(2003), 종이 먹는 개 로로, 문학사상사]

나. 그런 걱정을 {하더라네요, 하더라고 하네요}.

[사랑한다말해줘03회]

다. (윤정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네, 들더라고 하네}.

[그들이 사는 세상05회]

(23)에 쓰인 ‘-더라는군요’, ‘-더라네(요)’, ‘-더라는구나’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므로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16>과 <표17>을 비교하면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서 밝힌 바와 동일하다.

4.1.2 의문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내포절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으로는 ‘-냐는구나’, ‘-냐는군’과 ‘-냐네’가 있다. 이 또한 평서형 내포절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용된 내용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낸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해요체나 해체와 관계없이 이들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의문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냐는군요 | — | 0 |
| | -냐네요 | — | 0 |
| 해체 | -냐는구나 | — | 0 |
| | -냐는군 | — | 0 |
| | -냐네 | — | 0 |

2) ‘-더-’가 쓰인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참고한다면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더-’까지 쓰여 있으면 해당 어미 결합형인 ‘-더냐는구나(군)’와 ‘-더냐네’의 예문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말뭉치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예문이 없다. 다만, 예문이 추출되지 않은 것과 문법적 제약으로 인해 쓰이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표18>과 <표19>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들은 모두 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19>과 같다.

<표19> 의문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더냐는군요 | — | 0 |
| | -더냐네요 | — | 0 |
| 해체 | -더냐는구나 | — | 0 |
| | -더냐는군 | — | 0 |
| | -더냐네 | — | 0 |

4.1.3 명령형 내포절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명령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으)라는구나’, ‘-(으)라는군’과 ‘-(으)라네’이다. 말뭉치에서 해요체와 해체로 실현된 예문을 추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표20>과 같이 제시한다.

<표20> 명령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 포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으)라는군요 | — | 5 |
| | -(으)라네요 | — | 33 |
| 해체 | -(으)라는구나 | — | 0 |
| | -(으)라는군 | — | 31 |
| | -(으)라네 | — | 36 |

그리고 몇 개의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 (24)와 같다.

(24) 가.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군요, 하지 말라고 하는군요}.

[김지용(1993), 보이지 않는 나라, 새터]

나. 오늘은 잔업이 없다고 일찍 {가라네요, 가라고 하네요}.

[오!필승 봉순영02회]

다. 저리 {가라네, 가라고 하네요}.

[영화 괴물]

(24)에서 볼 수 있듯이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24)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인용’과 ‘감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1.4 청유형 내포절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청유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자는구나’, ‘-자는군’과 ‘-자네’이다. 이는 해요체와 해체로 나뉘어 각 어미 결합형과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21>로 제시한다.

<표21> 청유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자는군요 | — | 0 |
| | -자네요 | — | 14 |
| 해체 | -자는구나 | — | 4 |
| | -자는군 | — | 0 |
| | -자네 | — | 36 |

<표21>에 ‘-자는군요’를 제외하고 모두 예문이 추출되었는데 해당 예문을 다음 (25)와 같이 가져와 본다.

(25) 가. 밤에 잠깐 드라이브 {가시자네요, 가시자고 하네요}.

[커피프린스1호점8회]

나. 결정 났으니까 점심에 {만나자는구나, 만나자고 하는구나}.

[가문의 영광12회]

다. 나더러 {가자네, 가자고 하네}.

[그대그리고나38회]

<표21>과 예문(25)에서 보인 양상은 앞서 살펴본 명령형 내포절, 평서형 내포절의 경우와 동일하다. 곧 <표21>의 어미 결합형들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며 ‘인용’과 ‘감탄’을 나타낸다. 따라서 <표21>에 제시된 어미 결합형도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임이 분명하다.

4.1.5 연결형 ‘-(으)려 하-’

연결형 ‘-(으)려 하-’의 상위동사 ‘하-’에 ‘감탄’을 의미는 ‘-구나’, ‘-군’과 ‘-네’가 결합된 경우에 어미 결합형인 ‘-(으)려는구나’, ‘-(으)려는군’과 ‘-(으)려네’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연결어미 ‘-(으)려’는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으)려는구나’, ‘-(으)려는군’과 ‘-(으)려네’는 화자가 누군가의 ‘의도’ 또는 ‘의지’에 대한 ‘감탄’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여부와 사용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연결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으)려는군요 | — | 1 |
| | -(으)려네요 | — | 0 |
| 해체 | -(으)려는구나 | — | 2 |
| | -(으)려는군 | — | 0 |
| | -(으)려네 | — | 7 |

그리고 이들의 예문을 다음 (26)과 같이 제시한다.

(26) 가. 옆으로 {오시려는군요, 오시려고 하는군요}.

[소울메이트06회]

나. 드디어 밖으로 {몰아내려는가, 몰아내려고 하는가}.

[설창수(1986)< 설창수 전집5, 시문학사]

다. 병사들로 사망을 {지키려네, 지키려고 하네}.

[안춘배(1980), 역사의 얼굴, 우석출판사]

(26)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22>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인용’만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4.2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

4.2.1 평서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다더구나’, ‘-다더군’과 ‘-다더네’이다.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추출한 결과로는 해요체 ‘-다더군요’와 해체 ‘-다더군’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이들 중에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이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평서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다더군요 | — | 136 |
| | -다더네요 | — | 0 |
| 해체 | -다더구나 | — | 17 |
| | -다더군 | — | 130 |
| | -다더네 | — | 0 |

예문이 추출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몇 개 가져오면 다음 (27)과 같다.

(27) 가. 최근에 {결혼했다더군요,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대그리고나13회]

나. 해주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더구나, 잘한다고 하더구나}.

[김원일(1992), 그 곳에 이르는 먼 길, 현대소설사]

(27)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더라더구나’, ‘-더라더군’과 ‘-더라더네’이다. 3장에서 상위절과 내포절에 모두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본 소절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도 ‘-더-’가 두 번으로 쓰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평서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더라더군요 | — | 0 |
| | -더라더네요 | — | 0 |
| 해체 | -더라더구나 | — | 0 |
| | -더라더군 | — | 0 |
| | -더라더네 | — | 0 |

4.2.2 의문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냐더구나’, ‘-냐더군’과 ‘-냐더네’이다. 3장과 4.1.2에 내포절이 ‘-더-’가 쓰인 의문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소절에서 다른 어미 결합형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25>와 같다.

<표25> 의문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냐더군요 | — | 0 |
| | -냐더네요 | — | 0 |
| 해체 | -냐더구나 | — | 0 |
| | -냐더군 | — | 0 |
| | -냐더네 | — | 0 |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이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

형은 ‘-더냐더구나’, ‘-더냐더군’과 ‘-더냐더네’이다. 이는 상위절과 내포절에 모두 ‘-더-’가 쓰인 경우에 속한다. 3장과 4.1.2에서 밝혔듯이 상위절과 내포절에 모두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만큼 사용 빈도가 극히 낮다. 본 소절에서 다룬 ‘-더냐더구나’와 같은 어미 결합형도 상위절과 내포절에 모두 ‘-더-’가 쓰인 구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말뭉치에는 역시 이들의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어미 결합형만 다음 <표 26>과 같이 정리해 둔다.

<표26> 의문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더냐더군요 | — | 0 |
| | -더냐더네요 | — | 0 |
| 해체 | -더냐더구나 | — | 0 |
| | -더냐더군 | — | 0 |
| | -더냐더네 | — | 0 |

4.2.3 명령형 내포절

상위절이 ‘-더-’가 쓰인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명령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으로는 ‘-(으)라더구나’, ‘-(으)라더군’과 ‘-(으)라더라네’가 있다. 말뭉치에서 ‘-(으)라더군요’, ‘-(으)라더군’과 ‘-(으)라더구나’의 예문만 소량 추출하였다. 어미 결합형과 사용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27>과 같다.

<표27> 명령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으)라더군요 | — | 2 |
| | -(으)라더네요 | — | 0 |
| 해체 | -(으)라더구나 | — | 1 |
| | -(으)라더군 | — | 7 |
| | -(으)라더네 | — | 0 |

그리고 이들의 예문은 다음 (28)과 같다.

(28) 가. 종로에 {출마하라더군요, 출마하라고 하더군요}.

[모래시계18회]

나. 이 말만 {전해달라더구나,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순수16회]

다. 마음대로 {하라더군, 하라고 하더군}.

예문(28)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므로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4.2.4 청유형 내포절

상위절이 ‘-더-’가 쓰인 감탄형이고 내포절은 청유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으로는 ‘-자더구나’ ‘-자더군’과 ‘-자더라네’가 있다. 이들은 4.2.3 명령형 내포절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과 같이 예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28>과 같다.

<표28> 청유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자더군요 | — | 0 |
| | -자더네요 | — | 0 |
| 해체 | -자더구나 | — | 0 |
| | -자더군 | — | 0 |
| | -자더네 | — | 0 |

4.2.5 연결형 ‘-(으)려 하-’

연결형 ‘-(으)려 하더-’와 ‘-구나’, ‘-군’, ‘-네’가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으)려 더구나’, ‘-(으)려 더군’과 ‘-(으)려 더라네’이다.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어미 결합형인 경우 소량의 예문만 추출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예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말뭉치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다. 이로 인해 어미 결합형만 다음 <표29>로 정리한다.

<표29> 연결형 내포절 + 감탄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해요체 | -(으)려 더군요 | — | 0 |
| | -(으)려 더네요 | — | 0 |
| 해체 | -(으)려 더구나 | — | 0 |
| | -(으)려 더군 | — | 0 |
| | -(으)려 더네 | — | 0 |

여기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모두 단

일어미화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이유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구나’, ‘-군’과 ‘-네’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답니다’의 경우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답니다’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 ‘-다’에 결합된 ‘-입니다’는 문법적으로 종결의 기능만 수행하고 별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와 연결형 ‘-(으)려’에 결합되는 ‘-구나’, ‘-군’과 ‘-네’는 문법적 종결의 기능 외에 ‘감탄’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이로 인해 ‘-구나’, ‘-군’과 ‘-네’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별도로 단일어미화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용 빈도 또한 매우 낮음으로 인해 단일어미화가 될 가능성이 더 더욱 적은 것이다.

4.3 소결

앞서 살펴본 바를 보면 간접인용문 인용동사와 연결형 ‘-(으)려 하-’에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구나, -군, -네’가 결합된 경우에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의 양상이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구성에 어미 결합형의 존재 여부, 실제 사용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다음 <표30>과 같이 나타내어 본다.

<표30> 감탄형 상위절인 구성의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상대 경어법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더- 無 | 합쇼체 | — | — | — | — | — | — | — |
| | 하오체 | — | — | — | — | — | — | — |
| | 하게체 | — | — | — | — | — | — | — |
| | 해라체 | — | — | — | — | — | — | — |
| | 해요체 | -다는군요 -다네요 | -더라는군요 -더라네요 | (-냐는군요) (-냐네요) | (-더냐는군요) (-더냐네요) | -으라는군요 -으라네요 | (-자는군요) -자네요 | -으려는군요 (-으려네요) |
| | 해체 | -다는구나 -다는군 -다네 | (-더라는구나) -다는군 -더라네 | (-냐는구나) (-냐는군) (-냐네) | (-더냐는구나) (-더냐는군) (-더냐네) | (-으라는구나) -으라는군 -으라네 | -자는구나 (-자는군) -자네 | -으려는구나 (-으려는군) -으려네 |
| -더- 有 | 합쇼체 | — | — | — | — | — | — | — |
| | 하오체 | — | — | — | — | — | — | — |
| | 하게체 | — | — | — | — | — | — | — |
| | 해라체 | — | — | — | — | — | — | — |
| | 해요체 | -다더군요 (-다더네요) | (-더라더군요) (-더라더네요) | (-냐더군요) (-냐더네요) | (-더냐더군요) (-더냐더네요) | -으라더군요 (-으라더네요) | (-자더군요) (-자더네요) | (-으려더군요) (-으려더네) |
| | 해체 | -다더구나 -다더군 (-다더네) | (-더라더구나) (-더라더군) (-더라더네) | (-냐더구나) (-냐더군) (-냐더네) | (-더냐더구나) (-더냐더군) (-더냐더네) | (-으라더구나) -으라더군 (-으라더네) | (-자더구나) (-자더군) (-자더네) | (-으려더구나) (-으려더군) (-으려더네) |

[법례]

1. 단일어미화한 형태 뒤에는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표30>에 의해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모든 어미 결합형의 실제 사용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체계적 특징도 잇따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체계적 특징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인용문 인용동사에 결합될 수 있는 ‘감탄’의 종결어미는 ‘-구나’, ‘-군’과 ‘-네’는 해요체와 해체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해요체와 해체로만 쓰인다.

둘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셋째,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모든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단일어미화로 새로운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없다. 이는 이러한 어미 결합형이 ‘인용’의 기능 외에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서이다.

넷째,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다.

5. 상위절이 의문문인 경우

선어말어미 ‘-더-’는 의문형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문문인 상위절은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먼저 평서형 내포절인 경우를 보도록 하자.

5.1 상위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5.1.1 평서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의 함쇼체는 ‘-다고 합니까’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면 ‘-답니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오체는 ‘-다오’, 하게체는 ‘-다가’, 해라체는 ‘-다냐’, ‘-다느냐’와 ‘-다니’, 해요체는 ‘-대요’, 해체는 ‘-대’가 된다.²³⁾ 이 중에 해라체인 경우 해라체로 실현된 의문문 종결어미는 ‘-(느)냐’와 ‘-(으)니’가 있기 때문에 해라체 어미 결합형은 ‘-다냐’, ‘-다느냐’와 ‘-다니’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여부와 사용 빈도를 살펴보기를 앞서 ‘-다니’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해라체 어미 결합형 ‘-다니’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 ‘-다’와 ‘원인’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와 형성된 어미 결합형 ‘-다니’와 형태가 같아 단일어미화로 활용하는 데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 (29)와 같다.

(29) 가. 아직도 선약을 따진다니, (걱정스럽네).

[변호사들04회]

나.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군요).

[귀여운 여인01-10회]

다. 결정을 해준다니, (그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지).

[호텔리어01-10회]

라. 결혼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대그리고나52회]

(29)에서 소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각 예문 뒤에 이어진 발화이다. 소괄호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예문을 본다면 ‘-다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쓰인 ‘-다니’인지 ‘원인’

23) ‘-다고 하-’에 결합된 종결어미에 따라 해당 어미 결합형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다. ‘-다냐’는 안용동사 ‘하-’에 의문형 종결어미 ‘-냐’가 결합된 것이고 ‘-다니’는 의문형 종결어미 ‘-(으)니’가 결합된 것이다. 본고에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가 쓰인 ‘-다니’인지 쉽게 판별되지 않다. 이로 인해 이어진 발화를 고려하면 (29)에 쓰인 ‘-다니’는 화자가 들은 발화를 인용하면서 인용된 내용에 이어진 발화를 하게 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9가)를 예로 들면 화자는 ‘선악을 따진다.’는 발화를 들었으며 이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발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9)에는 앞발화가 뒷발화의 원인이고 뒷발화는 앞발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다니’는 앞 뒤 발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때문에 ‘-다니’는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 결합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이 ‘-고 하-’의 환원 여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다.

- (29') 가. 아직도 선악을 {따진다니, 따진다고 하니} 걱정스럽네.
 나.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생각해 준다고 하니} 고맙군요.
 다. 결정을 {해준다니, 해준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지.
 라. {결혼한다니, 결혼한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29')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를 의미하는 뒷발화가 이어진 경우에 쓰인 ‘-다니’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며 ‘인용’의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 ‘-다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결과’를 의미하는 뒷발화가 이어지지 않거나 한정된 뒷발화가 이어진 경우에 쓰인 ‘-다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으)니’가 쓰인 ‘-다니’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뒷발화가 없는 예문을 다음 (30)과 같이 가져와 본다.

- (30) 가. 어디 {간다니, 간다고 하니}? [소문난 칠공주01-80회]
 나. 어디 {간다니, 간다고 하니}? [소문난 칠공주01-80회]
 다. 넌 어째 {그런다니, *그런다고 하니}. [소문난 칠공주01-80회]
 라. 너 요새 왜 이렇게 {꼴떡댄다니, *꼴떡댄다고 하니}. [소문난 칠공주01-80회]
 마. 태대부인이 아들을 {낳으신다니, *낳으신다고 하니}. [자명고01-21회]

(30)에 (30가-나)에 쓰인 ‘-다니’는 ‘-고 하-’가 환원이 가능하며 종결위치에서 피인용문을 인용하며 인용된 발화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화자가 인용된 발화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그게 무슨 말이야?’ 또는 ‘어떻게 된 거야?’와 같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이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인용된

발화의 발화 여부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 설명의 의문문이 이어진 여부와 무관하게 (30가-나)에 쓰인 ‘-다니’는 피 인용문을 인용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인용’의 어미 결합형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30가-나)는 (29)와 같이 뒷발화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다니’에 후행하는 구문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29)의 경우 ‘-다니’에 후행하는 구문은 앞발화의 ‘결과’이다. 이와 달리 (30가-나)의 경우는 ‘-다니’에 후행하는 구문이 인용된 발화에 대한 추가 설명인 것이다.

이에 반해 (30다-마)에 쓰인 ‘-다니’는 ‘-고 하-’의 환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알거나 들은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탄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30라)는 ‘왜 이렇게 껄떡댄다.’와 같은 피 인용문을 인용하며 의문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청자인 ‘너’가 ‘껄떡대다’는 행위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감탄이나 불만스러운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니’는 평서나 감탄 외에 의문의 억양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29)와 비교한다면 (30다-마)에는 추가 설명이나 ‘결과’의 뒷발화를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인’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와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의 구분은 다음 <표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31> ‘-다니’의 구분

| 형태 |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 | 종결어미 ‘-(으)니’의 결합 | |
|----------|------------------|--------------------|-----------------------|
| | -ㄴ/는다니 | -ㄴ/는다니 | -ㄴ/는다니 |
| 뒷발화 유무 | 有 | 有 | 無 |
| 뒷발화 의미 | 앞발화에 따른 결과 | 앞발화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 | — |
| -고 하- 환원 | 可能 | 可能 | 不可能 |
| 예문 | 잘 지낸다니 마음이 놓이네. | 이민을 간다니? (무슨 말이야?) | 넌 어째 그런다니. 넌 어째 그런다니? |
| ‘-다니’ 구분 | 어미 결합형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표31>을 바탕으로 하여 본 소절은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으)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다니’를 다루는 것이므로 여타 어미 결합형과 함께 단일어미화 여부와 사용 빈도를 다음 <표32>와 같이 정리한다.

<표32>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없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답니까 | -답니까 | 9 |
| 하오체 | -다오 | -다오 | 5 |
| 하게체 | -다는가 | — | 13 |
| 해라체 | -다냐 | -다냐 | 19 |
| | -다느냐 | — | 0 |
| | -다니 | -다니 | 2853 |
| 해요체 | -대요 | -대요 | 1064 |
| 해체 | -대 | -대 | 1174 |

<표32>에 해라체의 ‘-다냐’, 해요체의 ‘-대요’와 해체의 ‘-대’는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냐’는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문(30)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전 해석과 기존 연구부터 검토해 보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바는 다음과 같다.

-ㄴ다니²

[1]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ㄴ’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주어진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 이 긴 시를 어떻게 외운다니?

재는 또 왜 저런다니?

「참고 어휘」 -는다니, -다니, -라니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다니’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참고 어휘에 ‘-ㄴ/는’이 통합되지 않는 ‘-다니’도 포함시켜 이형태로 해석하고 있다. 사전보다 세분하게 기술한 논의로는 김홍범(1987), 이필영(1993), 이금희(2005), 김수태(2000)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니’의 쓰임을 묶어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소절에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종결어미로 쓰인 ‘-다니’에 관한 논의만 살펴본다.

우선 김수태(2000)와 김홍범(1987)은 종결위치에 쓰인 ‘-다니’의 문말억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김수태(2000)에서 구문의 끝에 쓰인 ‘-다니’를 올림의 억양을 실현하는 것과 내림의 억양을 실현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올림의 억양으로 실현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 것이고 내림의 억양의 경우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되어도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²⁴⁾ 올림 억양의 경우에 해당된 ‘-

24) 김수태(2000)에서 논의한 내림의 억양을 실현하는 ‘-다니’는 6장에서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합성형 ‘-다니’이다. 이에 대해 6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다니'는 종결어미로서의 '-다니'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뜻밖의 발화에 대해서 말할이의 마음가짐을 드러낸 것이고 대화에 있어서는 '예, 아니요'만의 대답이 아닌 보충 설명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표31>에 의하면 김수태(2000)에서 제시한 올림의 억양으로 실현된 '-다니'는 종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이고 뒷발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화자가 알거나 들은 바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수태(2000)와 달리 '-다니'를 '-다니1', '-다니2'와 '-다니3'으로 삼분한 김홍범(1987)이 있다. 김홍범(1987:17-20)에서 '-다니'는 뒤에 어떤 절종결이 놓이느냐에 따라 의미와 서법이 달라진다고 하며 급히올림(↑)의 절종결이 놓이는 경우, 내림(↘)의 절종결이 놓이는 경우와 끝음(→)의 절종결이 놓이는 경우로 나뉜다고 하였다. 급히올림(↑)의 경우 '-다니'는 놀라움과 믿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수사의문문의 종결 접미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김홍범(1987)에서 제시한 급히올림(↑)의 '-다니'는 <표31>에 정리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다니'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문말억양을 기준으로 하여 '-다니'의 의미를 분류한 것은 다소 주관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면 이필영(1993)에서는 '-대'형과의 교체, '-고 하-'의 환원, '-요'의 통합 여부와 같은 형태적 기준을 '-다니'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였다. 이필영(1993:138-142)에서 종결형으로 쓰이는 '-다니'는 '-다 하니'로부터 융합된 '비환원적 융합형'이라고 하며 시제나 서법의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다-'형과 '-대-'형의 수의적 교체가 가능하며 '-다니'뿐만 아니라 '-냐니', '-(으)라니'와 '-자니' 모두 가능하므로 '다-'단축형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후자는 '-대-'형으로 쓰이기 어려우며 '-냐/라/자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탈락형이라고 귀납하였다. 이에 의해 전자는 '-다니1', 후자는 '-다니2'로 해 두고 '-다니1'은 통사론적 구성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어떤 발화에 대해 반사적으로 되묻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이필영(1993)에서 밝힌 '-다니1'은 <표31>에 정리된 종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되고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 '-다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종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 외에 단일 어미화가 되어 별개의 종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소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다니'는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 어간과 결합된 경우에 '-ㄴ/는'이 통합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ㄴ/는'이 통합되지 않은 '-다니'를 묶어 다룬 것에 관련하여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도 이러한 '-다니'의 예문을 대량 추출하였다. 해당 예문은 다음 (31)과 같다.

- (31) 가. A: 어차피 병원 내놓을 거야!
 B: 뭐? 병원을 내놓다니?

25) 끝음(→)의 '-다니'는 절종결에 쓰이기는 하나 후행절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를 종결 접미사가 아닌 연결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6장에서 다룬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합성형이다. 이에 대해 6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영화 흥반장]

나. A: 그냥 잃어버리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B: 잃어버리다니?

[영화 지구를 지켜라]

다. A: 이런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다니.

B: 다른 그림을 달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으셔.

[영화 스승의 은혜]

라. 한영씨가 나한테 선물을 주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2008코끼리82회]

마. 서린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니, 감격스럽네요.

[불새16회]

바. 의원이 살해되다니, 그 무슨 해괴한 말씀이요?

[한성별곡07회]

(31)에 쓰인 ‘-다니’는 용언 어간과 무관하게 ‘-다니’의 형태로만 쓰이고 있다. 그 중에 (31가-나)에 ‘-다니’는 구문의 종결위치에서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이고 (31다-라)에 ‘-다니’는 구문의 종결위치에서 평서형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또 (31마-바)에 ‘-다니’는 ‘감탄’이나 ‘놀라움’을 의미하는 후행절과 함께 쓰이고 있다. 이러한 쓰임을 의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25-26)에 쓰인 ‘-다니’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통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용’으로 쓰이는 ‘-다니’든 단일어미화가 되어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니’든 모두 간접인용문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ㄴ/는’의 통합이 당연한 것이다. (31)과 같이 ‘-ㄴ/는’이 통합되어 있지 않는 ‘-다니’는 간접인용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지 않다.²⁶⁾

이러한 쓰임에 대해 이지양(1998:203)에서 어미 합성형 중 별개의 어미 기능을 ‘융합형’으로 간주하는데 ‘-ㄴ/는’이 통합되지 않은 ‘-다니’는 융합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니’는 ‘-다고 하니’로 환원되지 않으나 간접인용문에서 출발

26) ‘-다니’에 대해 이소흔(2013)에서 종결어미 ‘-니’뿐만 아니라 ‘원인’과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가 통합된 ‘-다니’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다니’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종결어미 ‘-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니’는 ‘제1유형’으로,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니’는 ‘제2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제2유형’인 ‘-다니2’는 결합된 용언 어간과 무관하여 ‘-다니’의 단일한 형태로만 실현된 것이라고 하였다.

강규영(2020)에서도 ‘-다니’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종결어미 ‘-니’가 통합된 ‘-다니1’에 ‘-니’는 ‘-나’ 또는 ‘-어’로 대체될 수 있으며 ‘-다니’ 자체는 ‘-대니’와 교체 가능하고 화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니2’와 ‘-다니3’은 모두 연결어미 ‘-(으)니’와 통합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니2’는 메아리의문문에 쓰인 것이고 ‘-다니3’은 감탄문에 쓰인 것이라 하였으며 ‘-다니2’는 바로 조사 ‘-ㄴ/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미이다.

그러나 ‘-ㄴ/는’이 통합하지 않은 것은 일반 간접인용문에서 피인용문에 쓰인 용언에 따라 ‘-ㄴ/는’ 또는 선어말어미가 그대로 내포절로 옮겨진 것과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이를 고려하여 필자는 이러한 조사와 선어말어미가 붙지 않는 ‘-다니’는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된 것을 전제할 논의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의문이 든다.

하였음을 보여주는 ‘-ㄴ/는’과 결합되어 쓰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흔히 별개의 어미로 쓰인 ‘-다며’와 ‘-다니까’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되지 못하고, 동사가 명시적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결합되는데, 이는 ‘-다-’융합형이 인용구문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ㄴ/는’이 통합되지 않은 ‘-다니’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될 수 있음은 그것이 융합형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분명한 통사적 차이점에 의해 조사 ‘-ㄴ/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니’를 ‘-ㄴ/는 다니’와 동일하게 간접인용문 체계에 두는 것보다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별개의 어미로 간주하는 것이 혼란을 덜 일으키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다시 <표32>를 보자면 해라체 어미 결합형의 경우 인용동사 ‘하-’에 결합된 종결어미 ‘-냐’, ‘-느냐’와 ‘-니’에 따라 세 가지 어미 결합형이 있으며 사용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냐’와 ‘-느냐’는 용언 어간에 따라 선택된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냐’는 19개의 예문이 추출되고 단일어미화가 된 반면에 ‘-다느냐’는 예문조차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하오체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나 단일어미화가 되어 하나의 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예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다냐’, ‘-다느냐’와 ‘-다니’의 사용 빈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은 인용표지 ‘-고’와 인용동사 ‘하-’의 축약에 의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종결어미 ‘-냐’와 ‘-느냐’에 있다. 유필재(2018)에서 ‘-느냐/으냐’와 ‘-니/으니’의 복잡한 교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두 어미의 변화 및 변화의 원인을 밝혔다. ‘-느냐/으냐’는 ‘느’ 탈락에 의해 ‘-냐/으냐’로 일차적으로 변화를 겪은 뒤 ‘-냐/으냐’는 다시 이형태가 ‘-냐’로 단일화 되어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참고하여 ‘-다느냐’와 ‘-다냐’ 간에 ‘-다냐’만 예문이 추출된 것은 ‘-냐’와 ‘-느냐’가 ‘-냐’로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냐’와 ‘-느냐’ 간에 ‘-냐’만 쓰이게 되었음으로 인해 ‘-다냐’만 쓰이게 된 것이다.

이어서 <표32>에 ‘-다니’가 제외된 다른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양상을 살펴보자. 이들이 쓰인 예문을 다음 (32)와 (33)으로 제시한다.

(32) 가. 감사원에서 나를 {부른답니까, 부른다고 합니까}?

[MBC 단소리 쓴소리]

나. 누가 {데려간다고, 데려간다고 하오}?

[김종광(2002), 모내기 블루스, 창작과비평사]

다. 단원은 요즘 뭘 하고 {다닌다는가, 다닌다고 하는가}?

[바람의 화원06회]

라. 결혼을 {하셨다냐, 결혼하셨다고 하냐}?

[가문의 영광]

마. 어디서 {주셨대요, 주셨다고 해요}.

[킹콩을 들다]

바. 많이 {아프대, 아프다고 해}.

[클래식]

(33) 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일이라고 합니까}.

[드라마 주몽12회]

나. 그 사람은 무슨 인정이 그리 {많다오, *많다고 하오}?

[이금희(2005:236)]

다. 어째 {이런다냐, *이런다고 하나}?

[현격준 외(1995)< 바다가 모르는 소리, 한국경제신문사]

라. 아침이 뭐 이렇게 {거하대요, *거하다고 해요}?

[김치 치즈 스마일87회]

마. 아유, 누가 {바란대, *바란다고 해}?

[보고 또 보고14회]

(32)에 쓰인 ‘-답니까’, ‘-다오’, ‘-다는가’, ‘-다냐’, ‘-대요’와 ‘-대’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33)에 쓰인 ‘-답니까’, ‘-다오’, ‘-다냐’, ‘-대요’와 ‘-대’는 ‘-고 하-’의 환원을 허용하지 않아 단일어미화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누군가의 발화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 (33가)를 예로 들면 화자는 관형사인 ‘무슨’을 사용함으로써 ‘무슨 일이냐’와 같은 질문을 인용한 것이 아닌 ‘무슨 일이냐’와 같은 발화를 하며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스럽거나 이해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33나)는 ‘그 사람은 왜 인정이 많냐’와 같은 질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정이 많다’는 것에 대한 감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33다)는 화자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놀라움’이나 ‘불만’을, (33라)는 ‘아침이 거하다는 것’을 단일어미화가 된 각 어미 결합형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이 외에 (33마)는 화자 자신이 바라지 않는다는 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또한 (33)에 ‘의문’의 의미를 지닌 ‘무슨’, ‘왜’, ‘어째’, ‘뭐’와 ‘누가’가 쓰여 있다. 만일 (33)이 평서형 내포절인 간접인용문이라면 내포절에는 ‘무슨’과 ‘왜’ 등 ‘의문’을 나타내는 관형사 등이 쓰이지 못하여야 한다. 그러나 (33)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슨’ 등 ‘의문’을 의미하는 관형사 등이 매우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이는 (33)은 평서형 내포절인 간접인용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33)에 쓰인 ‘-(으)랍니까’, ‘-다오’, ‘-다냐’, ‘-대요’와 ‘-대’는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이 아니라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인 것이다.

이처럼 살펴본 어미 결합형 중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종결어미 ‘-답니까’와 ‘-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답니까

[I] 「어미」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이 주어졌다고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 아이가 어쩔 이렇게 똑똑하답니까?

왜 이렇게 일찍 갔답니까?

「참고 어휘」 -ㄴ답니까, -는답니까, -랍니까, -잡니까

-대

[I] 「어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 왜 이렇게 일이 많대?

신랑이 어쩔 이렇게 잘생겼대?

[II] ‘-다고 해’가 줄어든 말.

¶ 사람이 아주 똑똑하대.

「참고 어휘」 -ㄴ대, -는대

사전 외에 기존 연구 중 이금희(2005)도 유사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금희(2005)에서 ‘-답니까’는 실제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것을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고 ‘-대’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화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 쓰는 것이며 [+의문]의 의미 기능이 약화되고 화자의 [+놀라움]이나 [+못마땅함] 등 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인 구성의 합쇼체는 ‘-더라고 합니까’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면 ‘-더랍니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남은 하오체는 ‘-더러오’, 하게체는 ‘-더라는가’, 해라체는 ‘-더러냐/더러느냐/더러니’, 해요체는 ‘-더러요’, 해체는 ‘-더래’이다. 이들에 대해 말뭉치에서 ‘-더러요’와 ‘-더래’의 예문 각각 2개씩만 추출하였다. 이를 다음 <표33>으로 정리하고 ‘-더러요’와 ‘-더래’의 예문을 다음 (34)로 제시한다.

<표33>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랍니다 | — | 0 |
| 하오체 | -더라오 | — | 0 |
| 하계체 | -더라는가 | — | 0 |
| 해라체 | -더라냐 | — | 0 |
| | -더라느냐 | — | 0 |
| | -더라니 | — | 0 |
| 해요체 | -더래요 | — | 2 |
| 해체 | -더래 | — | 2 |

(34) 가. 태봉이와 동철이가 몇 시 쯤 들어오더냐 {묻더래, 묻더라고 해요}.

[황석영(1980), 어둠의 자식들, 현암사]

나. 엄마가 무슨 {말하더래, 말하더라고 해}

[꽃보다 아름다워 17회]

다. 진숙이 찾아 {왔더래요, 왔더라고 해요}.

[우리집 여자들7회]

라. 병달 어른 {찾아왔더래요, 찾아왔더라고 해요}.

[포도밭 그 사나이2회]

(34)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과 선어말어미 ‘-시-’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는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여부와 정비례가 된다는 체계적 특징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5.1.2 의문형 내포절

의문형 내포절의 경우에 ‘-더-’가 쓰인 여부에 따라 ‘-냐고’와 ‘-더냐고’로 나눠 살펴보겠다. 먼저 ‘-더-’가 쓰이지 않은 ‘-냐고 하-’인 경우를 보자.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과 내포절은 모두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인 구성이 합쇼체로는 ‘-냐고 합니까’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어 상대경어법에 의하면 합쇼체는 ‘-냐니까’, 하오체는 ‘-냐오’, 하계체는 ‘-난가/냐는가’, 해라체는 ‘-냐니’, 해요체는 ‘-내요’, 해체는 ‘-내’이다. 이들의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다음 <표34>와 같이 정리해 본다.

<표34> 의문형 내포절 + ‘-더-’가 없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납니까 | — | 0 |
| 하오체 | -냐오 | — | 0 |
| 하계체 | -냐는가 | — | 0 |
| 해라체 | -냐니 | — | 110 |
| 해요체 | -내요 | — | 2 |
| 해체 | -내 | — | 1 |

<표34>에서 볼 수 있듯이 해요체의 ‘-내요’와 해체의 ‘-내’는 극히 소량의 예문만 추출되었고 해라체의 ‘-냐니’는 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소절에서 ‘-다니’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다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과 하나의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해 ‘-냐니’가 쓰인 예문에서 ‘-다니’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날지, ‘인용’이나 하나의 어미로 쓰일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한 ‘-냐니’가 쓰인 대화를 다음 (35)와 같이 제시한다.

(35) 가. A: 어떤 여자였어요?

B: 어떤 {여자냐니, 여자냐고 하니}?

[결혼 못하는 남자1회]

나. A: 너 괜찮아?

B: {괜찮냐니, 괜찮냐고 하니}?

[결혼 못하는 남자8회]

다. A: 너 그게 무슨 소리냐?

B: 무슨 {소리냐니, 소리냐고 하니}?

[수호천사1-6회]

라. A: 솔직하게 말해줘. 설칠이 어떻게 생각해?

B: 어떻게 {생각하냐니, 생각하냐고 하니}?

[소문난 칠공주1-80회]

마. A: 니가 왜?

B: {왜냐니, 왜냐고 하니}?

[9회말 2아웃14회]

바. A: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B: 날더러 무슨 {짓이냐니, 짓이냐고 하니}?

[황금마차138회]

(35)에서 볼 수 있듯이 ‘-냐니’는 ‘-고 하-’가 환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35)처럼 ‘-냐니’가 쓰인 대화를 가져온 이유는 ‘-냐니’가 쓰인 발화는 모두 청자a의 질문을 반복하고 다시 청자에게 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5가)를 보면 화자A는 화자B에게 정보를 요

청하는 일반 의문을 하였는데, 화자B는 요청 정보를 대답하는 것을 대신 화자A의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화자A에게 질문의 의도 또는 이유를 되묻고 있다. 왜냐하면 화자B가 보기에 화자A의 질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예상 밖의 질문이어서이다. 따라서 이때 화자B의 발화 뒤에 ‘무슨 말이야?’나 ‘왜 이런 질문을 해?’ 등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가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 ‘-냐니’는 화자가 청자의 질문을 반복하고 청자에게 되묻는 데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의문 발화를 전제로 요구한다. 다시 말해 청자가 화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의문 발화를 하지 않았다면 화자는 ‘-냐니’를 사용하여 되묻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청자의 의문 발화 없이 대화의 시작으로 쓰인 ‘-냐니’의 구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35)에 쓰인 ‘-냐니’는 <표31>에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다니’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35)에 쓰인 ‘-냐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귀납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인 구성이 합쇼체로는 ‘-더냐고 합니까’인데 ‘-고 하-’가 축약되면 ‘-더납니까’가 된다. 이처럼 하오체는 ‘-더냐오’, 하게체는 ‘-더냐는가’, 해라체는 ‘-더냐니’, 해요체는 ‘-더내요’, 해체는 ‘-더내’이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는 이들은 예문이 없다. 그리고 ‘-고 하-’가 축약되기 이전의 기본형의 예문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35>와 같다.

<표35> 의문형 내포절 + ‘-더-’가 없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종결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납니까 | — | 0 |
| 하오체 | -더랴오 | — | 0 |
| 하게체 | -더냐는가 | — | 0 |
| 해라체 | -더냐니 | — | 0 |
| 해요체 | -더내요 | — | 2 |
| 해체 | -더내 | — | 2 |

27)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냐니’ 외에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쓰인 ‘-냐니’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냐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냐니’에 후행하는 절이 분명히 잇따르기 때문에 ‘인용’의 어미 결합형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6장 6.5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5.1.3 명령형 내포절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형과 의문형에만 쓰일 수 있으므로 명령형 내포절인 경우에는 ‘-더-’가 쓰이지 않은 구성만 가능하다. 따라서 내포절이 명령형이고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인 구성에 해당된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으)랍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으)라오’, 하게체는 ‘-(으)라는가’, 해라체는 ‘-(으)라냐/(으)라니’, 해요체는 ‘-(으)래요’, 해체는 ‘-(으)래’이다. 이들의 사용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36>과 같다.

<표36> 명령형 내포절 + ‘-더-’가 없는 의문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랍니까 | — | 5 |
| 하오체 | -(으)라오 | — | 0 |
| 하게체 | -(으)라는가 | — | 2 |
| 해라체 | -(으)라냐 | — | 4 |
| | -(으)라니 | — | 198 |
| 해요체 | -(으)래요 | — | 40 |
| 해체 | -(으)래 | — | 68 |

먼저 하오체 ‘-(으)라오’는 예문이 없으며 하게체 ‘-(으)라는가’의 예문은 극소수로 확인된 것을 현대 한국어 하오체와 하게체의 쓰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라체 ‘-(으)라니’는 5.1.1과 5.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어미 결합형 중 높은 사용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 ‘-(으)라니’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으)라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다/냐니’의 경우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으)라니’의 예문은 다음 (36)과 같다.

(36) 가. A: 그러니까 왜 단식을 하고 그러세요! 제발 밥 좀 드세요!

B: 밥을 {먹으라니, 먹으라고 하니}.

[내 인생의 스페셜06회]

나. A: 아빠, 참으세요.

B: 아빠더러 {참으라니, 참으라고 하니}.

[김가이가16회]

다. A: 나라 수금하러 왔습니다. 내돈 2억원.

B: 느닷없이 찾아와서 2억을 {내놓으라니, 내놓으라고 하니}?

[쩨의 전쟁06회]

라. A: 당신 이거 가지고 어디 지방에 가 있어.

B: 지방에 가 {있으라니, 있으라고 하니}?

[찬란한 유산06회]

(36)에 쓰인 ‘-(으)라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을뿐더러 ‘-(으)라니’ 구문에 ‘무슨 말이야?’와 같은 뒷말화가 이어질 수 있다. (36가)를 예로 보자면 화자A 화자B에게 ‘밥 좀 드세요’와 같은 명령을 하였는데, 화자B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자A가 한 명령을 ‘-(으)라니’로 반복하고 화자A에게 명령을 내린 의도 또는 이유를 되묻고 있다.

이러한 ‘-(으)라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다/냐니’와 같이 청자의 발화를 전제로 요구한다. ‘-냐니’는 청자의 정보 요청 의문 발화라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 ‘-(으)라니’는 청자의 명령 발화가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36)에 쓰인 ‘-(으)라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5.1.4 청유형 내포질

‘-더-’는 청유형에도 쓰이지 않으므로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청유형인 구성에 해당된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잡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자오’, 하계체는 ‘-자는가’, 해라체는 ‘-자냐/자니’, 해요체는 ‘-재요’, 해체는 ‘-재’이다. 이를 이들의 사용 빈도와 함께 다음 <표37>로 정리한다.

<표37> 청유형 내포질 + ‘-더-’가 없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종결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잡니까 | — | 0 |
| 하오체 | -자오 | — | 0 |
| 하계체 | -자는가 | — | 2 |
| 해라체 | -자냐 | — | 0 |
| | -자니 | — | 10 |
| 해요체 | -재요 | — | 29 |
| 해체 | -재 | — | 140 |

하오체의 ‘-자오’와 하계체의 ‘-자는가’에 대해 현대 한국어에 하오체와 하계체의 쓰임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을 적용하면 된다. 5.1.1, 5.1.2와 5.1.3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하여 해라체 ‘-자니’의 예문을 보았을 때 ‘-자니’는 역시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자니’의 예문은 다음 (37)과 같다.

(37) 가. A: 엄마랑 집에 가자.

B: 집에 {가자니, 가자고 하니}?

[얼마나 좋길래101회]

나. A: 외국으로 2, 3년 간 내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B: 외국으로 {내보내자니, 내보내자고 하니}?

[얼아흙 순정87회]

다. A: (내가) 내년 봄이나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B: 다시 생각을 해 {보자니, 보자고 하니}?

[초대1-18회]

라. 의주를 {떠나자니, 떠나자고 하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상도38회]

(37)에 쓰인 ‘-자니’는 앞서 살펴본 ‘-냐/라니’와 같이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며 청자의 발화를 반복하여 청자에게 되묻고 있다. (37가)를 보면 화자A는 화자B에게 ‘엄마랑 집에 가자.’는 청유의 발화를 하였으나 화자B는 화자A의 청유의 발화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그 발화를 반복하고 청자에게 되물은 것이다. 또 (37라)에서 볼 수 있듯이 ‘-(으)라니’에 ‘그게 무슨 소리냐’와 같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37)에 쓰인 ‘-자니’도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5.1.5 연결형 ‘-(으)려 하-’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연결형 접속절 ‘-(으)려’인 경우에 해당된 함쇼체 어미 결합형은 ‘-(으)릅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으)려오’, 하계체는 ‘-(으)려는가’, 해라체는 ‘-(으)려냐/려니’이다. 여기에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은 3.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레요’와 ‘-레’에 관한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이들의 사용 빈도와 함께 다음 <표38>로 정리한다.

<표38> 연결형 내포절 + ‘-더-’가 없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종결어미 | 빈도 |
|-----------|---------|------|-----|
| 함쇼체 | -(으)릅니까 | — | 130 |
| 하오체 | -(으)려오 | — | 0 |
| 하계체 | -(으)려는가 | — | 62 |
| 해라체 | -(으)려냐 | — | 0 |
| | -(으)려느냐 | — | 0 |
| | -(으)려니 | — | 2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으)릅니까’, ‘-(으)려는가’와 ‘-(으)려니’의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 (38)과 같다.

(38) 가. 아이를 {살리시렵니까, 살리시려 합니까}?

[2008전설의 고향2회]

나. 어디로 떠나서 무엇을 {하려는가, 하려고 하는가, 하려시는가}?

[황석영(1995), 장길산2, 창작과비평사]

다. 너도 한몫 들어 매 줌 {맞으려니, 맞으려고 하니}?

[장경애(1992), 인간문제, 창작과 비평사]

(38)에는 축약되었던 ‘하-’가 환원이 된다. 그리고 ‘-(으)려’는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어 ‘-(으)렵니까’ 등 어미 결합형은 ‘의도’나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2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

5.2.1 평서형 내포절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의 합쇼체는 ‘-다고 하더랍니까’이다. 이의 ‘-고 하-’가 축약되면 ‘-다더랍니까’가 된다. 이 외에 하오체는 ‘-답디까’, 하계체는 ‘-다던가’, 해라체는 ‘-다더냐’이다. 이들은 내포절 종결어미(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와 인용동사 ‘하-’에 결합된 ‘-더-’와 각 상대경어법 종결어미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다더’ 뒤에 각 상대경어법 종결어미가 결합되는 것이다. ‘-다더’는 해요체와 해체로 실현된다면 ‘-다데요’와 ‘-다데’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형이 아니므로 본소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위절에 ‘-더-’가 쓰인 ‘-다고 하더랍니까’ 등 구성에는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어미 결합형과 그들의 사용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39>와 같다.

<표39>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 | 어미 결합형 | 종결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다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답디까 | -답디까 | 63 |
| 하계체 | -다던가 | -다던가 | 169 |
| 해라체 | -다더냐 | -다더냐 | 8 |
| | -다더니 | -다더니 | 120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표39>의 어미 결합형은 ‘-다더랍니까’를 제외하고 예문이 없지 않다.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 (39)와 (40)이 있다.

(39) 가. 아파트는 어디다 지어 {놓았답디까, 놓았다고 합디까}?

[황석영(1980), 어둠의 자식들, 현암사]

나. 어디를 {가신다던가, 가신다고 하던가}?

[김승규(1992), 굴레 쓴 사람들, 한샘출판사]

다. 그 아이도 널 {사랑한다더냐, 사랑한다고 하더냐}?

[러빙유10회]

라. 학교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공부를 {했다더니, 했다고 하더니}?

[채희운(1993), 한평 구휼의 안식, 민음사]

(40) 가. 딸 방이 먼 비밀요새라도 {된답디까, *된다고 합디까}?

[소문난 칠공주01-80회]

나. 카드를 굶었다던가 누굴 {만났다던가, *만났다고 하던가)! 아무것도 없다고!

[히트12회]

다. 글이나 잘 짓지 무엇을 {안다더냐, *안다고 하더냐}?

[이해조 외(1994), 자유중/은세계/설중매/추월색, 마당미디어]

라.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모른다고 하더니}.

[명랑소녀 성공기1-16회]

(39)에 쓰인 ‘-답디까’, ‘-다던가’, ‘-다더냐’와 ‘-다더니’는 ‘-고 하-’의 환원과 선어말어미 ‘-시-’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39)와 달리 (40)에 쓰인 ‘-답디까’, ‘-다던가’, ‘-다더냐’와 ‘-다더니’는 그렇지 못하며 ‘인용’이 아닌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40가)는 ‘딸 방이 먼 비밀요새라도 된다’와 같은 피인용문을 인용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딸 방이 비밀요새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40나)는 ‘누굴 만났다’는 피인용문을 인용한 것이 아닌 ‘카드를 굶는다’는 것과 ‘누굴 만났다’는 것을 예로 나열한 것이다. (40다)는 ‘무엇을 안다’와 같은 피인용문을 인용한 것이 아닌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40라)는 ‘사람 팔자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감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금희(2005:236)에서도 ‘-답디다’는 실제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것을 수사의문문의 형태로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쓰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세한국어사전>에 종결어미 ‘-답디까’와 ‘-다던가’에 관한 해석이 있다.

-답디까

‘-다고 합디까’가 줄어든 말.

1. 남이 들은 과거 사실에 대해 묻는 뜻을 나타냄.

¶ 어찌 되었답디까?

개가 어디 있답디까?

2. [수사 의문문에 쓰이어] 강항 긍정을 나타내는 말.

¶ 개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치를 잘 따졌답디까?

부자가 되면 친척도 귀찮답디까?

-다던가¹

[어미]

하계체의 종결어미. 상대방에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여 말하는 이 자신의 주장을 펴를 나타냄.

¶ 흥, 그 사람들이야 뭐 다른 데 관심이 있다던가.

-다던가²

종결어미.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뜻을 나타냄.

¶ 어느 서양 등산가가 말했다던가, 산이 있으니 올라간다고.

이처럼 (39)에 비해 (40)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인용’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40)과 같이 쓰인 ‘-답디까’, ‘-다던가’, ‘-다더냐’와 ‘-다더니’를 단일어미화가 된 하나의 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인 평서형인 구성의 합쇼체는 ‘-더라고 하더랍니까’이다. 그리고 이의 ‘-고 하-’가 축약되면 ‘-더라더랍니까’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더랍디까’, 하계체는 ‘-더라던가’, 해라체는 ‘-더라더냐’, ‘-더라더니’, 해요체는 ‘-더라테요’, 해체는 ‘-더라테’이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어미 결합형만 다음 <표40>과 같이 정리한다.

<표40> 평서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라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더랍디까 | — | 0 |
| 하계체 | -더라던가 | — | 0 |
| 해라체 | -더라더냐 | — | 0 |
| | -더라더니 | — | 0 |
| 해요체 | -더라테요 | — | 0 |
| 해체 | -더라테 | — | 0 |

5.2.2 의문형 내포절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의문형인 경우에는 내포절이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인 구성의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냐더랍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납디까’, 하계체는 ‘-냐던가’, 해라체는 ‘-냐더냐’이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어미 결합형만 다음 <표41>과 같이 정리한다.

<표41> 의문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냐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납디까 | — | 0 |
| 하계체 | -냐던가 | — | 0 |
| 해라체 | -냐더냐 | — | 0 |
| | -냐더니 | — | 0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2) ‘-더-’가 쓰인 경우

상위절과 내포절은 모두 ‘-더-’가 쓰인 의문형인 구성의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더냐더랍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더납디까’, 하계체는 ‘-더냐던가’, 해라체는 ‘-더냐더냐’와 ‘-더냐더니’이다.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상위절이 의문형인 경우에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도 예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예문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어미 결합형만 다음 <표42>와 같이 정리한다.

<표42> 의문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더냐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더납디까 | — | 0 |
| 하계체 | -더냐던가 | — | 0 |
| 해라체 | -더냐더냐 | — | 0 |
| | -더냐더니 | — | 0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5.2.3 명령형 내포절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명령형인 구성의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으)라더랍니까’이다.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 하오체 어미 결합형인 ‘-답디다’는 해요체나 해체와 함께 쓰여 있으며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본 소절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극히 소량의 예문만 추출되었다. 어미 결합형과 사용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43>과 같다.

<표43> 명령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상위절 \ 내포절 | 어미 결합형 | 단일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라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으)랍디까 | — | 1 |
| 하계체 | -(으)라던가 | — | 3 |
| 해라체 | -(으)라더냐 | — | 9 |
| | -(으)라더니 | — | 0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추출된 예문을 어미 결합형 별로 가져오면 다음 (41)과 같다.

(41) 가. A: 어제 만두 조금 했어요.

B: 또 엄마가 {하랍디까, 하라고 합디까}?

[보고 또 보고 31-40회]

나. 방해하지 {말라던가, 말라고 하던가}?

[영화 리베라메]

다. 누가 너더러 그런 소리 {하라더냐, 하라고 하더냐}?

[이인직(1994), 귀의 성/혈의 누, 마당미디어]

(41)에 쓰인 ‘-(으)랍디까’, ‘-(으)라던가’와 ‘-(으)라더냐’는 앞서 살펴본 ‘-답디까’, ‘-다던가’와 ‘-다더냐’와 달리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므로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5.2.4 청유형 내포절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청유형인 구성의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자더랍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잡디까’, 하계체는 ‘-자던가’, 해라체는 ‘-자더냐’이다. 이

들은 예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44>와 같다.

<표44> 청유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종결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자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잡디까 | — | 0 |
| 하게체 | -자던가 | — | 0 |
| 해라체 | -자더냐 | — | 0 |
| | -자더니 | — | 0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5.2.5 연결형 ‘-(으)려 하-’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연결형 접속절 ‘-(으)려’인 경우에 해당된 합쇼체 어미 결합형은 ‘-(으)려더랍니까’이다. 이 외에 하오체는 ‘-(으)렵디까’, 하게체는 ‘-(으)려던가’, 해라체는 ‘-(으)려더냐/(으)려더니’이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45>와 같다.

<표45> 연결형 내포절 + ‘-더-’가 있는 의문형 상위절

| 내포절 상위절 | 어미 결합형 | 종결어미 | 빈도 |
|------------|-----------|------|----|
| 합쇼체 | -(으)려더랍니까 | - | 0 |
| 하오체 | -(으)렵디까 | - | 0 |
| 하게체 | -(으)려던가 | - | 0 |
| 해라체 | -(으)려더냐 | - | 0 |
| | -(으)려더니 | - | 0 |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5.3 소결

5장에서 상위절이 의문형인 간접인용문 구성과 연결형 접속절 ‘-(으)려 하-’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하여 내포절 유형과 상위절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 단일어미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연구 또는 사전에서 밝히지 않은 어미 결합형에 관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5장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취합하여 다음 <표46>과 같이 나타내어 본다.

<표46> 의문형 상위절인 구성의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 상대 경어법 | -더- 無 | -더- 有 | -더- 無 | | | |
| -더- 無 | 합쇼체 | -답니까 ○ | (-더답니까) | (-납니까) | (-더납니까) | -으랍니다 | (-잡니까) | -으렵니까 |
| | 하오체 | -다오 ○ | (-더라오) | (-냐오) | (-더냐오) | (-으라오) | (-자오) | (-으려오) |
| | 하계체 | -다는가 | (-더라는가) | (-냐는가) | (-더냐는가) | -으라는가 | -자는가 | -으려는가 |
| | 해라체 | -다냐 ○ (-다느냐) -다니 ○ | (-더라냐) (-더라느냐) (-더라니) | -나니 | (-더나니) | -으라냐 -으라니 | (-자냐) -자니 | (-으려냐) (-으려느냐) -으려니 |
| | 해요체 | -대요 ○ | -더래요 | -내요 | (-더내요) | -으래요 | -재요 | — |
| | 해체 | -대 ○ | -더래 | -내 | (-더내) | -으래 | -재 | — |
| -더- 有 | 합쇼체 | (-다더답니까) | (-더라더답니까) | (-나더답니까) | (-더나더답니까) | (-으라더답니까) | (-자더답니까) | (-으려더답니까) |
| | 하오체 | -답디까 ○ | (-더답디까) | (-납디까) | (-더납디까) | -으랍디까 | (-잡디까) | (-으렵디까) |
| | 하계체 | -다던가 ○ | (-더라던가) | (-나던가) | (-더나던가) | -으라던가 | (-자던가) | (-으려던가) |
| | 해라체 | -다더냐 ○ -다더니 ○ | (-더라더냐) (-더라더니) | (-나더냐) (-나더니) | (-더나더냐) (-더나더니) | -으라더냐 (-으라더니) | (-자더냐) (-자더니) | (-으려더냐) (-으려더니) |
| | 해요체 | — | — | — | — | — | — | — |
| | 해체 | — | — | — | — | — | — | — |

[범례]

1. 단일어미화한 형태 뒤에는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표46>을 보면 상위절이 의문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분포에 있어 여러 체계적 특징도 보인다. 체계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둘째,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로부터 형성된 ‘-더라’, ‘-더냐’, ‘-더니’와 ‘-데’ 중에 ‘-더라’, ‘-더냐’와 ‘-더니’는 해라체로만 실현될 수 있고 ‘-데’는 평서형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결형 내포절인 경우에도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해요체와 해체는 각각 ‘-래요’와 ‘-래’로 적을 수 있으나 이들은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쓰이지 못한 발음에 해당된다. 그리고 3장 3.1.5에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체계적 특징 외에 일부 어미 결합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 또는 사전에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다오’, ‘-다는가’, ‘-다냐’와 ‘-대요’는 단일어미화가 되어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다느냐’와 ‘-다냐’ 간에 ‘-다느냐’는 예문이 없고 ‘-다냐’만 예문이 추출되었다. 이는 ‘-느냐/으냐’가 ‘느’ 탈락에 의해 ‘-냐/으냐’로 변화하였고, ‘-냐/으냐’는 다시 이형태 ‘-냐’로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내포절 종결어미 ‘-다’에 ‘-느냐’와 ‘-냐’ 간에 ‘-냐’가 결합되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셋째, ‘-다니’는 ‘원인’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 또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류한 뒤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는 ‘-고 하-’의 환원뿐만 아니라 뒷발화의 유무로 ‘인용’의 어미 결합형과 별개의 종결어미로 분류하였다. 전자에 해당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에 해당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도 이어지지 않는다.

넷째, ‘-냐/(으)라/자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다니’와 동일한 해석을 취할 수 있다. ‘-냐니’는 청자의 정보 요청 의문 발화를, ‘-(으)라니’는 청자의 명령 발화를, ‘-자니’는 청자의 청유 발화를 반복하고 청자에게 되묻는 데 쓰인다.

다섯째, ‘-ㄴ/는’이 통합되지 않은 ‘-다니’는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하고 단일어미화가 된 ‘-다니’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간접인용문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체계에 두는 것보다 별개의 어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섯째,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해라체 ‘-다더냐’의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

지금까지 상위절이 종결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과 그들의 단일어미화 여부를 살펴 보았다. 6장에서는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어떠한 어미 결합형이 있는지, 그들의 단일어미화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연결형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간접인용문 구성의 상위절 동사, 즉 인용동사에 ‘-고’나 ‘-(으)니까’ 등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도 ‘-고 하-’의 축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고 하-고’나 ‘-다고 하니까’는 ‘-고 하-’가 축약됨에 의해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 ‘-다’와 연결어미 ‘-고’나 ‘-(으)니까’가 결합하고 ‘-다고’나 ‘-다니까’로 쓰이게 된다. 이때 ‘-다고’와 ‘-다니까’는 두 개의 어미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는 어미 결합형에 포함된다. 그리고 상위절이 종결형인 경우와 같이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도 단일어미화가 되어 별개의 어미로 쓰인 어미 결합형이 있다.

본 장에서는 ‘-고’와 ‘-(으)니까’를 비롯한 연결어미가 인용동사 ‘하-’에 결합됨으로써 형성된 어미 결합형과 그들의 단일어미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어떠한 어미 결합형이 있는지, 그들의 사용 빈도와 실제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용동사 ‘하-’와 연결형 ‘-(으)려 하-’의 동사 ‘하-’는 어떠한 연결어미와 결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간접인용문의 내포절과 상위절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있고 평서형과 의문형인 경우에 ‘-더-’가 쓰인 경우가 있다는 점, 연결형 ‘-(으)려 하-’가 있다는 점에 의해 여기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은 ‘-다/냐/(으)라/자’, ‘-더-’와 ‘-(으)려’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다/냐/(으)라/자’, ‘-더-’와 ‘-(으)려’로 시작하며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와 결합된 연결어미, 또는 ‘-(으)려’와 결합된 연결어미로 분석될 수 있는 어미 또는 어미 결합형을 추출하였다. 이들을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47>과 같다.

<표47> ‘-다/냐/(으)라/자/더/(으)려’로 시작한 어미 또는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종결어미 | 어미 또는 어미 결합형 |
|-------------|--|
| -ㄴ/는다 | -다고, -다거나, -다니, -다느니, -다니까, -다든가, -다든지, -다면서, -다며 |
| -(느)냐 | -냐고, -냐니, -냐니까, -냐면서, -냐며 |
| -(으)라 | -(으)라거나, -(으)라니, -(으)라느니, -(으)라니까, -(으)라든가, -(으)라든지, -(으)라면, -(으)라면서 |
| -자 | -자니, -자니까, -자든지, -자며, -자면, -자면서 |
| -더 | -더라고, -더라나, -더라느니, -더라니, -더라니까, -더라든지, -더라며, -더라면서 |
| -(으)려 | -(으)려고, -(으)려거든, -(으)려니, -(으)려면 |

<표47>을 통해 어미 결합형을 구성하는 데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연결어미는 ‘-고, -거나, -거든, -(으)니, -(으)니까, -느니, -든가, -든지, -(으)며, -(으)면, -(으)면서’ 모두 11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다/냐/(으)라/자고 하-’와 ‘-(으)려 하-’의 예문을 살펴본 결과 인용동사 ‘하-’와 ‘-(으)려 하-’에 결합된 연결어미 중에 ‘-는데’, ‘-지만’, ‘-더니’와 ‘-던데’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5개의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을 확인하고 단일어미화 양상을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15개의 연결어미 간에 의미가 유사하거나 준말로 해석되고 있는 ‘-(으)면서’와 ‘-(으)며’를, ‘-(으)면’과 ‘-거든’을, ‘-거나’, ‘-든지’와 ‘-든가’를 한 소절로 묶고 논의하고자 한다.

6.1 ‘-고’형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다’는 의미 외에 ‘계기적 관계’와 ‘동작이 지속된 상태에서 다른 동작이 일어남’ 등 의미로 쓰인다.²⁸⁾ 간접인용문 구성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된 연결어미 ‘-고’는 발화 행위와 이후에 이어질 행위를 연결할 경우 쓰이는 것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결어미 ‘-고’와 ‘-다/냐/(으)라/자고 하-’가 결합한 뒤 ‘-고 하-’의 축약에 의해 ‘-다/냐/(으)라/자고’로 쓰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더라/더냐고 하-’와 결합하면 ‘-더라/더냐고’가 형성된다. 연결형 ‘-(으)려 하-’와 결합하면 ‘-(으)려고’가 형성된다. 이를 단일어미화 여부와 함께 다음 <표48>과 같이 정리한다.²⁹⁾ 그리고 본

28)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고’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리-’, ‘-더-’를 제외한 다른 어미 뒤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어미.

¶ 오고 가는 정.

「2」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오빠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는 나가 버렸다.

「3」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라가셨다.

「4」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리-’, ‘-더-’를 제외한 다른 어미 뒤에 붙어)) 서로 뜻이 대립되는 말을 벌여 놓는 연결어미. ‘하다’의 선행 형식이 되게 하거나 명사적으로 쓰이도록 한다.

¶ 누가 우등생이었고 누가 열등생이었고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5」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형용사 어간을 반복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연결어미. 흔히 ‘-고 -은’ 구성으로 쓴다.

¶ 길고 긴 세월.

「6」 ((‘-고 있다’, ‘-고 싶다’, ‘-고 지고’, ‘-고 나다’, ‘-고 보다’, ‘-고 보니’, ‘-고 보면’, ‘-고 말다’, ‘-고 들다’ 등 보조 용언이 있는 구성에서)) 본용언에 붙는 연결어미.

¶ 너 아직도 울고 있구나.

29)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사전에 기재된 어미 결합형과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을 통해 연결어미를 선별한 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 살펴볼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소절에서는 내포절의 유형의 순으로 6.1.1은 ‘-다/냐/(으)라/자고’, 6.1.2는 ‘-더라고/더냐고’, 6.1.3은 ‘-(으)려고’를 살펴보려고 한다.

<표48> 연결어미 ‘-고’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고 | -더라고 | -냐고 | -더냐고 | -(으)라고 | -자고 | -(으)려고 |
| 단일어미 | -다고 | — | -냐고 | — | -(으)라고 | -자고 | — |

6.1.1 - 다/냐/(으)라/자고

‘-다/냐/(으)라/자고’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과 별개의 단일어미로 쓰일 수 있다. 먼저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쓰인 예문은 다음 (42)와 같다.

(42) 가. 다들 인사 {드린다고, 드린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린로즈12회]

나. 왜 안 {돌아오느냐고, 돌아오느냐고 하고} 찾는구나.

[얼마나 좋길래13회]

다. 이걸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고} 만들었니?

[그대, 웃어요36회]

라. 헤어지지 {말자고, 말자고 하고} 나를 못잡아?

[보고 또 보고251-260회]

(42)에서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니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단일어미화가 된 ‘-다/냐/(으)라/자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다고’의 예문을 다음 (43)과 같이 제시한다.

(43) 가. 중학교 때 {친구였다고, *친구였다고 하고} 계속 친구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영화 짱]

나. 니가 뭘 {안다고, *안다고 하고} 함부로 떠들어!

[웃어라 동해야35회]

다. 껌 팔아 몇 푼 {남는다고, *남는다고 하고}.

[이만희,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다.

라. 나 할 일 많아, 꼼짝 말고 못 {있는다고, *있는다고 하고}.

[거짓말05회]

(43가-나)에 쓰인 ‘-다고’는 연결어미, (43다-라)에 쓰인 ‘-다고’는 종결어미이다. 이들은 모두 ‘-고 하-’의 허용하지 않으며 의미적으로도 ‘인용’으로 분석할 수 없다. 연결어미의 경우 (43가)는 중학교 때 친구여서 계속 친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 (43나)는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고’는 선행된 절이 후행된 절의 ‘원인’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다-라)에 ‘-다고’는 문장 종결위치에 쓰이고 있을 뿐더러 (43다)는 낱 팔아서 몇 푼이 남지 않는다는 것, (43라)는 자신이 할 일이 많아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때 ‘-다고’는 종결어미로서 선행된 내용이 강하게 전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인 ‘-다고’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기재된 바 있다.

-다고²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앞 절의 일을 뒤 절 일의 까닭이나 근거로 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얼굴만 예쁘다고 최고인가?

그 녀석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다고 학교에 안 가겠답니다.

「2」 흔히 속담과 같은 관용구를 인용하면서 ‘그말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부모님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지.

-다고³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일러 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2」 해할 자리에 쓰여, ‘너의 말이나 생각이 이런 것이냐?’ 하는 뜻으로 묻는 데 쓰는 종결어미. 빈정거리거나 부정하는 뜻을 떨 때도 있다.

¶ 그게 왜 네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3」 해할 자리에 쓰여, 마음속에 가졌던 어떤 의문의 답이 의외로 별것이 아니었을 때에, 그 의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쓰는 종결어미. 의문이나 긴장 또는 걱정이 해소되었다는 뜻이 암시된다.

¶ 난 또 누가 아프다고.

¶ 난 또 무슨 큰일이나 났다고.

「참고어휘」 -ㄴ다고, -는다고, -라고

또한 단일어미화가 된 ‘-다고’는 여타 어미 결합형에 비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다고’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를 분석하거나 세분화한 연구로는 김홍범(1987), 한길(1991), 전해영(1996), 박재연(2000), 남미정(2010), 이금희(2014), 명정희(2017)가 있다.

먼저 종결어미 ‘-다고’의 의미 기능을 구문 종결의 억양과 결합하여 다룬 논의는 김홍범(1987)과 한길(1991)이다. 김홍범(1987)에서 ‘-다고’는 절종결에 따라 변별적 차이를 나타내며 그 의미를 3가지로 분류해 ‘-다고1(↗)’, ‘-다고2(↘)’, ‘-다고3(↑)’으로 나누었다. ‘-다고1(↗)’은 제3자나 들을이(앞선 발화자)의 발화에 대한 ‘확인물음’, ‘-다고2(↘)’는 상대방의 ‘확인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앞선 발화를 되풀이하여 확인, ‘-다고3(↑)’은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물음법에 해당되며 앞선 발화에 대한 놀라움이나 믿기 어려움과 혼잣말로 타인의 발화 반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³⁰⁾

그리고 한길(1991:119-127)에서는 먼저 ‘-다고’는 종결접미사가 단일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종결접미사가 아닌 각 서법의 종결접미사가 간접인용문에서 중화된 형태인 ‘-는다’에 인용격 토씨 ‘-고’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종결접미사 ‘-다고’ 다음에는 올림의 절종결이 놓이는 경우와 내림의 절종결이 놓이는 경우, 급히올림(↑)의 절종결이 놓이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의 절종결이 놓이는데, 어떤 절종결이 놓이느냐에 따라 용법과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올림의 절종결이 놓이게 되면 앞선 발화 자체에 대한 확인물음을 나타낸 것이고, 내림의 절종결인 경우는 반복요청 질문에 대한 선행발화를 되풀이 서술할 때 사용된 것이고, 급히올림의 절종결이 놓인 경우는 앞선 발화에 대한 놀라움, 먼어지지 않음, 부정적 견해 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¹⁾

이와 달리 화용론적 관점으로 종결어미 ‘-다고’를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해영(1996)과

30) 김홍범(1987)에서 ‘-다고1(↗)’, ‘-다고2(↘)’, ‘-다고3(↑)’의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A: 영수가 공부합니다.

B: 영수가 공부한다고요? (↗)

A: 영수가 숙제를 해.

B: 영수가 숙제를 한다고? (↗)

A: 응. 영수가 숙제를 한다고. (↘)

A: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B: 뭐, 그 사람이 죽었다고? (↑)

31) 한길(1991)에서 제시한 예문은 김홍범(1987)에서 제시한 예문과 유형이 유사하다.

¶ A: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B: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

A: 철수가 밥을 먹는다.

B: 뭐라고?

A: 철수가 밥을 먹는다고. (↘)

A: 철수가 학교 갔습니다.

B: 철수가 학교에 갔다고? (↑)

박재연(2000)을 들 수 있다. 전혜영(1996)에서 종결어미 ‘-다고’의 의미를 ‘반복질문’으로 정리하여 이의 화용론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³²⁾

- ① 미확인 정보에 대한 확인
- ② 발화행위 자체에 대한 확인
- ③ 함축내용에 대한 확인
- ④ 놀라움·의심 표시
- ⑤ 거부·반발 표시
- ⑥ 화제의 전환

박재연(2000)도 화용론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는 Sperber & Wilson(1986/1995)이 제안한 ‘언어의 해석적 용법(interpretive use of language)’의 개념을 이용하여 국어의 ‘-다고’ 류 어미의 화용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앞선 발화를 반복하는 경우 외에 화자가 선행 화자의 발화에 대한 놀람이나 이의와 관련된 태도를 표현하는 데에도 ‘-다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남미정(2010)에서는 의미적 측면에서 연결어미 ‘-다고’의 의미 기능을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이유·근거’를 나타내는 경우와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로 세분화하였다.³³⁾

32) 전혜영(1996)에서 각 화용상 기능에 해당된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 ①미확인 정보에 대한 확인
 - A: 영화가 10월에 결혼한다.
 - B: 영화가 결혼한다고?
- ②발화행위 자체에 대한 확인
 - A: 내일이 아버지 회갑이야.
 - B: 내일이 아버지 회갑이라고?
- ③함축 내용에 대한 확인
 - A: 여기 있던 반지가 어디로 갔지?
 - B: 아니, 그럼 내가 훔쳐갔다고요?
- ④놀라움·의심 표시
 - A: 펜티넘을 백만원에 샀어.
 - B: 뭐, 얼마에 샀다고? / 아니, 백만원에 샀다고?
- ⑤거부·반발 표시
 - A: 아빠, 저 친구 집에 좀 갔다 올게요.
 - B: 뭐, 친구 집에 간다고?
- ⑥화제의 전환
 - A: 어제 영화 재미있었어?
 - B: 응, 생각보다 아주 좋던데.
 - A: 주인공으로 나온 그 친구 연기 잘 하지?
 - B: 그래, 연기 정말 잘 하더라.
 - A: 다음에 그 친구 나오는 영화 있으면 같이 보러 가자.
 - B: 참, 내일 시골집에 간다고?
 - A: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버지 생신이라고.

남미정(2010)은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어미 ‘-다고’를 ‘이유·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다시 강조하여 일러줌’을 의미하는 종결어미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이금희(2014)와 명정희(2017)는 의문문에 쓰인 종결어미 ‘-다고’의 의미 기능이 평서문에 쓰인 종결어미 ‘-다고’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금희(2014)에서는 제3자 또는 청자에게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는 의문문에 ‘-다면서, -다고, 다지’가 쓰인다고 보고 이 세 형태가 사용되는 화용적 조건과 의미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에 ‘-다고’는 상대방의 바로 전 내용을 원발화로 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으로도 쓰이지만 화자가 제3자의 원발화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나 대화 장면이 아닌 곳에서 들은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경우에도 쓰인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다고’ 형태만 가능하고 ‘-냐고, -(으)라고, -자고’ 형태는 쓰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논의에서는 확인 질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다고’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고1’은 순수 앞선 발화 내용에 대한 확인이고 ‘-다고2’는 ‘확인’의 의미는 물론 ‘놀람’, ‘의심’, ‘거부’ 등 의미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고3’도 앞선 발화 내용에 대한 확인을 나타내지만 ‘-다고2’의 원발화자는 청자이고 ‘-다고3’의 원발화자는 제3자인 점이 두 구성을 구분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명정희(2017)에서 의문문에 쓰인 ‘-다고’류의 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태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 중에 의문문에 쓰인 종결어미 ‘-다고’와 일반 의문문 어미와 비교하여 ‘-다고’류 어미가 지닌 증거 양태와 정감 양태를 다루었다. 화자가 청자나 제3자에게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 양태의 의미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였으며 ‘못마땅함, 경계심, 반발심’ 등 부정적 정감 의미는 정감 양태의 하위 의미들이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금희(2014)와 명정희(2017)에서 밝힌 의문문에 쓰인 종결어미 ‘-다고’의 예문을 다음 (44)와 같이 가져와 본다.

- (44) 가. A: 영수가 공부합니다.
 B: 영수가 공부한다고?

[이금희 2014:63]

- 나. A: 어제 철수가 많이 아팠다고?
 B: 네, 열이 40도까지 올랐대요.

[명정희 2017:101]

이처럼 ‘-다고’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과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를 통사·의미적으로 구별하고 명명한 것에 중점을 둔 연구도 있다. 남기심(1973), 이필영(1993)과 채숙희(2023)가 이에 해당된다.

남기심(1973:81-86)에서 ‘-다고’를 비롯한 어미 결합형을 ‘인용’ 기능만 하는 것, 별개의 어미로 쓰이는 것으로 분류하여 전자를 ‘참된 축약형’, 후자를 ‘유사축약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의해 ‘인용’ 기능을 한 ‘-다고’는 참된 축약형에 해당되고 어미 기능을 획득한 ‘-다고’

33) 그 외에 유현경(2001)에서 소위 간접인용문을 부사절의 하위 유형의 하나로 간주하여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기능하는 ‘-다고’를 부사절 어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른 논의에서 ‘-다고’의 의미를 세분화한 것과 달리 연결어미 ‘-다고’와 종결어미 ‘-다고’의 의미를 [정보전달]로 해석하고 있다.

는 유사축약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이필영(1993:176-181)에서는 ‘-다고’를 간접인용문이 절단된 형태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절단’을 다시 ‘환원적 절단형’과 ‘비환원적 절단형’으로 나누었다. 구문 종결위치에 쓰인 ‘-다고’에 대해 ‘확인물음’과 ‘반복대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확인물음’을 나타낼 경우 문말억양은 상승조를 띤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고’가 쓰인 구문에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다고’는 ‘환원적 절단형’에 속한다고 분류하였다. 이처럼 내포질이 의문형, 명령형과 청유형인 경우의 ‘-냐고’, ‘-(으)라고’와 ‘-자고’도 각각 그 기능에 따라 ‘반복질문문, 반복명령문, 반복제안문’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한편, 단일어미화 과정을 겪은 ‘-다고’를 ‘비환원적 절단형’이라 명명하고 종결어미 ‘-다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결어미 ‘-다고’를 ‘비환원적 절단형’으로 판단한 두 가지 통사적 근거는 ‘-다고’ 앞에 선어말어미 ‘-겠-’이 쓰일 수 없는 것과 종결어미에 의문형이 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환원적 절단형인 ‘-다고’ 구문 그 자체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화자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또는 알고) 있는 가운데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숙희(2023)에서는 ‘-다고’가 결합된 절이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닌 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렇게’로 대응되지 않고 ‘뭐라고’나 ‘어떻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 점, ‘고’가 생략되지 않는 점, ‘-다라고’의 연쇄가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하여 ‘-다고’를 별개의 연결어미로 판별하였다.

여기까지 살펴본 사전 해석과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어미로서의 ‘-다고’의 의미 기능을 다음 <표4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³⁴⁾

<표49>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다고’의 의미 기능

| | 의미 기능 |
|------------|--|
| 연결어미 ‘-다고’ | 이유 |
| 종결어미 ‘-다고’ | ① 확인물음 ② 확인물음에 대한 발화 반복 ③ 놀라움, 믿기 어려움, 혼잣말 |

34) 채숙희(2019)에서는 ‘전달 증거서(reported evidentiality)’ 측면에서 여러 의미로 실현되고 있는 ‘-다고’ 중 전달 증거서 표지가 될 수 있는 유형을 밝혔다. 그 중에 ‘확인 물음’으로 쓰이는 ‘-다고’는 정보 출처에 따라 원발화가 청자인 경우와 원발화가 제3자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발화가 청자인 경우에 쓰이는 ‘-다고’를 ‘반복 확인 질문’의 ‘-다고’류로, 이 외에 제스처나 발화에 담긴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데에 사용되는 ‘-다고’를 ‘의도 확인 질문’의 ‘-다고’류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반복 확인 질문’의 ‘-다고’는 ‘놀라움’, ‘믿기 어려움’과 ‘못마땅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단일어미화가 된 종결어미로 간주하고는 한다. 그러나 ‘놀라움’ 등 의미는 ‘-다고’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며 순수한 인용구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반복 확인 질문’의 ‘-다고’류의 경우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인용구문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하는 것은 의미적 기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적 기준이다. 구문의 종결위치에 쓰인 ‘-다고’는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며 ‘-다고’가 쓰인 구문에는 ‘확인물음’, ‘놀라움’과 ‘믿기 어려움’ 등 의미가 드러난다. 이에 의하면 이러한 ‘-다고’를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다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고찰하는 관점과 분석의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단일어미화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일치한 견해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냐/라/자고’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도 ‘-다고’처럼 단일어미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45)와 같은 예문을 보도록 하자.

(45) 가. A: 정말 몰라?

B: (대답하지 않았음)

A: 진짜 우리 대장 {모르냐고, *모르냐고 하고}? 이제 계약서도 쓰고 그랬으니까
진실을 털어놓고 그래?

[1%의 어떤 것5회]

나. A: (그 사람) 그렇게 자주 와요?

B: 의사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온다니까. 와서 자기 할 말만 실컷 하다 갈 거면서. 뭐 자기네 집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둥, 자기가 청소를 잘 한다는 둥,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봤냐고 하고}!

A: 선생님 성격이 점점 변해가시는 것 같아요.

[결혼 못하는 남자5회]

다. A: 아무튼 입어. 걸치고 있어.

B: 싫어요. 이 옷이랑 그거랑 어울려요?

A: 안 어울려도 괜찮으니까 입고 {있으라고, *있으라고 하고}.

[1%의 어떤 것7회]

라. A: 진짜 갔네? 기다려보지도 않고 가냐? 치사하게.

B: 아, 진짜. 나한테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고}!

[검사 프린세스5회]

마. A: 지금 가자.

B: 네?

A: 나 호텔일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핑계대고 {가자고, *가자고 하고}.

[1%의 어떤 것23회]

바. A: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다.

B: 맨날 입으로만 얼렁뚱땅. 대충대충.

A: 그럼 {어쩌자고, *어쩌자고 하고}?

[굿바이 솔로14회]

(45가), (45다), (45마)에서 ‘-냐/라/자고’는 앞선 발화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여 ‘-냐/라/자고’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른바 ‘앞선 발화’의 화자는 현재의 화자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인용’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냐/라/자고’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인용’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거나 말했던 것 또는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했던 것을 전달하는 행위’기 때문에 화자가 화자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여 발화한 것은 ‘인용’이라 할 수 없어서이다. 아울러 이들에서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어 ‘-냐/라/자고’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보다 단일어미화가 된 하나의 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남은 (45나), (45라)와 (45바)에도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며 이른바 ‘앞선 발화’마저 보이지 않다. 또 대화를 통해 의미적으로 화자는 ‘-냐/(으)라/자고’를 통해 자신이 하였던 발화 또는 하려고 할 내용을 비교적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는 (45나), (45라)와 (45바)의 구문을 일반 의문문,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변경하면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45') 나. A: (그 사람) 그렇게 자주 와요?

B: 의사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온다니까. 와서 자기 할 말만 실컷 하다 갈 거면서. 뭐 자기네 집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등, 자기가 청소를 잘 한다는 등,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봤어}!

A: 선생님 성격이 점점 변해가시는 것 같아요.

라. A: 진짜 갔네? 기다려보지도 않고 가냐? 치사하게.

B: 아, 진짜. 나한테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한 거야}!

바. A: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다.

B: 맨날 입으로만 얼렁뚱땅. 대충대충.

A: 그럼 {어쩌자고, *어떻게 하자고 한 거야}?

(45')에서 볼 수 있듯이 ‘-냐/(으)라/자고’ 구문을 일반 의문문,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변경하면 강하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사라지며 비문이 된다. 이는 (45나), (45라)와 (45바)에 쓰인 ‘-냐/(으)라/자고’가 의문형, 명령형과 청유형 내포절인 간접인용문에서 온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일어미화가 된 ‘-냐/(으)라/자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냐고¹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해할 자리에 쓰여, 거듭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혼자 여행 가도 괜찮겠지? 괜찮겠냐고?

「2」 해할 자리에 쓰여, ‘너의 물음이 이런 것이냐?’ 하는 뜻으로 반문(反問)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나더러 슬프냐고?

「참고어휘」 -느냐고, -으냐고

-라고⁴

「어미」

②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알려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바쁘면 어서 가 보라고.

「2」 해할 자리에 쓰여, ‘너의 말이나 생각이 이런 것이냐?’ 하는 뜻으로 묻는 데 쓰는 종결어미. 빈정거리거나 부정하는 뜻을 떨 때도 있다.

¶ 이런 일까지 내가 하라고?

「참고어휘」 -냐다고, -는다고, -다고

-자고⁹

「어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1」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알려 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같이 가자. 함께 가자고.

「2」 해할 자리에 쓰여, ‘너의 말이나 생각이 그런 것이냐?’ 하는 뜻으로 묻는 데 쓰는 종결어미. 빈정거리거나 거부하는 뜻을 나타낼 때도 있다.

¶ 나도 같이 가자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사전에 의해 앞서 살펴본 종결어미로서의 ‘-냐고’는 ‘거듭 물음’, (45나) ‘-냐고’는 ‘반문(反問)’, (45다) ‘-(으)라고’는 ‘주장 강조’, (45라) ‘-(으)라고’는 ‘빈정거림’, (45마) ‘-자고’는 ‘주장 강조’, (45바) ‘-자고’는 ‘빈정거림’을 드러낸다고 귀납할 수 있다.

한편,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구문 중간 위치에 쓰여 있으나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며 ‘인용’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으)라/자고’의 예문을 포착하였다.

(46) 가. 내가 너 {좋으라고, *좋으라고 하고} 내 돈 들이는 줄 알아?

[김지용(1993), 보이지 않는 나라, 새터]

나. 술은요, {취하자고, *취하자고 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여성시대3-4부, 96/05/10]

(46)에서 볼 수 있듯이 ‘-(으)라/자고’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으며 ‘-(으)라고’는 화자의 목적을, ‘-자고’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특히 (46가)에 쓰인 ‘-(으)라고’는 명령형이 불가능한 형용사 ‘좋다’의 어간과 결합되어 있어 명령문의 간접인용문과 어긋난다.³⁵⁾ 이렇게 쓰인 ‘-(으)라/자고’에 대해 본고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이들도 역시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 중에 (46가)에 쓰인 ‘-(으)라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라고⁵⁾이다.

-라고⁵⁾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목적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드시라고 죽을 포장해 오셨다.

잠을 잘 자라고 아이 방의 조명을 어둡게 했다.

「참고어휘」 -으라고

연결어미로 쓰인 ‘-자고’에 관한 사전 해석이 없으나 연결어미 ‘-(으)라고’와 함께 채숙희(2011)에서는 이들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 채숙희(2011)는 연결어미 ‘-라/자고’는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형용사가 선행절 서술어로 쓰이는 점,³⁶⁾ ‘그렇게’로 대신할 수 없으며 의문문에서 ‘뭐라고’나 ‘어떻게’에 대응하지도 않는 점, ‘고’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 ‘-라라고, -자라고’와 같은 연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인용문의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식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고’는 동일 주어 제약을 받으며 선행절에 시제 선어말어미가 쓰일 수 없고,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으)려고, -고자’와 공통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결어미 ‘-라/자고’에 관한 예문을 다음 (47)과 같이 제시하였다.

(47) 가. 거기 음악 감상하라구 만들어 놓은 데 아니에요?

35) 흔히 명령문의 간접인용문 ‘-(으)라고 하-’에 선행될 수 있는 용언 어간은 동사 어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팽이림(2022)에서는 형용사 어간도 ‘-(으)라고’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형용사 어간에 결합된 ‘-(으)라고’를 ‘인용’으로 쓰이는 ‘-(으)라고’와 연결어미 ‘-(으)라고’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 (38가)와 같이 ‘-(으)라고’는 연결어미로 쓰인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아프라고 떼렸다.

예쁘라고 꽃을 달았다.

좋으라고 한약을 사 주었다.

36) 채숙희(2011)에서 ‘-(으)라고’에 형용사 어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으)라고’를 하나의 연결어미로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팽이림(2022)에서 현대 한국어에 동사 중 명령형을 취할 수 없는 동사(예: 흐르다, 뜨다)가 있듯이 형용사 중에도 명령형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며 명령형이 가능한 형용사 어간에 결합된 ‘-(으)라고’는 상위절에 쓰인 동사가 인용동사에 해당된다는 점, 피인용문과 피인용문 화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해 연결어미로 간주하고 있다.

나. 차도는 차 다니라구 있는 데구...

다. 초장에 삼겹살을 굽자고 만든 판이 아닌 것 같애?

라.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 살자고 주님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해 ‘-다/냐/(으)라/자고’는 모두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로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다/라/자고’는 연결어미로도 종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

6.1.2 - 더라/더냐고

6.1.2에서는 평서형과 의문형 내포절에 ‘-더-’가 쓰인 ‘-더라고 하-’와 ‘-더냐고 하-’ 구성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된 후 ‘-고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 ‘-더라고’와 ‘-더냐고’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더라고 하고-’와 ‘-더냐고 하-’ 구문과 ‘-고 하-’가 축약된 구문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더라고 하고’와 ‘-더냐고 하고-’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형성된 ‘-더라고’와 ‘-더냐고’를 찾지 못하였다.³⁷⁾ 그러나 ‘-더라고 하고’와 ‘-더냐고 하고’ 구성의 예문을 만든다면 아래 (48)과 같이 만들 수 있다.

(48) 가. 영민은 철수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 하고 웃었다.

나. 영민은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으시더라고 하고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다. 영민은 회화 수업이 재미있더냐고 묻고 책을 빌려갔다.

라. 영민은 영준이 잘 있더냐고 하고 나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다.

그리고 (48)에 쓰인 ‘-고 하-’를 축약시켜 보면 다음 (48’)과 같다.

(48’) 가. 영민은 철수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 웃었다.

나. 영민은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으시더라고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다. 영민은 회화 수업이 재미있더냐고 책을 빌려갔다.

라. 영민은 영준이 잘 있더냐고 나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다.

(48)과 (48’)을 보면 ‘-더라고 하고’와 ‘-더냐고 하고’ 및 ‘-고 하-’가 축약된 ‘-더라고’와 ‘-더냐고’는 모두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해 비록 말뭉치

37)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더라고’와 ‘-더냐고’는 각각 어미 ‘-더라’와 ‘-더냐’가 격 조사 ‘-고’와 결합된 것이라 ‘-더라고 하고’와 ‘-더냐고 하고’에서 축약되어 온 형태와 다르다. 이들의 예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 그와 같이 가더라고 하던데.

아까는 팬찮은 사람이더라고 했잖아.

선생님께서 철수는 잘 있더냐고 물으셨다.

고향 집에는 별일 없더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다.

에서 (48')과 같은 예문을 추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문법적인 오용이 아니고 오로지 사용 빈도가 낮을 뿐이라는 소결을 내릴 수 있다.

6.1.3 -(으)려고

'-(으)려 하-'와 '-(으)려고 하-'는 모두 행위주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상호적 교체가 가능해 보인다. 이로 인해 '-(으)려고'는 '-(으)려 하고'가 아닌 '-(으)려고 하-'에서 '하-'가 축약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손세모돌(1997)과 양지현(2013)에는 '-(으)려 하-'와 '-(으)려 하고'에서 축약된 '-(으)려고'는 '-(으)려고 하-'보다 먼저 등장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³⁸⁾ 이에 의해 본 소절에서 다룰 '-(으)려고'는 '-(으)려고 하-'에서 '하-'가 축약되어 온 것이 아닌 '-(으)려 하고'에서 '하-'가 축약되고 '-(으)려'와 '-고'가 남아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으)려 하고'와 '하-'가 축약된 '-(으)려고'의 예문(49)을 보면 어미 결합형 '-(으)려고'는 '-(으)려 하고'에 비해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9) 가. 그저 남과 같이 {되려 하고, 되려고}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주어진 역할 하는 제한다.

[김홍규, 윤구병(1993), 왜 사냐고 물으면, 한샘출판]

다. 그 풍류와 전통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교통하려 하고, 교통하려고} 혼합하려 한다.

[신석초*1985], 시는 늙지 않는다. 용성 출판]

(49)에 '하-'가 보유했던 기본형에서 '하-'가 축약되어도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으)려고'는 연결형 '-(으)려 하-'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임이 확실하다.

6.2 '-(으)면서, -(으)며'형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으)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의 의미와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⁹⁾ 논의의 편의상 전자의 의미를 '동시의 관계', 후자의 의미를

38)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3.1.5에서 인용하였으므로 본 소절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39)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으)면서'와 '-(으)며'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으)면서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ㄹ -며.

¶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2」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맞서는 관계’로 해 둔다. ‘-(으)면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 간접인용문 구성에 해당된 발화행위와 ‘-(으)면서’로 연결된 부분에 해당된 사태가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고,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 간접인용문 구성에 해당된 발화행위와 ‘-(으)면서’로 연결된 부분에 해당된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으)면서’와 같이 ‘동시의 관계’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미인 ‘-(으)며’가 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으)며’는 ‘동시의 관계’ 외에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한다’는 의미가 있어 설명의 편의상 이를 ‘나열’이라고 부른다.⁴⁰⁾ ‘-(으)며’는 ‘나열’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피인용문과 후행하는 상황이 나열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결어미 ‘-(으)면서’와 ‘-(으)며’는 ‘-다/냐/((으)라/자고 하-’와 결합되어 ‘-다/냐/((으)라/자면서’와 ‘-다/냐/((으)라/자며’가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와 결합되어 ‘-더라/더냐면서’와 ‘-더라/더냐며’가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와 결합하면 ‘-(으)려면서’와 ‘-(으)려며’가 형성된다. 이를 단일어미화 여부와 함께 다음 <표50>과 같이 제시한다. 그리고 본 소절에서 내포절의 유형의 순으로 6.2.1은 ‘-다/냐/((으)라/자면서’와 ‘-다/냐/((으)라/자며’, 6.2.2는 ‘-더라/더냐면서’와 ‘-더라/더냐며’, 6.2.3은 ‘-(으)려면서’와 ‘-(으)려며’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50> 연결어미 ‘-(으)면서’와 ‘-(으)며’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면서 | -더라면서 | -냐면서 | -더냐면서 | -(으)라면서 | -자면서 | -(으)려면서 |
| 단일어미 | -다면서 | -더라면서 | -냐면서 | — | -(으)라면서 | -자면서 | — |
| 어미 결합형 | -다며 | -더라며 | -냐며 | -더냐며 | -(으)라며 | -자며 | -(으)려며 |
| 단일어미 | -다며 | -더라며 | -냐며 | — | -(으)라며 | -자며 | — |

6.2.1 - 다/냐/((으)라/자면서, -다/냐/((으)라/자며

「참고 어휘」 -으면서

40) -(으)며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 어간, ‘르’받침인 용언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미.

¶ 이것은 감이며 저것은 사과이다.

남편은 친절하며 부인은 인정이 많다.

「2」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

¶ 그는 시인이며 교수이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며 운동도 잘한다.

「참고 어휘」 -으며

‘-다/냐/(으)라/자면서’와 ‘-다/냐/(으)라/자며’ 중에 ‘-다/(으)라/자면서’와 ‘-다/(으)라/자며’ 인 경우는 ‘-냐면서’, ‘-냐며’와 다르므로 ‘-다/(으)라/자면서’와 ‘-다/(으)라/자며’가 단일어미 화가 된 경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별개의 어미로 쓰인 이들의 예문부터 다음 (50)과 같이 가져와 본다.

(50) 가. 둘이 좋아 {죽는다면서, *죽는다고 하면서}.

[2009 외인구단8회]

나. 애인도 {생겼다며, *생겼다고 하며}!

[황금신부11회]

다. 짹 짹 {주무르라면서, *주무르라고 하면서}?

[가문의 영광47]

라. 맥주 {마시자면서, *마시자고 하면서}?

[웨딩드레스11회]

마. 당분간 만나지 {말자며, *말자고 하며}?

[강남엄마 따라잡기11회]

(50)에 쓰인 ‘-다/(으)라/자면서’와 ‘-다/(으)라/자며’는 구문 종결위치에 쓰여 있으며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화자가 들은 발화를 ‘-다/라/자면서’와 ‘-다/라/자며’로 반복함으로써 청자에게 그 발화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50가)의 발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화자는 ‘둘이 좋아 죽는다.’와 같은 발화를 듣고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난 뒤, 화자가 들은 발화의 내용과 다른 상황을 목격하고 겪고 있을 경우에 청자에게 해당 발화의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50가)를 발화한다. 화용론적으로 해석하자면 (50가)는 ‘둘이 좋아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두 사람 하나도 안 친해 보인 게 어떻게 된 일이야?’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일어미화가 된 ‘-다/(으)라/자면서’와 ‘-다/(으)라/자며’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석한 바를 찾아볼 수 있다.

-다면서

「준말」 -다며

[I]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쓰는 종결어미. 흔히 다짐을 받거나 빈정거리는 뜻이 섞여 있다.

¶ 그 집 요새 형편이 퍽 좋다면서?

돈이 없어 못 살겠다면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참고어휘」 -ㄴ다면서, -는다면서, -라면서, -자면서

그리고 ‘-(으)면서’와 ‘-(으)며’ 간에 ‘-(으)면서’가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홍범(1987), 이필영(1993), 전해영(1996), 김수태(2001), 서희정(2013), 이금희(2014)와 구종남(2020)이 해당된 것들이다. 이 중에 사전보다 ‘-다/라/자면서’의 의미를 세분화한 논의로는 김홍범(1987), 전해영(1996), 김수태(2001), 이금희(2014)와 구종남(2020)이 있다. 김홍범(1987)에서 앞선 발화자의 발화 내용과 그 행동이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말할이가 앞선 발화자(들음이)에게 ‘-다면서’를 사용하여 ‘확인물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확인물음’ 외에 ‘따짐’ 또는 ‘비웃음’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김홍범(1987)과 같이 ‘-다/라/자면서’는 ‘확인’과 ‘따짐’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한 논의는 전해영(1996), 이금희(2014)와 구종남(2020)이 있다. 이 중에 전해영(1996)에서 ‘-다면서’는 발화 상황 이전에 화자에게 한 청자의 발화나 제3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확인 질문할 때 사용되며 ‘확인’ 외에 ‘따짐’과 ‘화제 전환’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금희(2014:71-72)에서 ‘-다면서’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발화한 내용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인 청자에게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종결어미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때는 들은 정보에 대한 ‘내용 확인’이 ‘-다면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면서’의 두 번째 의미 기능은 화자와 청자의 말이나 행동이 이전의 발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따짐, 질책, 못마땅함’ 등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때 원발화가 제3자의 것이 아닌 청자의 발화라는 점이 첫 번째와 다르고, 또한 억양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하강상승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구종남(2020)에서 종결어미가 된 ‘-다면서’를 ‘확인’, ‘빈정댐’과 ‘환기’ 세 가지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각 의미 기능이 나타난 구문상의 특징을 밝혔다. 먼저 ‘확인’을 나타내는 ‘-다면서’ 구문의 문말 억양은 상승조로 쓰이며 청자에게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빈정댐’을 나타내는 ‘-다면서’ 구문에 화자는 청자가 이전에 한 말과 실제의 상황이 다를 때 소위 ‘빈정댐’ 뜻을 표출한다. 마지막은 ‘확인’과 ‘빈정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종결어미 ‘-다면서’가 있는데 해당 구문 뒤에 가벼운 하강조의 문말 억양이 놓인다. 이때 ‘-다면서’는 화자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정보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들과 달리 서희정(2013)에서는 인용정보 경로를 초점으로 하여 인용문 형식에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어미의 인용 정보와 의미 기능을 ‘인지 경로’, ‘인지 유무’와 ‘정보 내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다면서’는 외부로 통해 얻은 정보를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경우와 청자에게 정보를 얻어 질문하는 경우에 나눠 쓰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분석의 초점과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다/라/자면서’는 종결어미로 단일어미화가 되었다는 것과 대체적으로 알거나 들은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라/자면서’와 ‘-다/라/자며’에 비해 내포질의 의문형인 구성에서 비롯한 ‘-냐면서’와 ‘-냐며’도 단일어미화를 통해 별개의 어미로 쓰일 수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어미로 쓰인 ‘-다/라/자면서’, ‘-다/라/자며’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먼저 이필영(1993)과 김수태(2001)에는 의문형 내포절인 ‘-냐면서’는 하나의 어미로 쓰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필영(1993:154)에서 ‘-다면서’류는 원발화의 내용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원발화가 의문형인 ‘-느냐면서’일 경우에는 원발화 내용의 사실성을 가릴 수 없다. 이로 인해 ‘-냐면서’는 비환원적 융합형, 즉 문법화된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할 때 ‘-다면서’ 형태만 가능한 것이다.

김수태(2001:13)에서 ‘-느냐면서’는 융합씨끝으로 쓰이는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의 이유는 융합씨끝의 기능에 있다고 하였다. 먼저 융합씨끝 ‘-다면서, -오라면서, -자면서’는 말할이가 ‘일(event)’을 언어화하여 맨마디를 짜이룬 것이 아니라 들을이나 제3의 인물이 발화한 것을 반복하여 인사말을 대신 하거나 발화내용의 사실성을 다시 확인함을 드러내는 의향법씨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의문문의 올림 억양을 가지지만 말할이가 들을에게 정보나 지식을 요구하는 의문문 본래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느냐’가 실현된 구문은 지식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므로 들을이나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문문을 반복하여 인사말을 대신하거나 발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느냐면서’가 융합씨끝으로 쓰이지 못한 이유라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한 ‘-냐면서’와 ‘-냐며’의 예문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다른 쓰임을 발견하였다. 먼저 이들이 쓰인 대화를 다음 (51)과 같이 제시한다.

- (51) 가. A: 왜 바쁜 사람 오라 가라야?
 B: 이젠 볼 일 다 봤다 이거지?
 A: 네 사정 봐줘서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너 안면 싹 바꾸는 거 보니까 인간성이 글러먹어서 안되겠다.
 B: 내가 무슨 안면 바꿨다고 그래?
 A: 친구가 만나자는데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냐면서, *오라고 가라고 하면서}?
 [가문의 영광25회]

- 나. A: 옷이 다 젖었는데 어떡하라고요!
 B: 그럼 집엔 어떻게 갈 건데요?
 A: 물 똑똑 흘리면서 갈 순 없잖아요!
 B: (박스티와 트레이닝 바지 내미는) 자요!
 A: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내 몸에?
 B: 그럼 계속 벗고 있겠다고요?
 A: 의사라면서! 보면 좀 {어떠냐면서, *어떠냐고 하면서}!

[닥터챗프04회]

다. A: 너 돈 좀 있지?
 B: 먹어 먹어. 맛나겠다. 이거 내가 갖다 준 나물이지?
 A: 돈 좀 있냐고 기집애야!
 B: 내가 돈이 어딴냐. 먹고 죽을래도 없지.
 A: 이영선, 너 우리가 {남이냐며, *남이냐고 하며}!

[개인의 취향02회]

라. A: 못 견디겠으면 뛰어내리든가.
 B: (대답하지 않았음)
 A: 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졌을 때, 죽고 싶다고 너한테 미국으로 전화했을 때 너도 나한테 그랬어. 한강은 겨울이라 추우니까 약 같은 거로 하라고. 병원에서 그런 약 훔치는 건 일도 아니지 {않냐면서, *않냐고 하면서}?
 B: 나가. 이 나쁜 기지배야.

[가문의 영광06회]

‘-고 하-’의 환원 여부부터 확인한다면 (51)에 쓰인 ‘-냐면서’와 ‘-냐며’는 ‘-고 하-’가 환원되면 구문이 비문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는 청자에게 들은 발화를 반복함으로써 청자에게 확인한다는 것, 대화에서 청자의 발화를 찾아보거나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다/라/자면서’, ‘-다/라/자며’의 경우와 같다. 이에 의해 ‘-냐면서’와 ‘-냐며’도 단일어미화가 된 하나의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필영(1993)과 김수태(2001)에 원발화인 의문문은 청자에게 정보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가릴 수 없음으로 인해 ‘-냐면서’나 ‘-냐며’의 ‘반복’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거나 발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39)에 쓰인 ‘-냐면서’와 ‘-냐며’의 원발화는 정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의문문이다.⁴¹⁾

(51)에 청자의 발화를 보자면 (51가)는 ‘왜 바쁜 사람 오라 가라야?’는 정말로 이유를 묻는 다기보다 상대방이 오라고 가라고 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드러난다. (51나)는 문맥에 보이지 않으나 ‘-냐면서’ 구문을 통해 청자는 ‘보면 좀 어떠냐?’와 같은 발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면 좀 어떠냐?’는 어떠냐고 묻는 것이 아닌 보아도 괜찮다는 의미인 것이다. (51다)도 마찬가지로 청자는 ‘우리가 남이냐?’와 같은 발화로 화자에게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51라)에 청자가 과거에 한 발화는 ‘그런 약 훔치는 건 일도 아니지 않냐?’일 텐데, 이는 역시 화자에게 질문한다기보다 그런 약 훔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의미로 발화한 것이다. 이처럼 (51)에 ‘-냐면서’와 ‘-냐며’ 구문의 청자

41) 강규영(2022)에서 의문문은 질문의 간접 화행을 나타내는 문장 유형이지만 다음 예문처럼 단언(assertion)/진술(statement)의 간접 화행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화행의 의문문은 대체로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으로 묶여 기술한다고 하였다.

¶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내가 애야? 그런 것도 모르겠어?

가 한 발화는 모두 수사의문문에 해당된다.

또 양명희(1991), 이창덕(1992)과 강규영(2022)에서 이러한 수사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한 긍정 진술 또는 단언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수사의문문은 통사적으로 의문문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의미적으로 평서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51)에 쓰인 ‘-냐면서’와 ‘-냐며’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반복한 것이 아닌 평서문을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라/자면서’, ‘-다/라/자며’와 의미적 관점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냐면서’와 ‘-냐며’는 이필영(1993)과 김수태(2001)에서 정보나 지식을 요구하는 의문문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모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발화 분류에 있어 논의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단일어미화가 된 ‘-다/(으)라/자면서’와 ‘-다/(으)라/자며’는 청자 또는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의 진술 여부를 청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데 쓰인다고 하였는데, (51)처럼 쓰인 ‘-냐면서’와 ‘-냐며’는 들은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청자의 발화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냐면서’와 ‘-냐며’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과거에 해당 발화를 하였느냐를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51)에 쓰인 ‘-냐면서’와 ‘-냐며’는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다는 점과 ‘인용’이 아닌 ‘확인’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 의해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아울러 어미로 쓰이는 ‘-냐면서’와 ‘-냐며’는 평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사의문문을 반복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6.2.2 -더라/더냐면서, -더라/더냐며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더라면서’와 ‘-더라며’의 예문만 추출하였고 ‘-더냐면서’와 ‘-더냐며’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더라면서’와 ‘-더라며’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이는 앞 소절에서 살펴본 ‘-다면서’와 ‘-다며’의 경우와 같은 해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추출된 예문을 다음 (52)과 같이 제시한다.

(52) 가. {만만찮더라면서, [?]만만찬더라고 하면서}?

[에덴의 동쪽5회]

나. 보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더라며, [?]떨어지더라고 하며}. 뭘 고민해.

[9회말 2아웃12회]

다. 잘 생기고 키 크고 사람 {좋아보이더라며, [?]좋아보이더라고 하며}.

[진실1-16회]

(52)에 쓰인 ‘-더라면서’와 ‘-더라며’는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서와 의문문의 종결위치에 쓰여 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이들은 화자가 청자의 발화를 반복하여 청자에게 ‘확인물음’이나 ‘따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2)에 의해

청자의 발화를 유추할 수 있다. (52가)의 경우 ‘만만찮더라.’, (52나)의 경우 ‘보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더라.’, (52다)의 경우 ‘잘 생기고 키 크고 사람 좋아보이더라.’와 같은 발화는 대화 속 청자의 발화일 것이다. 따라서 (52)에 쓰인 ‘-더라면서’와 ‘-더라며’는 ‘인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종결어미 ‘-더라면서’의 해석도 이와 동일해 보인다.

-더라면서

[준말] -더라며

[I] 「어미」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쓰이는 종결어미. 흔히 다짐을 받거나 빈정거리는 뜻이 섞여 있다.

¶ 그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면서?

사전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자면 화자는 주어인 ‘그 사람이’에게 ‘마음에 들더라.’와 같은 발화를 들었고 ‘그 사람이’에게 발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라면서’과 ‘-더라며’는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인용’의 의미가 사라지고 ‘확인’이나 ‘다짐’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 의해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더라면서’ 및 ‘-더라며’와 달리 ‘-더냐면서’와 ‘-더냐며’의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단일어미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내포절에 ‘-더-’가 쓰인 간접인용문이 문법적으로 오용이 아닌 점에 의해 해당 간접인용문에서 형성된 ‘-더냐면서’와 ‘-더냐며’는 문법적 제약이 아닌 사용 빈도가 낮음으로 인해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2.3 -(으)려면서, -(으)려며

6.2에서 참고한 사전 해석에 의하면 ‘-(으)려면서’는 ‘동시의 관계’와 ‘맞서는 관계’를, ‘-(으)려며’는 ‘동시의 관계’와 ‘나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예문(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가. 던지다 {멈추려면서, 멈추려 하면서} 백사리 내고...

[커피하우스06회]

나. 니 멋대로 {살려면서, 살려 하면서} 왜 또 기어들어와?

[영화 싸움의 기술]

다. 자연스러운 척 {넘어지려며, 넘어지려 하며} 미남을 밀치려는데...

[미남이시네요15회]

라. {침착하려며, 침착하려 하며} 차에 오른다.

[귀여운 여인01-10회]

(53가-나)에 쓰인 ‘-(으)려면서’는 각각 ‘동시의 관계’와 ‘맞서는 관계’를 나타낸다. (53가)에 ‘땀추다’는 행위는 ‘뺨사리 내다’는 행위와 동시의 관계에 해당되고 (53나)에 ‘살다’와 ‘기어들어오다’는 맞서는 관계에 해당된다. 이 중에 (53나)에는 ‘-(으)면서’에 후행하는 절이 청자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이때 화자는 청자가 ‘멋대로 살다’는 ‘의도’를 위해 ‘기어들어오다’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청자가 ‘기어들어오다’는 행위를 취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닦한 것이다. 이 외에 (53다)에 ‘넘어지다’는 행위와 ‘밀치다’는 행위는 나열의 관계에 속한다. 그러나 (53)에 쓰인 ‘-(으)려면서’와 ‘-(으)려면’은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어미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6.3 ‘-(으)면, -거든’형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으)면’의 해석을 참고하면 이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가정’과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⁴²⁾ ‘-(으)면’은 ‘가정’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 화자는 피인용문 청자가 간접인용문으로 인용된 발화를 하는 것을 가정한다는 의미고, ‘조건’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 화자는 피인용문 청자의 발화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한편, 연결어미 ‘-(으)면’과 같이 ‘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든’이 있다.⁴³⁾

42)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으)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으)면¹⁰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뒤에 붙어))

「1」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비가 오면 눈을 갈자.

이 옷이 크면 형에게 줘야지.

「2」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

「3」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 눈이 오면 좋을 텐데.

약속만 취소되면 집에서 쉴 수 있을 텐데.

「4」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단순한 근거 따위를 나타내거나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녀는 눈만 뜨면 책을 읽는다.

「참고 어휘」 -으면

43)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거든’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거든²

「어미」

「1」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그분을 만나거든 꼭 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세요.

「2」 앞 절의 사실과 뒤 절의 사실을 비교하여, 앞 절의 사실이 이러하니 뒤 절의 사실은 더욱 당연히 어떠 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흔히 뒤에는 의문 형식이 온다.

이러한 ‘-(으)면’과 ‘-거든’은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되면 ‘-다/냐/(으)라/자면’과 ‘-다/냐/(으)라/자거든’이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에 결합되면 ‘-더라/더냐면’과 ‘-더라/더냐거든’이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되면 ‘-(으)려면’과 ‘-(으)려거든’이 형성된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다면’과 ‘-다거든’의 예문을 모두 추출하였으나 ‘-다면’만 단일어미화가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거든’은 다음 (54)와 같이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다.

(54) 가. 술을 {사준다거든, 사준다고 하거든} 처자식 굶겨놓고 먹겠느냐고 대전을 달라지.
 [엄상섭(2011), 삼대, 알지더복스]
 나. 창배가 {만나자거든, 만나자고 하거든} 만나지 마.

[연인19회]

다. 거짓말을 {하려거든, 하려고 하거든} 좀 더 치밀하게 해라.

[불꽃11-20회]

이로 인해 본장에서는 ‘-거든’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을 제외하고 ‘-(으)면’이 결합된 어미 결합형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어미 결합형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표51>과 같다. 그리고 본 소절에서도 내포절의 유형의 순으로 6.3.1은 ‘-다/냐/(으)라/자면’, 6.3.2는 ‘-더라/더냐면’, 6.3.3은 ‘-(으)려면’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51> 연결어미 ‘-(으)면/거든’과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면 | -더라면 | -냐면 | -더냐면 | -(으)라 면 | -자면 | -(으)려면 |
| 단일어미 | -다면 | — | — | — | — | -자면 | — |
| 어미 결합형 | -다거든 | -더라거든 | -냐거든 | -더냐거든 | -(으)라 거든 | -자거든 | -(으)려거든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6.3.1 - 다/냐/(으)라/자면

‘-다/냐/(으)라/자면’ 중에 ‘-다/자면’은 단일어미화가 되어 별개의 어미로 쓰일 수 있고 ‘-냐/(으)라면’은 오로지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쓰일 수 있다. 먼저 단일어미화가 된 ‘-다/자면’의 예문을 다음 (55)와 같이 가져와 본다.

¶ 까마귀도 어미의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느냐?

(55) 가. 통찰력을 {갖는다면, *갖는다고 하면} 그 미래는 밝다.

[한겨레신문 칼럼(93), 한겨레신문사]

나.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면, *받는다고 하면} 무엇보다 기쁘겠다.

[중앙일보 문화(2002), 중앙일보사]

다. 거기까지 {걸어가자면, *걸어가자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윤후명(1992),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민음사]

라. 포괄적으로 {관리하자면, *관리하자고 하면} 너무 규모가 커져버린다.

[김용운(1985),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길사]

(55)에서 볼 수 있듯이 ‘-다/자면’은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다. 그리고 구문을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다면’은 ‘가정’과 ‘조건’을, ‘-자면’은 ‘가정’과 ‘결과’를 나타낸다. ‘가정’이라는 의미는 (55)에 쓰인 ‘-다/자면’을 ‘가정’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으)면’으로 교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55') 가. 통찰력을 가지면 그 미래는 밝다.

나.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으면 무엇보다 기쁘겠다.

다. 거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라.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너무 규모가 커져버린다.

그리고 (55가)에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가 밝다는 것의 조건이고 (55나)에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쁘겠다는 것의 조건이다. 또 (55다)에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것은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의 결과이고 (55라)에 너무 규모가 커져버린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의 결과이다. 이처럼 ‘-다/자면’은 공통적으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각기 ‘조건’과 ‘결과’의 의미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일어미화로 연결어미로 쓰이게 된 ‘-다/자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기재된 바 있다.

-다면²

[I]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내가 너처럼 건강하다면 좋겠다.

만일 어제 서울에 눈이 왔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참고어휘」 -ㄴ다면, -는다면, -라면, -자면

-자면³

[I] 「어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의도하거나 해야리는 바를 가정하여 뒤의 결과적 사실에 이어 주는 연결어미.

¶ 이 일을 오늘 끝내자면 바빠 서둘러야겠다.

날이 밝자면 두 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근거로 하여 (55)에 쓰인 ‘-다/자면’은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연결어미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 ‘-다면’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남기심(1973), 이광호(1980), 전해영(1984), 이희자·이중희(2002), 이금희(2005)가 해당된 논의들이다. 남기심(1973)에서 ‘인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면’을 ‘참된 축약’, ‘인용’의 기능이 사라진 ‘-다면’을 ‘유사 축약’으로 분류하였다. 이금희(2005)에서도 ‘-다면’의 의미 기능을 이분화했는데 ‘-다고 하면’으로 환원이 가능한 ‘-다면’은 어떤 발화된 내용이 전제 조건이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그렇지 못한 ‘-다면’은 ‘화자의 가정된 사실’이 조건이 되는 쓰임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연구와 달리 ‘-다면’과 ‘-(으)면’의 의미적 비교를 통해 ‘-다면’의 의미 기능을 밝힌 연구는 이광호(1980), 전해영(1984), 이희자·이중희(2002)이다. 이광호(1980)는 이정민(1979)에서 현실성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조건에 ‘-(으)면’을 쓴다는 논의에 대해 조건 인식이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주관적인 조건’의 경우 ‘-(으)면’을 쓰고 ‘객관적인 조건’의 경우 ‘-다면’을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냐에 대한 판단은 형태적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보다 더 나아가 ‘-다면’과 ‘-(으)면’을 형태·통사적 기준으로 구분을 시도한 논의는 전해영(1984)이다. 전해영(1984)은 아래 (56)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여 ‘-다면’ 구문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56) 가. 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나?

a. (그가) 책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나?

b. 만약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나. 철수가 간첩이라면 곧 잡자!

a. (어떤 정보 제공자가) 철수가 간첩이라고 (말)하면, 곧 잡자.

b. 철수가 간첩이면 (간첩인 것이 밝혀지면) 곧 잡자.

그리고 a와 b 간에 어느 해석을 적용하는지는 ‘하-’ 동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하-’를 대동사(말하다, 설명하다, 주장하다 등)로 보는 경우 ‘-다면’은 a의 뜻을, ‘하-’를 형식동사(가정하다, 생각하다 등)로 보는 경우 ‘-다면’은 b의 뜻을 가지

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면’은 보문구조 ‘-다고 하면’(서술형 종결어미 ‘-다’ + 보문자 ‘-고’ + 대동사 ‘하-’ + 접속어미 ‘-(으)면’)의 축약으로서 ‘하-’ 동사가 어떤 보문동사의 대동사인가에 따라 뜻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해영(1984)에서 ‘-다면’은 ‘-겠-’과 결합된 경우 ‘하-’를 대동사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때 ‘-겠-’은 보문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위절 동사를 ‘가정하다’ 등으로 상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까지 살펴본 논의를 종합해 보면 (43)a의 의미로 해석된 ‘-다면’은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발화에 대한 가정’을, (56)b의 의미로 해석된 ‘-다면’은 별개의 연결어미로 ‘비발화의 상황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고 정리해 둘 수 있다. 결국 ‘-다면’은 ‘인용’의 어미 결합형과 별개의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 (56)에서 확인한 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자면’에 대해서는 이금희(2005)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금희(2005:227)는 별개의 어미로 쓰인 ‘-자면’이 ‘-자 하면’에서의 청유의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이라는 주어의 의도가 조건이 됨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56)과 같이 ‘-자면’을 ‘-(으)려면’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입증해 주었다.

- (57) 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면, 시작하려면} 돈이 꽤 들 것이다.
나. 국에서 제맛이 {나자면, 나려면} 두어 시간은 끓어야 할 거야.
다.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면, 벗어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또한 (57)에 쓰인 ‘-자면’은 별개의 어미이므로 선행하는 절의 주어는 1인칭, 2인칭과 3인칭은 모두 가능하고 청유형 어미 ‘-자’가 1인칭 복수 ‘우리’만 가능한 점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의 주어는 항상 유정물이 되어야 하는데, 어미 ‘-자면’은 (57)에서 볼 수 있듯이 무정물이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냐/(으)라면’에 대해 사전과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들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다음 예문(58)을 통해 살펴보자.

- (58) 가. 무슨 {말이나면, 말이나고 하면} 장집사 후임은 누가 뭐래도 나란 애기지.
[아가씨를 부탁해02회]
나. {왜냐면, 왜냐고 하면} 이 교수님의 이 프로젝트 반은 내가 한 거니까.
[카이스트09회]
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으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이 죽일놈의 사랑13회]
라. 나 같으면 이 비좁은 방에 하루라도 {있으라면, 있으라고 하면} 미치고 말텐데.
[김영현(1992), 해남 가는 길, 솔]

앞서 정리한 ‘-다면’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인 ‘발화에 대한 가정’과 ‘비발화의 상황에 대한

가정'을 (58)에 적용하면 (58)에 쓰인 '-냐면'과 '-(으)라면'을 '발화에 대한 가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58가)를 예로 들면 화자가 '무슨 말이나면'은 발화를 한 이유는 청자가 이렇게 발화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58)에 쓰인 '-냐/(으)라면'은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간주해야 한다.

6.3.2 - 더라/더냐면

앞서 '-다/냐면'은 '발화에 대한 가정' 또는 '비발화의 상황에 대한 가정'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포절에 '-더-'가 쓰인 '-더라/더냐면'도 동일한 해석을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부터 보려고 한다.

(59) 가. 우습지만 널 먼저 {만났더라면, *만났더라고 하면}, 널 짝사랑했을지도 몰라.

[궁 9회]

나. 형님,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결혼했더라고 하면}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을 걸.

[나하나(1987), 캠퍼스의 비망록6, 신세기코믹스]

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알았더라고 하면}, 난 더 불행해졌을 거야.

[눈꽃12회]

라.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계셨더라고 하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김현희(1991),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2, 고려원]

마.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죽었더라고 하면} 널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영화 단적비연수]

(59)에서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보다 흥미로운 것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에 쓰인 '-더라면'은 모두 '-었더라면'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 하-'는 환원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일어미화가 된 것은 '-더라면'이 아닌 '-었더라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더라면'은 하나의 어미라면 (59)에 쓰인 '-었더라면'은 '-었-'과 '-더라면'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59)에 쓰인 '-었더라면'을 '-더라면'으로 교체하여 다음 (59')과 같이 나타내어 본다.

(59') 가. *우습지만 널 먼저 만나더라면, 널 짝사랑했을지도 몰라.

나. *형님,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더라면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을 걸.

다. *좀 더 일찍 알더라면 난 더 불행해졌을 거야.

라. *부모님이 계시더라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마. *그때 내가 죽더라면 널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59')에서 볼 수 있듯이 '-었더라면'을 '-더라면'으로 교체하는 것은 구문이 비문이 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59)에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더라면'이 아닌 '-었더라면'임을 알려준다. 또한 (59)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용'과 무관한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쓰이는 '-었더라면'에 관한 해석은 이희자·이종희(2002)와 양정석(2022)에 있다. 이희자·이종희(2002)는 '-었더라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태와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는 '반현실(counter-realis, counter-factuality)'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쓰인다고 하였다. 양정석(2022)은 '-었더라면'이 연결어미로서의 어휘의미는 진리조건적 함수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었더라면'은 하나의 통사 단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며 발화시 이전의 인식시 조건을 가지는 연결어미 또는 반사실성 전제를 가지는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⁴⁴⁾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은 '-었더라면'을 고찰하는 시각이 다르지만 '-더라면'이 아닌 '-었더라면'이 하나의 어미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처럼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내포절에 '-더-'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더라면서'는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고 단일어미화가 되어 늘 '-었더라면'으로 쓰인다는 점이 다른 어미 결합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전과 기존 연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더냐면'은 말뭉치에도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었더라면서'가 쓰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냐면'도 문법적 제약이 아닌 단순히 사용 빈도가 극히 낮아서 예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리해 둘 수 있다.

6.3.3 -(으)려면

'-(으)려'은 행위 주체의 의도에 대한 가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60)은 그러한 의미를 보여준 예문이다.

(60) 가. {가려면, 가려 하면} 가라.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11회]

나. {설명하려면, 설명하려 하면} 길어집니다.

[동아일보 90년 인터뷰 기사]

다. 죄를 얻지 {않으려면, 않으려 하면}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라.

[조지훈(1996), 지훈전집9, 나남출판사]

(60)에 쓰인 '-(으)려면'은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므로 연결형 '-(으)려'와 연결어미

44) 이와 달리 박재연(2003, 2009)은 '-었더라면'의 '-더-'는 일반적 '-더-'의 인칭 제약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 '-었더라면'에서 '-더-'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었더라면'이 '-있더-'와 '-으면'으로 분석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있더-'는 선어말어미 '-었-'과 '-더-'의 결합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었더라면'은 '인용'과 무관한 별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인다.

‘-(으)면’이 결합된 어미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6.4 ‘-(으)니까’형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으)니까’의 해석을 참고하면 이는 ‘원인’, ‘근거’나 ‘전제’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이러한 ‘-(으)니까’는 간접인용문 구성에 통합된 경우에 화자는 피인용문을 ‘원인’, ‘근거’ 또는 ‘전제’로 삼는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으)니까’는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되면 ‘-다/냐/(으)라/자니까’가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에 결합되면 ‘-더라/더냐니까’가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되면 ‘-(으)려니까’가 형성된다. 이를 이들의 단일어미화 여부를 먼저 다음 <표52>와 같이 정리한다. 그리고 본 소절에서도 내포절 유형의 순으로 6.4.1은 ‘-다/냐/(으)라/자니까’, 6.4.2는 ‘-더라/더냐니까’, 6.4.3은 ‘-(으)려니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표52> 연결어미 ‘-(으)니까’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니까 | -더라니까 | -냐니까 | -더냐니까 | -(으)라니까 | -자니까 | -(으)려니까 |
| 단일어미 | -다니까 | -더라니까 | -냐니까 | — | -(으)라니까 | -자니까 | — |

6.4.1 - 다/냐/(으)라/자니까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다/냐/(으)라/자니까’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61)은 해당 예문들이다.

(61) 가. 싫어! {싫다니까, *싫다고 하니까}!

[강철수(1993), 누구시더라(연극대본)]

나. 나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낭랑18세16회]

다. 얼른 가서 보고 {오자니까, *오자고 하니까}!

45)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으)니까’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으)니까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오-’, ‘-더-’ 뒤에 붙어))

‘-(으)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라. 잠 줌 {자자니까, *자자고 하니까}.

(61)에서 볼 수 있듯이 ‘-다/냐/(으)라/자니까’는 ‘-고 하-’의 환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인용’이 아닌 발화 내용에 대한 강조 또는 청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해 ‘-다/냐/(으)라/자니까’는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종결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 종결어미로서의 ‘-다/자니까’에 대한 해석이 기재되어 있다.

-다니까

[I]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에 쓰는 종결어미.

¶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렇다니까.

그 책 내가 읽었다니까.

[II]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다고 하니까’가 줄어든 말.

¶ 밥을 먹고 왔다니까 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시더라.

고양이가 귀엽다니까 되레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참고 어휘」 -ㄴ다니까, -는다니까, -라니까, -자니까

-자니까

[I] 「어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거듭 강력히 청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이 사람아, 빨리 떠나자니까.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II]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자고 하니까’가 줄어든 말.

¶ 그에게 함께 가자니까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

한편, ‘-다/냐/(으)라/자니까’ 중에 종결어미로서의 ‘-다니까’에 관한 연구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연결어미로 쓰이다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다니까’를 포함시킨 논의로는 한길(1991), 이필영(1993), 이금희(2006), 손옥현·김영주(2009)와 서희정(2013)을 들 수 있다. 그 중 ‘-다니까’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손옥현 외(2009:12)에서 ‘-다니까’는 종결어미로서 앞서 말한 내용을 재확인이나 재단언 외에 억양에 따라 화자의 못마땅하거나 부정

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희정(2013)에서는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보고 있으나 이의 ‘인용’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지 않기에 이를 ‘인용 종결어미’라 하였다. 그리고 ‘-다니까’는 연결어미 ‘-(으)니까’에 의해 ‘근거’를 기본 의미로 갖고 화자가 언급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화자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근거로 할 때 ‘주장 강조’의 기능, 발화된 정보 내용이 정차에 대한 것일 경우 화자의 말이나 생각이 다시 인용되어 전달되므로 청자에 대한 불만이나 짜증과 함께 ‘행위 재촉’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종결어미 ‘-다니까’의 문법화와 의미 기능을 위주로 다룬 논의는 구종남(2019)과 목지선(2020)이 있다. 구종남(2019)은 ‘-다니까’를 ‘-다니까1’, ‘-다니까2’와 ‘-다니까3’으로 나누어 이들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에 따라 각각의 형태, 통사적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그 중 ‘-다니까1’은 ‘과거의 경험과 얹 진술’, ‘현재 상황 해석’, ‘사태에 대한 이유 제시’와 ‘과거 얹의 내용을 현재 상황을 통해 확인’의 의미 기능을, ‘-다니까2’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불만의 이유’의 의미 기능을, ‘-다니까3’은 ‘청자의 부정적 반응의 이유를 사전에 불식시키려고 하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다니까1’과 ‘-다니까3’을 종결어미로, ‘-다니까2’는 후행절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로 준종결어미라고 지칭하였다. 한편, 목지선(2020)에서는 종결어미 ‘-다니까’의 용법을 연결어미 ‘-(으)니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구종남(2019)과 달리 연결어미 ‘-다니까’와 관련을 지어 종결어미 ‘-다니까’의 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어긋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는데도’와 대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는 자신의 발화를 바로 받아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이미 있던 내면적 얹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탄문의 느낌이 더욱 강하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종결어미 ‘-다니까’의 의미 기능을 규명하거나 구분하는 데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이전 발화를 반복함으로써 발화 내용을 강조한 것과 이전 발화 유무와 무관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 또는 원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귀납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상 전자의 의미를 ‘반복 강조’로, 후자의 의미를 ‘불만’으로 해 둔다.

이어서 기존 연구와 사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냐/(으)라니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의 예문을 다음 (62)와 같이 제시한다.

(62) 가. A: 왜 그래?

B: 청소 용역 회사 사장한테 전화 좀 걸어.

A: 왜 {그러냐니까, *그러냐고 하니까}?

[가문의 영광16회]

나. A: 날 그렇게 만들어놓고 너 혼자 그 여자랑 행복해졌니?

B: (대답하지 않았음)

A: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 그래서 {행복해졌냐니까, *행복해졌냐고 하니까}!

[강적들03회]

다. A: 뭘 해? 도장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어.
 B: 좀 보겠습니다.
 A: 도장 {찍으라니까, *찍으라고 하니까}.

[1%의 어떤 것12회]

라. A: 나한테 말해. 내가 해 줄게.
 B: 니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해 줘.
 A: 나만 {믿으라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11회]

(62)에서 ‘-냐/(으)라니까’가 쓰인 대화를 통해 ‘-냐/(으)라니까’가 쓰인 구문이 발화되기 전에 유사한 의미의 발화가 있었다는 것과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62)는 이전 발화를 반복함으로써 화자가 발화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현대 청자가 취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이전 발화가 있었다는 것은 ‘-냐/(으)라니까’가 쓰인 구문은 이전 발화에 대한 반복임을 알려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냐/라/자니’ 및 ‘-냐/라/자면서’와 동일한 경우이다. 이전 발화가 있어 ‘인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한 점과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점에 의해 결국 단일어미화가 된 것으로 귀결한 경우 말이다. 따라서 (62)에 쓰인 ‘-냐/(으)라니까’ 또한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이다.

6.4.2 - 더라/더냐니까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더라니까’의 예문만 추출하였고 ‘-더냐니까’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먼저 해당 예문을 다음 (63)과 같이 제시한다.

(63) 가. A: 이거 밖에 없더라.
 B: 이게 뭐야? 다 몽개졌잖아.
 A: 그거 밖에 {없더라니까, *없더라고 하니까}.

[커피하우스01회]

나. A: 온다더니 왜 아직이야?
 B: 미안. 진짜 반가운 놈이라서 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야지.
 A: 그래. 10년 만에 만났으면 진짜 반가웠겠다.
 B: 어. 무지 {반갑더라니까, *반갑더라고 하니까}.

[올드 미스 다이어리203회]

다. A: 말해 봐. 상의하고 싶은 일이 뭔지.
 B: 너 그날 영미 신랑 될 사람 봤지?
 A: 뭐.

B: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래. 그날, 영미한테 옷도 세벌 사줬어. 큰 거 한 장을 {쓰더라니까, *쓰더라고 하니까}.

[매리대구 공방전02회]

(63)에 쓰인 ‘-더라니까’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으며 구문 종결위치에 쓰여 진술 내용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앞서 살펴본 종결어미로서의 ‘-다니까’와 유사해 보인다. 이는 (63)에 쓰인 ‘-더라니까’를 ‘-다니까’로 전환해 보면 알 수 있다.

(63') 가. A: 이거 밖에 없더라.

B: 이게 뭐야? 다 뭉개졌잖아.

A: 그거 밖에 {없더라니까, 없다니까}.

나. A: 온다더니 왜 아직이야?

B: 미안. 진짜 반가운 놈이라서 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야지.

A: 그래. 10년 만에 만났으면 진짜 반가웠겠다.

B: 어. 무지 {반갑더라니까, 반가웠다니까}.

[올드 미스 다이어리203회]

다. A: 말해 봐. 상의하고 싶은 일이 뭔지.

B: 너 그날 영미 신랑 될 사람 봤지?

A: 뭐.

B: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래. 그날, 영미한테 옷도 세벌 사줬어. 큰 거 한 장을 {쓰더라니까, 썼다니까}.

[매리대구 공방전02회]

(63')에서 볼 수 있듯이 ‘-더라니까’는 ‘-다니까’ 또는 ‘-있다니까’로 교체될 수 있다. 이는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한 ‘-더라니까’는 ‘인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더라니까’가 쓰인 구문을 일반 평서문으로 교체해 보는 것으로 이른바 ‘강하게 표현’이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어미로 쓰이는 ‘-다니까’에 비해 ‘-더라니까’는 ‘-더-’에 내포된 화자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어 ‘-다니까’와 구분된다.

(63'') 나. A: 온다더니 왜 아직이야?

B: 미안. 진짜 반가운 놈이라서 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야지.

A: 그래. 10년 만에 만났으면 진짜 반가웠겠다.

B: 어. 무지 {반갑더라니까, 반가웠어}.

다. A: 말해 봐. 상의하고 싶은 일이 뭔지.

B: 너 그날 영미 신랑 될 사람 봤지?

A: 뭐.

B: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래. 그날, 영미한테 옷도 세벌 사줬어. 큰 거 한 장을 {쓰더라니까, 썼어}.

‘반갑더라니까’를 ‘반가웠어’로, ‘쓰더라니까’를 ‘썼어’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발화 내용이 ‘-더라니까’가 쓰인 경우보다 약하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 ‘-더라니까’는 ‘강조’의 의미가 느껴지고 이를 일반 평서문으로 교체하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쓰인 ‘-더라니까’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더라니까

[I] 「어미」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이미 굳어진 평판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 화자가 어떤 일을 보거나 들으면서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마땅히 어떠한 결과에 따르리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 예측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 그 녀석 놀기만 하더라니까.

어제 정말로 동창을 만났더라니까.

내일까지도 어려우시더라니까.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해 (62)에 쓰인 ‘-더라니까’는 단일어미화가 된 하나의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더라니까’는 종결어미 ‘-다니까’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더라니까’는 ‘-더-’와 ‘-다니까’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워할 수 있다. (62’)와 (6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라니까’에 ‘-더-’는 선어말어미 ‘-더-’가 옮겨온 것이므로 ‘경험’ 또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라니까’는 ‘-다니까’로 교체될 경우 대화 맥락에 따라 ‘-었다니까’로 교체되기도 한다. 즉 ‘-다니까’로 모든 ‘-더라니까’의 쓰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설령 ‘-더라니까’는 ‘-더-’와 ‘-다니까’로 분리되더라도 ‘-더라니까’는 하나의 어미로서 존재한 사실과 모순이 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6.4.3 - (으)려니까

‘-(으)려니까’는 행위 주체의 의도가 어떠한 결과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64)에서 이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64) 가. 혼자 두고 {가려니까, 가려 하니까} 마음이 쓰이네요.

[황금마차167회]

나.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려니까, 공부하려 하니까} 힘들겠다.

[옥답방고양이09회]

(64가)에 ‘가다’는 ‘의도’가 ‘마음이 쓰이다’는 상황의 원인이고 (64나)에 ‘공부하다’는 ‘의도’가 ‘힘들겠다’는 화자의 추측의 원인이다. 이러한 ‘-(으)려니까’는 ‘의도가 후행절 내용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 외에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형 ‘-(으)려 하-’에 ‘-(으)니까’가 결합된 구성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6.5 ‘-(으)니’형

현대 한국어에 연결어미 ‘-(으)니’와 종결어미 ‘-(으)니’가 있는데 본장은 상위절이 의문형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결어미 ‘-(으)니’가 결합된 경우를 대상으로 살펴보겠다.⁴⁶⁾ 연결어미 ‘-(으)니’가 결합된 구성에서 ‘-고 하-’의 축약에 따라 ‘-다/냐/(으)라/자니’, ‘-더라/더냐니’와 ‘-(으)려니’로 남는다. 또 연결어미 ‘-(으)니’는 흔히 ‘원인’이나 ‘근거’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해당 어미 결합형은 내포절이 상위절의 ‘원인’이나 ‘근거’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6.5.1은 ‘-다/냐/(으)라/자니’, 6.5.2는 ‘-더라/더냐니’, 6.5.3은 ‘-(으)려니’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어미 결합형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다음 <표53>과 같이 정리한다.

<표53> 연결어미 ‘-(으)니’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니 | -더라니 | -냐니 | -더냐니 | -(으)라니 | -자니 | -(으)려니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6.5.1 - 다/냐/(으)라/자니

5.1.1에서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와 ‘원인’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를 통사·의미적으로 구분하고 <표31>로 정리하였다. <표31>에 의해 연결어미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것이고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는 종결어미 ‘-다니’와 ‘인용’의 어미 결합형 ‘-다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소절은 연결어미 ‘-(으)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46) 의문형 종결어미 ‘-(으)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에 대해서 상위절이 의문형인 5장에서 다루었다.

‘-다니’를 비롯한 ‘-냐/(으)라/자니’를 다룰 것이므로 ‘-다니’와 아울러 다른 어미 결합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들의 예문을 다음 (65)와 같이 가져와 본다.

- (65) 가. 철수가 집에 {간다니, 간다고 하니}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
나. 철수가 집에 {가느냐니, 가느냐고 하니} 난 모르겠다고 했다.
다. 철수에게 {가라니, 가라고 하니} 나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라. 철수가 집에 {가자니, 가자고 하니} 나도 가방을 챙기고 나왔다.

(65)는 5.1.1에서 제시한 (29)의 경우와 같다. (65가)를 예로 들면 ‘철수가 집에 간다.’는 피인용문이 후행절인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는 후행절은 ‘철수가 집에 간다.’는 피인용문에 따른 결과이다. (65나-라)도 동일한 맥락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냐/(으)라/자니’의 예문에도 나타난다.

- (65) 가. 왜 1등이 {목표냐니, 목표냐고 하니} 이윤호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네요.
[2006-2007거침없이 하이킥140회]
나. 굶어 죽으려는 사람보고 미움을 {먹으라니, 먹으라고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영일(1988), 오성과 한음, 계림문고]
다. 같이 {놀자니, 놀자고 하니} 온 전신이 근질거린다고 한다.
[오영수(1994), 갯마을, 마당미디어]

(65)에 쓰인 ‘-냐/(으)라/자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며 내포절이 ‘-냐/(으)라/자니’에 이어진 뒷발화의 원인 또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5)에 쓰인 ‘-냐/(으)라/자니’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냐/(으)라/자니’ 중 이금영(2005)에서 ‘-자니’가 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양상을 논의하였다. 이금영(2005:34-36)에서 ‘-자/자’에 연결어미 ‘-(으)니’가 결합된 구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 ‘-자’는 ‘의도’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중세와 근대 문헌에 등장한 종결어미 ‘-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66)은 해당 문헌에서 찾은 예문들이다.

- (66) 가. 당시 쏘 소준의게 사름 브리자 권헌대 <삼강행실도(동경대본) 忠:12a>
나. 초록 실란 즉시 이버너 보내여라 바느지리 브자 <순천김씨 13:21>
다. 너히 하나하나 살가 보자 호고 드리드를 드시히니 <서궁일기 25a>

(66가)는 청유의 간접인용문으로 ‘-자’와 ‘-니’로 분석되지만 (66나-다)는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16세기 초기 문헌에 쓰인 ‘-저’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소원이나 욕망의 의미는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유형 어미 ‘-자/자’는 ‘-저’에서 발달되어 ‘-자니/자니’가 기본적으로 화자의 욕망이나 의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간접인용문으로 쓰이다가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니’의 쓰임은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수록된 현대 한국어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7) 가. 여자 혼자 살고 {있자니, *있자고 하니} 24시간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김양호(2001), 화술과 인간관계, 영언문화사]

나. 두고만 {보자니, *보자고 하니} 가슴이 아프네.

[웃어라 동해야81회]

다. 그런 하늘을 보고 {있자니, *있자고 하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김영현(1992), 해남 가는 길, 숲]

라. {뛰주자니, *뛰주자고 하니} 위험하고 안 {뛰주자니, *뛰주자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

[김양호(2001), 화술과 인간관계, 영언문화사]

(67)에 쓰인 ‘-자니’는 ‘-고 하-’의 환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67)를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자니’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67가)에 주어인 ‘여자’는 혼자 살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의도로 인해 ‘24시간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뒤따른다. (67나)에 주어인 화자는 두고만 보려는 의도가 있으나 그러한 의도로 인해 ‘가슴이 아프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 주어의 의도가 뒤따른 결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연결어미 ‘-(으)니’의 의미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해 (67)에 쓰인 ‘-자니’는 ‘-자고 하니’에서 ‘-고 하-’가 축약된 후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6.5.2 - 더라/더냐니

본 소절에서 다룬 ‘-더라/더냐니’에 쓰인 ‘-(으)니’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기 때문에 간접인용문에 쓰인 경우에 내포절이 상위절의 원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러한 ‘-더라/더냐니’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고 ‘-더라’와 ‘-(으)니’가 분석되지 못한 ‘-더라니’의 예문만 추출하였다.

(68) 가. 오늘은 아침부터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더라니, *이상하더라고 하니}.

[손춘익(1980), 작은 어릿광대의 꿈, 창작과 비평사]

나. 어쩐지 생각하는 척 말을 {하더라니, *하더라고 하니}.

[현격준 외(1995), 바다가 부르는 소리, 한국경제신문사]

다. 어쩐지 문을 활짝 {열어주더라니, *열어주더라고 하니}

[신의 저울16회]

라. 암만해도 {수상하더라니, *수상하더라고 하니}.

[이광수(1994), 유정/꿈, 마당미디어]

(68)에 쓰인 ‘-더라니’는 ‘-더라고 하니’로 환원될 수 없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자면 (68가)는 화자가 자신이 ‘기분이 이상하다’는 명제에 대해 발화한 것이다. (68나)는 화자 자신이 아닌 화자가 목격한 타인이 ‘생각하는 척 말을 한다’는 명제를 발화한 것이고 (68다)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목격한 타인이 ‘문을 활짝 연다’는 행위를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68가-다)에 공통적으로 ‘어쩐지’가 쓰여 있다. ‘어쩐지’는 부사로서 ‘어찌 된 것인지’ 또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혼잣말에 쓰인다.⁴⁷⁾ (68라)에는 ‘어쩐지’가 쓰여 있지 않으나 구문의 의미로 보아서 화자는 자신의 생각, 즉 ‘수상하다’는 생각을 ‘-더라니’를 통해 전달하며 청자에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혼잣말이다.

이러한 ‘-더라니’를 하나의 어미로 간주하여 필자와 유사한 해석을 제시한 논의로는 이금영(2005)이 있다. 이금영(2005:36-37)에서 어미 ‘-더라니’는 화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일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던 자신의 판단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한 놀라움이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환기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더라니’는 20세기 초기의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고 하며 역사적 자료를 보여주었다.⁴⁸⁾

한편, ‘-고 하-’의 환원 여부 외에 선어말어미 결합에 있어 어미 ‘-더라니’와 어미 결합형 ‘-더라고 하니’ 간의 통사적 차이점에 대해 서태룡(1988:206-211)에 다룬 바 있다. 서태룡(1988)에서는 어미 기능을 획득한 ‘-더라니’는 ‘과거지각’의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이유나 조건을 나타내며 ‘-더라니’ 앞에 선어말어미 ‘-았-’, ‘-겠-’이 통합할 수 없다고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외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어미 ‘-더라니’의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⁴⁹⁾

47)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기재된 부사 ‘어쩐지’의 예문을 가져오면 이는 혼잣말에 주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의 충혈된 눈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니.

저런 모친 밑에 자랐을 그가 어쩐지 가련하고 마음 아프게 느껴졌던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에 어쩐지 오늘은 소주나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연세한국어사전>

48) 이금영(2005:38)에서 제시한 20세기 초기 ‘-더라니’가 쓰인 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앓다, 어떻게 속이 시원한지, 나도 이가 득득 갈리더라니<흙 1:106>

아까 명자를 다리러 갔다 오니까 정호새끼가 또 짹짹 울고 있더라니<동아일보 1939/5/16/3면/생활/문화>

49) <표준국어대사전>에 ‘인용’의 기능을 수행하는 ‘-더라니’를 ‘-더라니2’로 해석하고 있다.

-더라니2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뒤에 붙어))

‘-더라고 하니’가 줄어든 말.

¶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이더라니?

-더라니1

[I] 「어미」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과거의 행동에 대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화자가 어떤 일을 보거나 들으면서 어떠한 결과가 따르리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되었음을 나타낸다. 뒤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문장이 올 때가 있다.

¶ 그 녀석 지나치게 설치더라니. 기어코 일을 망쳐 놓았군.

 꼭 무슨 일을 내고 말썫더라니.

결과적으로 (68)에 쓰인 ‘-더라니’는 단일어미화 과정을 겪고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게 된 어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더냐니’는 ‘-더라니’와 공통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므로 문법적 제약이 아닌 사용 빈도 저하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6.5.3 - (으)려니

‘-(으)려니’는 연결형 ‘-(으)려 하-’와 연결어미 ‘-(으)니’가 결합되고 ‘하-’가 축약된 어미 결합형이다. 말뭉치에서 추출한 ‘-(으)려니’의 예문 중 ‘-(으)려’와 ‘-(으)니’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예문을 먼저 다음 (69)와 같이 가져와 본다.

(69) 가. 할머니 작년에 왼쪽 수술을 했으니까 (괜찮으려니, *괜찮으려 하니) 했지.

[산부인과08회]

나. 서연씨도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 하니} 하세요.

[아빠셋 엄마하나15회]

다.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이려니, *운명이려 하니} 하고 체념만 하지 마십시오.

[이철환(1992), 과천 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법지사]

(69)에 쓰인 ‘-(으)려니’는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어미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미 결합형 ‘-(으)려니’의 경우 행위 주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원인 또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그러나 (69)에 쓰인 ‘-(으)려니’는 화자 또는 행위 주체의 예측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69가)를 예로 들면 화자는 할머니가 작년에 수술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 할머니는 수술하기 전보다 괜찮아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측한 것이다. (69나)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아서 상대방의 성격에 의해 성격의 유형을 예측한 것이다. 이와 다소 다른 (69다)에는 행위 주체가 화자가 아닌 ‘서연씨’인데, 구문은 화자가 ‘서연씨’에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단일어미화가 된 ‘-(으)려니’에 대해 이금영(2005)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금영(2005:43)에서 하나의 어미로 쓰인 ‘-(으)려니’는 중세 국어에서 강조 및 확인의 서법 의미를 나타내는 ‘-거/어-’가 통합된 ‘-리- + -거/어- + -(으)니’로 보고 어떤 사실을 미루어 추측하는 의

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69)에 쓰인 ‘-(으)러니’는 ‘-(으)러 하니’로 환원되지 못한 점, 의미적으로 행위 주체의 ‘의도’가 아닌 예측이나 생각을 나타낸 점과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라 단일어미화가 된 하나의 어미라고 할 수 있다.

6.6 ‘- 거나, -든지, -든가’형

본 소절에서 연결어미 ‘-거나’, ‘-든지’와 ‘-든가’를 묶어 다룬 이유는 세 어미 모두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⁵⁰⁾ 이들은 간접인용문 구성에 결합된 경우에 인용된 발화를 나열하고 나열된 발화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은 연결형 ‘-(으)러 하-’와 결합되어 ‘의도’를 나열하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처럼 ‘-거나/든지/든가’와 각 내포절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55>와 같다. 본 소절에서는 6.6.1은 ‘-다/냐/(으)라/자거나’, ‘-다/냐/(으)라/자든지’와 ‘-다/냐/(으)라/자든가’, 6.6.2은 ‘-더라/더냐거나’, ‘-더라/더냐든지’와 ‘-더라/더냐든가’, 6.6.3은 ‘-(으)러거나’, ‘-(으)러든지’와 ‘-(으)러든가’의 순으로 살펴보고 한다.

50)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거나’, ‘-든가’, ‘-든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거나3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으옵-’ 따위의 뒤에 붙어)) ((흔히 ‘-거나 -거나’ 구성으로 쓰여))

「1」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거나 -거나’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는 없다.

봉선화의 색깔은 붉거나 희다.

「2」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간에’나 ‘상관없이’ 따위가 뒤따라서 뜻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다.

¶ 그가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든가2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주로 ‘-든가 -든가’ 구성으로 쓰여))

「1」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든가 -든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든지

¶ 밥이 없으니 점심을 떡을 먹든가 빵을 먹든가 해라.

「2」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간에’나 ‘상관없이’ 따위가 뒤따라서 뜻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다. =-든지

<표55> 연결어미 ‘-고’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연결어미 피인용문 종결어미 | -거나 | -든지 | -든가 |
|----------------------|---------|---------|---------|
| -다 | -다거나 | -다든지 | -다든가 |
| -냐 | -냐거나 | -냐든지 | -냐든가 |
| -(으)라 | -(으)라거나 | -(으)라든지 | -(으)라든가 |
| -자 | -자거나 | -자든지 | -자든가 |
| -더라 | -더라거나 | -더라든지 | -더라든가 |
| -더냐 | -더냐거나 | -더냐든지 | -더냐든가 |
| -(으)려 | -(으)려거나 | -(으)려든지 | -(으)려든가 |

6.6.1 - 다/냐/(으)라/자거나, -다/냐/(으)라/자든지, -다/냐/(으)라/자든가

먼저 내포절 종결어미가 ‘-다’로부터 시작된 ‘-다거나/다든지/다든가’의 예문을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하고 다음 (70-71)와 같이 제시한다.

(70) 가. 평소에 {귀찮다거나, 귀찮다고 하거나} 보기 {싫다거나, 싫다고 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

[영화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나. 음식을 받았으면 잘 {받았다든지, 받았다고 하든지} {고맙다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인사가 있어야 할 거 아냐?

[열아홉순정1-30회]

다. {보고 싶었다든가, 보고 싶었다고 하든가} {그립다든가, 그립다고 하든가} 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김현옥(1993), 기대어 울 가슴을 갖고 싶다, 한샘출판주식회사]

(71) 가. 너 아무리 이래봤자 내가 널 {사랑한다거나, *사랑한다고 하거나} {좋아한다거나, *좋아한다고 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어.

[진실01-16회]

나. 진상을 {알아본다든지, *알아본다고 하든지} {어떻다든지, *어떻다고 하든지} 할 필요는 없었다.

[한승원(1986), 폭군과 강아지, 문학사상사]

다. 그저 막연히 {의심스럽다든가, *의심스럽다고 하든가} {허황되다든가, *허황되다고 하든가} 하는 반응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해당 예문을 (70)과 (71)로 나눠 제시한 이유는 (70)에 쓰인 ‘-다거나/다든지/다든가’는 피 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 ‘-다’와 연결어미 ‘-거나’, ‘-든지’, ‘-든가’로 분석될 수 있는 어미 결합형이고 (71)에 쓰인 ‘-다거나/다든지/다든가’는 단일어미화가 된 하나의 어미이다. 이는 (70)에서 ‘-고 하-’가 환원될 수 있는 데에 반해 (71)에서는 ‘-고 하-’가 환원되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71)에 쓰인 ‘-다거나/다든지/다든가’는 어떠한 발화를 나열한 것이 아닌 행위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1가)는 화자인 ‘내가’ 청자인 ‘너’에게 ‘사랑하다’와 ‘좋아하다’ 두 가지 행위를 나열하며 이러한 행위는 없다고 전달한 것이다. (71나)는 화자가 ‘알아보다’와 ‘어떻다’를 비롯한 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또 (71다)는 화자가 ‘의심스럽다’와 ‘허황되다’는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71)에 쓰인 ‘-다거나’, ‘-다든지’와 ‘-다든가’는 누군가의 발화를 인용하며 나열할 때 사용되는 어미 결합형이 아니라 행위를 나열하는 하나의 연결어미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 이금희(2005)에 다른 바 있다. 이금희(2005:230-233)에서 (71)와 같은 구문에 쓰인 ‘-다거나’, ‘-다든지’와 ‘-다든가’는 사건, 상황 나열이라는 의미를 갖는 융합된 어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거나’, ‘-다든지’와 ‘-다든가’는 거의 ‘-거나’와 ‘-든지/든가’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며 ‘-거나’, ‘-든지/든가’는 서로 반대되는 용언에 쓰이기도 하지만 ‘-다거나’, ‘-다든지’와 ‘-다든가’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짚어서 이들을 구분하였다.⁵¹⁾

내포절 종결어미 ‘-다’ 외에 ‘-냐/라/자’, ‘-더라/더냐’와 ‘-(으)려’로 시작한 경우도 있는데 이금희(2005)에서는 내포절 종결어미가 ‘-다’인 경우만 다루었다. 다른 내포절 종결어미인 경우도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에서 ‘-냐/라/자/(으)려거나’, ‘-냐/라/자/(으)려든지’, ‘-냐/라/자/(으)려든가’의 예문을 검색하였는데 피인용문 종결어미가 ‘-디-’로 시작된 어미 결합형은 예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추출한 예문을 다음 (72)와 같이 가져와 본다.

(72) 가. 쉽게 도와주겠다거나 어디서 {왔느냐거나, 왔느냐고 하거나} 하고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만큼 그들은 사납고 거칠었다.

[최인석(1999), 아름다운 나의 귀신, 문학동네]

나. 아버지는 나에게 더 {있으라거나, 있으라고 하거나} 집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승수(2000), 식물들의 사생활, 문학동네]

51) 이금희(2005:232)에서 ‘-거나’, ‘-든지/든가’와 ‘-다거나’, ‘-다든지’, ‘-다든가’를 구분하는 데에 아래와 같은 예문도 함께 제시하였다.

¶ 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나. 지하철에서는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모두들 책을 본다.

다. *누가 본다거나 만다거나 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라. *지하철에서는 앉아 있다든지 서 있다든지 모두들 책을 본다.

다. 분위기를 {바꾸자거나, 바꾸자고 하거나} 자제하자는 소리를 감히 못했다.

[이계진(1999),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도서출판우석]

(72)의 내포절을 보자면 (72가)의 ‘어디서 왔느냐’, (72나)의 ‘있으라’, (72다)의 ‘바꾸자’와 ‘자제하자’는 해당 화자가 하려고 한 발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 하-’가 있는 기본형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에 의해 ‘-냐/라/자거나’는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2)와 다른 ‘-냐/라/자거나’ 예문에서 (74)에서 살펴본 바와 다르게 해석되는 의미를 지닌 구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냐/라/자거나’는 단일어미화를 겪지 않은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냐/라/자든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말뭉치에서 ‘-(으)라/자든지’의 예문만 추출하였는데, 이로 인해 ‘-냐든지’의 예문까지 만든다면 이들의 예문은 다음 (73)과 같다.

(73) 가. 전화를 {받았느냐든지 안 받았느냐든지, 받았느냐고 하든지, 안 받았느냐고 하든지} 뭘 말이 없어요?

나. 전화 받았으면 {기다리라든지 이따 걸라든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이따 걸라고 하든지} 뭘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순수05회]

다. 좀 더 {두고 보자든지, 두고 보자고 하든지} 하는 말들이 나를 둘러싼 유리관 밖에서 오가는 것 같았다.

[이명훈(2004), 꼭두의 사랑, 문학사상사]

(73가)의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73나)의 ‘기다리라’, ‘이따 걸라’와 (73다)의 ‘두고 보자’는 간접인용문에서 인용된 발화로 해석되고 어떠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73)에 쓰인 ‘-냐/라/자든지’도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고 귀납할 수 있다.

이제 ‘-냐/라/자든가’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말뭉치에서 찾은 예문은 다음 (74)와 같다.

(74) 가. 연락처를 {달라든가 시간있냐든가, 달라고 하든가 시간있냐고 하든가} 이딴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소문난 칠공주01-80회]

나. 시간을 {달라든가 생각해본다든가, 달라고 하든가 생각해본다고 하든가} 했어야지!

[단팥빵23회]

다. 뭐 잘 {지내보자든가 반갑다든가, 지내보자고 하든가 반갑다고 하든가} 그런 말

없어?

[영화 ing]

(74가)의 ‘시간있냐’, (74나)의 ‘시간을 달라’, (74다)의 ‘잘 지내보자’도 역시 인용된 발화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의 ‘-고 하-’가 환원되어도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 ‘-냐/라/자’와 ‘-거나/든지/든가’가 결합된 경우에 모두 ‘인용’의 어미 결합형으로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6.2 - 더라/더냐거나, -더라/더냐든지, -더라/더냐든가

내포절에 ‘-더-’가 쓰인 ‘-더라고 하-’와 ‘-더냐고 하-’에 연결어미 ‘-거나/든지/든가’가 결합된다면 ‘-고 하-’의 축약에 따라 ‘-더라거나/더라든지/더라든가’와 ‘-더냐거나/더냐든지/더냐든가’의 어미 결합형이 형성된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단 하나도 추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것은 피인용문의 내용이 피인용문 화자 직접 목격하거나 겪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법적 오용이 아니다.

본 소절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에 비해 6.6.1에서 살펴본 ‘-다/냐/(으)라/자거나’, ‘-다/냐/(으)라/자든지’와 ‘-다/냐/(으)라/자든가’는 예문이 추출될 수 있었던 만큼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장과 4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체계적 특징 중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는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보다 사용 빈도가 낮음이 있다. 이러한 체계적 특징은 6.6.1과 6.6.2에도 나타난다.

6.6.3 -(으)려거나, -(으)려든지, -(으)려든가

‘-(으)려거나/든지/든가’는 내포절이 연결형인 ‘-(으)려 하-’에 연결어미 ‘-거나/든지/든가’가 결합된 후 동사 ‘하-’가 축약되어 온 것이다. ‘-(으)려 하-’는 행위 주체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으)려거나/든지/든가’는 행위 주체의 ‘의도’를 나열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 (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75) 가. 언론을 {지배하려거나, 지배하려 하거나}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럴 의지가 없다.

[주간조선 1767호, 조선일보사(2003)]

나. 감옥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려거나, 건설하려 하거나} 파업을 조직하려고 한 활동가들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권혁범 외(1998/05), 녹색평론40호, 녹색평론사]

다. 당신들이 뭘 {하려든지, 하려 하든지} 간에 절 끼워 줘요.

(75)에 쓰인 ‘-(으)려거나’와 ‘-(으)려든지’는 ‘의지’를 나타내는 내포절 종결어미 ‘-(으)려’와 연결어미 ‘-거나’나 ‘-든지’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단일어미화를 겪지 않은 단순한 어미 결합형에 해당된다.

6.7 ‘-느니’형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느니¹’은 ‘앞 절을 선택하기보다는 뒤 절의 사태를 선택함’의 의미이고 ‘-느니²’는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모두 간접인용문 및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²⁾ ‘-느니¹’이 결합된 경우 내포절에 인용된 발화보다 후행절에 해당된 내용이 선택된다는 의미로 쓰인다. ‘-느니²’가 결합된다면 피인용문 화자는 이러한 말도 저러한 말도 하였다는 의미로 쓰인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느니¹’과 ‘-느니²’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와 무관하게 단일어미화가 된 경우가 없다. 따라서 어미 결합형만 정리하면 다음 <표56>과 같다.

<표56> 연결어미 ‘-느니’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느니 | -더라느니 | -냐느니 | -더냐느니 | -(으)라느니 | -자느니 | -(으)려느니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그리고 이들의 예문을 다음 (76)과 같이 제시한다.

52) <표준국어대사전>에 연결어미 ‘-느니’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느니1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을 선택하기보다는 뒤 절의 사태를 선택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조사 ‘보다’가 붙을 수 있다.

¶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느니 제게 옛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느니2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느니...느니’ 구성으로 쓰여))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돈이 있는니 없느니 하면서 시끄럽다.

(76) 가. 그녀가 보는 눈이 {있었다느니, 있었다고 하느니} 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다.

[송기원(2003), 사람의 향기, 창작과비평사]

나.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느니, 하느냐고 하느니}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었지만…

[이원수(1977), 꼬마 옥이, 창작과 비평서]

다. 보험에 {들라느니, 들으라고 하느니} 적금을 {하라느니, 하라고 하느니} 했다.

[이오덕(1989), 이오덕의 교육일기1, 한길사]

라. 운동회를 {하자느니, 하자고 하느니} 일제고사 준비교육을 하자느니 했다.

[이오덕(1989), 이오덕의 교육일기1, 한길사]

(76)을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76가-나)에 쓰인 ‘-다느니’와 ‘-냐느니’에 ‘-느니’는 ‘앞 절을 선택하기보다 뒤 절의 사태를 선택함’을 나타내고 있고, (76다-라)에 쓰인 ‘-(으)라느니’와 ‘-자느니’에 ‘-느니’는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다/냐/(으)라/자느니’ 외에 ‘-더라/더냐느니’와 연결형 ‘-(으)려느니’도 있으나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예문이 추출된 어미 결합형의 경우만 보아서 연결어미 ‘-느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모두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8 ‘-는데’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연결어미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게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어미 ‘-는데’는 간접인용문에 쓰인다면 ‘-는데’에 후행하는 절이 인용절과 상관되는 상황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되면 ‘-다/냐/(으)라/자는데’가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에 결합되면 ‘-더라/더냐는데’가 형성된다. 또 연결형 ‘-(으)려 하-’와 결합하면 ‘-(으)려는데’가 형성된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미 결합형만 다음 <표57>과 같이 정리하며 추출된 예문 몇 개를 다음 (77)과 같이 제시한다.

<표57> 연결어미 ‘-는데’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는데 | -더라는데 | -냐는데 | -더냐는데 | -(으)라는데 | -자는데 | -(으)려는데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77) 가. 수영하면 어깨 {좋아진다는데, 좋아진다고 하는데}.

[푸른안개01-20회]

나. {가겠다는데, 가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2009외인구단10회]

다. 그 여자 {누구나는데, 누구나고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올드 미스 다이어리153회]

라. {앉으라는데, 앉으라고 하는데} 앉으세요.

[그저 바라 보다가08회]

마. 밥 한 끼 {먹자는데, 먹자고 하는데} 그 정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공주가 돌아왔다02회]

바. 가수가 됐다고 {하더라는데, 하더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좀 알아봐라.

[그대그리고나33회]

사. 옥상에서 {먹으려는데,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공주가 돌아왔다4회]

(77)에서 볼 수 있듯이 ‘-는데’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와 관계없이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다. 특히 (77가)의 경우 ‘-다는데’는 종결위치에 쓰여 있으나 종결어미가 아니다. 이때 ‘한번 해 볼래?’나 ‘해 보면 좋아질 거야.’와 같은 후행절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용론적으로 보았을 때 어깨가 아픈 친구에게 (77가)를 발화한다면 수영을 해 보는 것을 권유하는 화용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77)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더냐는데’는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으나 다른 어미 결합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이에 의해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은 사용 빈도가 극히 낮아서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9 ‘-던데’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연결어미 ‘-던데’는 ‘-는데’의 이형태로서 ‘-는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⁵³⁾ 이러한 연결어미 ‘-던데’는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되면 ‘-다/냐/(으)라/자던데’가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에 결합되면 ‘-더라/더냐던데’가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와 결합하면 ‘-(으)려던데’가 형성된다. 이처럼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6.8에서 살펴본 ‘-는데’가 쓰인 어미 결합형과 같이 단일어미화가 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어미 결합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58>과 같다.

5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던데’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너 고향에 자주 가던데 집에 무슨 일 있니?

너 그림을 잘 그렸던데 그거 여기에 걸자.

<표58> 연결어미 ‘-던데’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던데 | -더라던데 | -냐던데 | -더냐던데 | -(으)라던데 | -자던데 | -(으)려던데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이어서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을 다음 (78)과 같이 제시한다.

(78) 가. 너무 많아서 팔리지도 {않는다던데, 않는다고 하던데}.

[권정생, 바닷가 아이들, 창작과비평사]

나. 우리 집 위층 (비었다던데, 비었다고 하던데) 너 이쪽으로 이사올래?

[겨울연구11-20회]

다. 방을 {비워달라던데, 비워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지?

[송영(2003), 발로자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78)에 쓰인 ‘-다/(으)라던데’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으로 쓰이는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으)라던데’ 외에 ‘-냐/자던데’와 ‘-더라/더냐던데’, ‘-(으)려던데’는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 소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문법적 제약으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다기보다 사용 빈도가 극히 낮아서라고 설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던데’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6.10 ‘-지만’형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연결어미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인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어미 ‘-지만’이 간접인용문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되면 ‘-다/냐/(으)라/자지만’이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에 결합되면 ‘-더라/더냐지만’이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되면 ‘-(으)려지만’이 형성된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통해 이들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단일어미화가 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어미 결합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59>와 같다.

<표59> 연결어미 ‘-지만’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지만 | -더라지만 | -냐지만 | -더냐지만 | -(으)라지만 | -자지만 | -(으)려지만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그리고 추출된 예문을 다음 (79)와 같이 가져와 본다.

(79) 가. 아무리 팔을 안으로 {굽는다지만, 굽는다고 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
세요?

[수상한 삼형제46회]

나. 뭐가 {걱정이나지만, 걱정이냐고 하지만} 심하게 걱정된다.

[2007-2008김치치즈스마일58회]

다. 그저 다소곳하게 {있으라지만, 있으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유시춘(1992), 여성 이야기주머니, 녹두]

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지만, 기르자고 하지만} 능력되면 더 낳을 수도 있는 거라고
웃는다.

[쉬즈(1994/04-1994/11), 서울문화사]

마. {말리려지만, 말리려 하지만} 늦었다.

[모래시계04회]

우선 (79)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모두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더라/더냐지만’과 ‘-(으)려지만’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는 역시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음으로 인한 양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6.11 ‘- 더니’형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연결어미 ‘-더니’는 대체적으로 ‘원인’, ‘사실과 경험이 다름’, ‘사실과 관련된 사실 있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⁵⁴⁾ 이러한 연결어미 ‘-더니’는 ‘-다/냐/(으)

54)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연결어미 ‘-더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더니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과거의 사태나 해온○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연결어미.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원인이 된다.

¶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온몸이 쭉신다.

라/자고 하-'에 결합되면 '-다/냐/(으)라/자더니'가 형성되고 '-더라/더냐고 하-'에 결합되면 '-더라/더냐더니'가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되면 '-(으)려더니'가 형성된다. 말뭉치에서 이들의 예문을 추출한 결과로는 단일어미화가 된 것이 없다. 어미 결합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60>과 같다.

<표60> 연결어미 '-더니'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내포절 상위절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어미 결합형 | -다더니 | -더라더니 | -냐더니 | -더냐더니 | -(으)라더니 | -자더니 | -(으)려더니 |
| 단일어미 | — | — | — | — | — | — | — |

이어서 이들의 예문을 다음 (80)과 같이 보도록 한다.

(80) 가. 일하러 {간다더니, 간다고 하더니} 술 마시러 갔던 거예요?

[가문의 영광11회]

나. 잘 밤에 {커피냐더니, 커피냐고 하더니} 아주 들이붓고 있네.

[2006-2007 거침없이하이킥123회]

다. 맨날 멀리 떨어져 {있으라더니, 있으라고 하더니} 왜 옆에 왔어?

[내 여자친구 구미호06회]

라. 다시 보지 {말자더니, 말자고 하더니} 왜 연락했어?

[영화 7급공무원]

(80)에서 보듯이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다. 이에 의해 (80)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니'의 사전 해석을 고려하여 (80가)를 본다면 화자는 누군가에게 '일하러 간다'는 발화를 직접 들었으며 그것을 타인과 대화할 때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화자가 피인용문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내포하기 위해 '-더-'를 사용한 것이다. 한편, 말뭉치에서 '-더라/더냐더니'와 '-(으)려니'의 예문을 찾아보지 못한 것은 앞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다른 어미 결합형과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음으로 인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형에게 대들더니 얻어맞고 마는구나.

「2」 지금의 사실이 과거의 경험으로 알았던 사실과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어제는 기운이 없더니 오늘은 기운이 넘치는구나.

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더니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3」 과거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이 있음을 뜻하는 연결어미.

☞ 전에 거짓말을 하더니 이젠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6.12 소결

6장에서 간접인용문 구성과 연결형 ‘-(으)려 하--’의 동사에 12개의 연결어미인 ‘-고, -거나, -거든, -나, -(으)니, -(으)니까, -느니, -든가, -든지, -(으)며, -(으)면, -(으)면서’가 결합된 경우에 형성된 어미 결합형과 그 중에 단일어미화에 따라 발견된 문법적·의미적 특징과 체계적 특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본 장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각 연결어미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다음 <표61>과 같이 정리한다.

<표61> 연결형 상위절인 구성의 어미 결합형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고 | -다고 ○ | -더라고 | -냐고 ○ | -더냐고 | -으라고 ○ | -자고 ○ | -으려고 |
| -(으)면서 | -다면서 ○ | -더라면서 ○ | -냐면서 ○ | (-더냐면서) | -으라면서 ○ | -자면서 ○ | -으러면서 |
| -(으)며 | -다며 ○ | -더라며 ○ | -냐며 ○ | (-더냐며) | -으라며 ○ | -자며 ○ | -으러며 |
| -(으)면 | -다면 ○ | -더라면 | -냐면 | (-더냐면) | -으라면 | -자면 ○ | -으러면 |
| -거나 | -다거나 | (-더라거나) | -냐거나 | (-더냐거나) | -으라거나 | -자거나 | -으러거나 |
| -(으)니까 | -다니까 ○ | -더라니까 ○ | -냐니까 ○ | (-더냐니까) | -으라니까 ○ | -자니까 ○ | -으러니까 |
| -(으)니 | -다니 | -더라니 ○ | -냐니 | (-더냐니) | -으라니 | -자니 | -으러니 ○ |
| -거나 | -다거나 ○ | (-더라거나) | -냐거나 | (-더냐거나) | -으라거나 | -자거나 | -으러거나 |
| -든지 | -다든지 ○ | (-더라든지) | -냐든지 | (-더냐든지) | -으라든지 | -자든지 | (-으러든지) |
| -든가 | -다든가 ○ | (-더라든가) | -냐든가 | (-더냐든가) | -으라든가 | -자든가 | -으러든가 |
| -느니 | -다느니 | (-더라느니) | -냐느니 | (-더냐느니) | -으라느니 | -자느니 | (-으러느니) |
| -는데 | -다는데 | -더라는데 | -냐는데 | (-더냐는데) | -으라는데 | -자는데 | -으러는데 |
| -던데 | -다던데 | (-더라던데) | (-냐던데) | (-더냐던데) | -으라던데 | (-자던데) | (-으러던데) |
| -지만 | -다지만 | (-더라지만) | -냐지만 | (-더냐지만) | -으라지만 | -자지만 | (-으러지만) |
| -더니 | -다더니 | (-더라더니) | -냐더니 | (-더냐더니) | -으라더니 | -자더니 | (-으러더니) |

[범례]

1. 단일어미화한 형태 뒤에는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표61>을 보면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분포에 있어 여러 체계적 특징도 보일 것이다. 체계적 특징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연결어미 ‘-고’, ‘-(으)면서’, ‘-(으)니까’, ‘-(으)니’행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가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보다 단일어미화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많다.

둘째, 내포절이 의문형이고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에 ‘-더냐고’ 외에 모두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체계적 특징 외에 각 어미 결합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 또는 사전에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연결어미 ‘-고’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고’ 중에 ‘-다고’ 외에 ‘-냐/(으)라/자고’도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결어미 ‘-(으)면서(며)’와 결합되어 형성된 ‘-냐면서(며)’에 대해 이필영(1993)과 김수태(2001)에서 ‘-냐면서(며)’는 비환원적 융합형, 즉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냐면서(며)’도 ‘-다/(으)라/자면서(며)’처럼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였다. 종결어미로서의 ‘-냐면서(며)’는 ‘아는 내용에 대한 확인 물음’과 ‘따짐’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셋째, 연결어미 ‘-(으)면’과 결합되어 형성된 ‘-더라면’은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고 ‘-다면’처럼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아닌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연결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넷째, 연결어미 ‘-(으)니까’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까’ 중에 ‘-다니까’는 단일어미화로 ‘반복 강조’와 ‘불만’의 의미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였다. 이와 달리 ‘-냐/라/자니까’는 단일어미화로 ‘반복 강조’의 의미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기능만 획득하였고 ‘불만’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 중에 ‘-다니’뿐만 아니라 ‘-냐/(으)라/자니’도 단일어미화를 통해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여섯째, 용언과 무관하여 ‘-ㄴ/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니’가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 ‘-다니’와 통사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자의 ‘-다니’는 후자의 ‘-다니’와 동일한 의미를 드러내는 어미로 별도로 해 두는 것이 체계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곱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더라니’는 예문이 극히 적지만 모두 종결 위치에 쓰이며 구문에는 부사 ‘어쩐지’가 쓰여 있다. 부사 ‘어쩐지’는 주로 혼잣말에 쓰이기 때문에 ‘-더라니’는 화자가 목격하거나 겪은 일에 대한 혼잣말을 나타낼 때 쓰인다.

여덟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으)러니’는 화자 또는 구문 행위 주체의 예측이나 생각을 나타낼 경우 연결어미 ‘-(으)러’와 ‘-하니’로 환원될 수 없는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연결어미로 쓰인다.

7. 상위절이 관형사형인 경우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는 ‘-ㄴ/은/는/르/을/던’이 있다. 이들은 간접인용문이나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된 경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중에 ‘-은/을’은 받침이 있는 용어어간과 결합되기 때문에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와 연결형 ‘-(으)려’에는 결합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상위절이 관형사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에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는/르/던’만 쓰인다.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62>와 같다. <표63>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상호 결합하여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많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의 순으로 7.1은 ‘-다/냐/라/고 하-’의 경우, 7.2는 ‘-더라/더냐’의 경우, 7.3은 연결형 ‘-(으)려 하-’의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62> 관형사형 어미 ‘-ㄴ/는/르/던’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미 결합형

| 관형사형 어미 피인용문 종결어미 | -는~ㄴ | -은 | -을~르 | -던 |
|----------------------|-----------------|----|-------|--------|
| -다 | -다는 -단 | — | -달 | -다던 |
| -냐 | -냐는 -난 | — | -날 | -냐던 |
| -(으)라 | -(으)라는 -(으)란 | — | -(으)랄 | -(으)라던 |
| -자 | -자는 -잔 | — | -잘 | -자던 |
| -더라 | -더라는 -더란 | — | -더랄 | -더라던 |
| -더냐 | -더냐는 -더난 | — | -더날 | -더냐던 |
| -(으)려 | -(으)려는 | — | -(으)렐 | -(으)려던 |

7.1 - 다/냐/(으)라/자+ㄴ/는/르/던

먼저 ‘-ㄴ/는’이 ‘-다/냐/(으)라/자고 하-’에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다음 (81)과 같이 제시한다.

(81) 가. 일 {없단, 없다고 한} 말이야.

[길창덕(1986), 고집세, 기린원]

나. 그렇다면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있다고 하는} 애긴데?

[나하나(1987), 캠퍼스의 비망록1, 신세기코믹스]

다. 속이 {후련하시냐, 후련하시냐고 한} 말입니다.

[카인과 아벨06회]

라. {어찌겠냐는, 어찌겠냐고 하는} 것이다.

[박경리(1994), 토지4, 솔출판사]

마. 그게 설마 저한테 {말하지 말란, 말하지 말라고 한} 거겠어요?

[진실01-16회]

바. 우리보고 {죽으라는, 죽으라고 하는} 거야. 살라는 거야!

[남자의 향기03회]

사. 나도 이상해서 {보잔, 보자고 한} 거야.

[신데렐라맨14회]

아. 지금 와서 {밝히려는, 밝히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15회]

(81)은 각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에 의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인데 모든 어미 결합형에 '-고 하-'가 환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81)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단일 어미화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은 '-르'과 '-던'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은 다음 (82-83)과 같다.

(82) 가. 그릇 크기를 {말한달,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장파장이지 뭐.

[박경리(1994), 토지5, 솔출판사]

나. 당연히 싫다 그러지 {왜냐, 왜냐고 할} 거 뭐 있어.

[불꽃1-10회]

다. 내놓고 {값으랄, 값으라고 할} 수도 없고.

[몽땅 내사랑72회]

라. 변호 {관두랄, 관두라고 할} 때 관뒀으면 좋았잖아?

[대한민국변호사11회]

마. 연엘 {하잘, 하자고 할} 것도 아닐 텐데 뭐.

[거짓말05회]

(83) 가. 춤을 {춘다던, 춘다고 하던} 말을 기억했다.

[오정은(2002), 뽕권의 날개, 문학사상사]

나. 레시피 백 개를 {채우겠다던, 채우겠다고 하던} 결심은 잘 진행되고 있니?

[눈꽃01회]

다. 들관 넓은데 왜 우리집만 논이 {없냐던, 없냐고 하던} 순명이의 말이...

[박범신(2000), 향기로운 우물 이야기, 창작과 비평사]

라. 실컷 먹고 {나오라던, 나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작자 미상(1994), 나의 유럽 여행, 한국PC통신]

마. 그럼 당신은 나한테 {헤어지자던, 헤어지자고 하던} 말들 다 장난이었어?

[내조의 여왕14회]

‘-ㄴ/는’이 쓰여 형성된 어미 결합형보다 (82-83)에 ‘-르’과 ‘-던’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으나 ‘-고 하-’가 환원된 부분을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달/날/랄/잘’과 같은 어미 결합형이 오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81-83)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2 - 더라/더냐+ㄴ/는/르/던

이어서 ‘-더라/더냐’와 각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을 살펴보겠다.

(84) 가. 헤린이랑 아무런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더라, 없더라고 한} 말이죠.

[영화 파괴된 사나이]

나. 얼굴이 그날 떠 있는 달 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더라는, 보이더라고 하는} 말을 했어.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다. 뭘 보고 그런 {눈치더냐는, 눈치더냐고 하는} 말이에요!

[염상섭(1931), 삼대, 현대문학]

라. 누가 {그러더냐, 그러더냐고 한} 말이다.

[에덴의 동쪽42회]

마.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유명인이 돼 {있더라던, 있더라고 하던} 그 명성이 물위에 쓴 이름이 되고 만무상감을 왜 한 송이 흰 백합화에 감당시켜야 했던가 모를 일이다.

[이규태(1993),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솔빛 미디어]

(84)에서 볼 수 있듯이 ‘-더라/더냐’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어미 결합형도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다. 이에 의해 (84)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더라던’의 예문은 1개만 추출되었고 ‘-더냐던’의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앞서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이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다는 체계적 특징과 일치하다. 이때 ‘-고 하-’가 보유된 기본형 예문의 사용 빈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의해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것은 문법적 제약이 아닌 사용 빈도 저하로 인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7.3 -(으)려+ㄴ/는/르/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형 ‘-(으)려 하-’에 결합된 경우 어미 결합형인 ‘-(으)려는’과 ‘-(으)려던’의 예문만 추출하였고 ‘-련’과 ‘-렬’은 예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출된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 (85)와 같다.

(85) 가. 개그맨들을 {가까이하려는, 가까이하려 하는} 시청자도 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3 기사: 방송 연예]

나. 이를 확대해 {가려는, 가려 하는} 기업이 많아 완전 주휴 2일제 기업도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동아일보 경제(92)]

다.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버섯전을 {만들려던, 만들려 하던} 중이었습니다.

[황금마차183회]

라. 내가 누군지 {말해주려던, 말해주려 하던} 사람이야.

[자명고1-21회]

(85)에 쓰인 어미 결합형은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 두면 된다. 이 외에 어미 결합형인 ‘-련’과 ‘-렬’은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으나 ‘하-’가 보유한 ‘-(으)려 한-’과 ‘-르’와 ‘-(으)려 할’의 예문이 확인되어 다음 (86)과 같이 가져와 본다.

(86) 가. 작품을 끊임없이 {제작하려 한, 제작하련} 불행한 인간이었다.

[J.네루(1993), 세계사 편력, 도서출판 석탑]

나. 설마 {죽으려 한, 죽으련} 건 아니겠지?

[유시춘(1990), 닫힌 교문을 열며, 사계절]

다. 길을 {건너려고 할, 건너렬} 때였다.

[하일지(1993), 경마장에서 생긴 일, 민음사]

라. 굳이 {그러려고 할, 그러렬}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박경철(2000), 마음의 지도, 문학사상사]

(86)에서 기존 예문에 쓰인 ‘하-’를 축약시키더라도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련’과 ‘-렬’도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은 어미 결합형임을 보여준다.

7.4 소결

이제 상위절이 관형사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다음 <63>과 같이 정리한다.

<표63> 관형사형 상위절인 구성의 어미 결합형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칭유형 | 연결형 |
|------|-----------|-------------|-----------|-------------|-------------|-----------|---------------|
| | -더- 有 | -더- 無 | -더- 有 | -더- 無 | | | |
| -는~ㄴ | -다는 -단 | -더라는 -더란 | -냐는 -냐 | -더냐 -더냐는 | -으라는 -으란 | -자는 -잔 | -으려는 (-으런) |
| -은 | — | — | — | — | — | — | — |
| -을~ㄹ | -달 | -더랄 | -날 | -더날 | -으랄 | -잘 | (-으럴) |
| -던 | -다던 | -더라던 | -냐던 | -더냐던 | -으라던 | -자던 | -으려던 |

[범례]

1. 단일어미화한 형태 뒤에는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8. 상위절이 명사형인 경우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명사 기능을 얻어 명사처럼 쓰이려면 명사형 어미 ‘-ㅁ/음’ 또는 ‘-기’와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 ‘가다’는 받침이 없으므로 명사형 어미 ‘-ㅁ’과 결합되어 ‘감’이 되고 ‘-기’와 결합되면 ‘가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인용동사는 동사로서 ‘-ㅁ/음’ 또는 ‘-기’와 결합될 수 있으며 결합된 형태에서 ‘-고 하-’가 축약되면 내포절 종결어미가 명사형 어미와 결합되게 된다. ‘-다고 하기-’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다’와 ‘-기’가 결합되게 된 경우가 바로 이것인데 이 또한 어미 결합형에 해당된다.

간접인용문의 내포절 종결어미 ‘-다/냐/(으)라/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ㅁ’과 결합되어 각각 ‘-담/남/람/잠’이 되고 ‘-기’와 결합되면 ‘-다기/냐기/라기/자기’가 된다. 내포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으)려 하-’의 ‘하-’가 축약되어 각각 ‘-(으)럼’과 ‘-(으)러기’로 남는다. 먼저 명사형 어미 ‘-기’의 결합에서 비롯한 어미 결합형이 쓰인 예문을 아래 (87)과 같다.

(87) 가. {나쁘다기, 나쁘다고 하기} 보다는 욕심이 많지.

[1%의 어떤 것16회]

나. 작가한테 1, 5, 6번 {없냐기, 없냐고 하기} 전에 니가 갖고 있어야지.

[온에어12회]

다. {나가라기,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내 발로 나갈테니까.

[진실1-16회]

라. 그 사람 같이 {가자기, 가자고 하기} 전에 너가 먼저 약속 있다고 해.

마. 앞으로 무조건 {바꾸려기, 바꾸려 하기} 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 장점부터 파악 하세요.

[파라다이스 목장5회]

(87)에서 볼 수 있듯이 ‘-다/냐/(으)라/자기’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며 ‘-기 보다’, ‘-기 전에’와 같은 관용구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기 보다’와 ‘-기 전에’는 간접인용문의 내포절 종결어미와 결합된 경우에 ‘어떠한 발화행위보다’와 ‘어떠한 발화행위보다 먼저’의 의미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은 하나의 어미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말뭉치에서 ‘-담’이 쓰인 예문을 2개 추출하였으나 예문에 쓰인 ‘-담’은 간접인용문에서 ‘-고 하-’의 축약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다.⁵⁵⁾ 한편, 말뭉치에서 내포절에 ‘-더-’가

55) 해당 예문은 다음과 같다.

㉮ 가. 이렇게 해서 니 머리에 든 게 몽땅 복사 된담을 마나 좋을까? [2008코끼리93회]

나. 그 낫짖을 하고 나한테로 시집을 온담 뻔뻔하게. [김유정(1987), 안혜, 한림대학 출판부]

(가)에 쓰인 ‘-담’은 ‘-다고 하면’, 즉 ‘-다면’의 구어체로 해석되고 (나)에 쓰인 ‘-담’은 <표준국어

쓰인 경우,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과 연결형 내포절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예문이 추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명사형 ‘-기’와 ‘-음’ 중에 ‘-기’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만 사용되고 ‘-음’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고 정리하면 다음 <표64>와 같다.

<표64> 명사형 상위절인 구성의 어미 결합형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기 | -다기 | -더라기 | -냐기 | -더냐기 | -으라기 | -자기 | -으려기 |
| -음 | — | — | — | — | — | — | — |

[범례]

1. 단일어미화한 형태 뒤에는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대사전>에 기재된 종결어미 ‘-담¹²⁾’에 해당된다.

9. 결론

9.1 요약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결합형을 정리하고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양상에 관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어미 결합형’이라는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고 하-’가 축약되고 남은 어미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어미 결합형은 흔히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결형인 ‘-(으)려 하-’의 구성에서도 ‘하-’가 축약되면 ‘-(으)립니다’와 ‘-(으)려고’ 등 어미 결합형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 있어 어미 결합형은 간접인용문 구성뿐만 아니라 연결형인 ‘-(으)려 하-’ 구성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미 결합형 중에 간접인용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라 지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인용’으로 쓰이는 것이 물론 더 이상 어미와 어미의 결합으로 분석되지 못한 단일한 형태로 쓰인 경우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경우를 단일어미화(單一語尾化)라고 부르며 단일어미화의 판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문법적 기준: 간접인용문에서 축약되었던 ‘-고 하-’나 ‘-(으)려 하-’에 축약되었던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다.
- ② 의미적 기준: ‘인용’의 기능이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다.

한편,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결합형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어느 하나의 어미 결합형만 다루거나 형태적·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몇 개의 어미 결합형을 묶어 살펴보거나 새로운 어미 기능을 획득한 일부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 과정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수많은 어미 결합형 중에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내포절 종결어미)가 ‘-다’와 ‘-냐’로 시작된 어미 결합형에 대해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접인용문의 경우 내포절 종결어미는 ‘-다/냐’ 외에 ‘-(으)라/자’가 있고 내포절에 ‘-더-’가 쓰인다면 ‘-더라/더냐’로 시작된 어미 결합형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결형 ‘-(으)려 하-’ 구성이 있으므로 ‘-(으)려’로 시작한 어미 결합형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상위절(후행절) 동사에 결합된 어미에 따라 종결형으로 쓰이는 ‘-답니다’와 연결하는 데 쓰이는 ‘-다니까’를 비롯한 것들도 어미 결합형에 해당된다. 이처럼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들은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체계에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 등 의문은 기존 연구만으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어미 결합형들 중에 ‘-답니다’는 사용 빈도가 4266개로 비교적 높게 집계되었으며 별개의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기도 하는 데에 반해 ‘-더랍니다’는 사용 빈도가 3개에 불과하고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용 빈도의 격차 외에 ‘-고 하-’의 환원 여부에도

흥미로운 양상을 포착하였다. 구문 종결 위치에 쓰인 어미 결합형 ‘-다니까’는 ‘-다고 하니까’로 되돌릴 수 있으나 내포절에 ‘-더-’가 쓰인 ‘-더라니까’는 하나의 종결어미로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축약된 ‘-고 하-’는 환원될 수도 있고 환원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미 결합형 ‘-대’의 경우 ‘-고 하-’가 환원되면 일부 구문에 ‘명령’의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연결형 ‘-(으)려 하-’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에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각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를 비롯한 양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포절이나 상위절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 체계적 특징도 보인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어미 결합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룬 부분에 대해 논의하려면 어미 결합형부터 정리하고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상위절(후행절)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3장은 상위절이 평서문인 경우, 4장은 상위절이 감탄문인 경우, 5장은 상위절이 의문문인 경우, 6장은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 7장은 상위절이 관형사형인 경우, 8장은 상위절이 명사형인 경우로 장을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더-’는 평서문과 의문문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상위절을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하였다. 마찬가지로 내포절이 평서문과 의문문인 경우에도 소절별로 ‘-더-’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이제 먼저 장별로 논의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65>와 같다.

<표65>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결합형

[범례]

1. '-고 하-'가 보유한 기본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미 결합형 뒤에 '○'로 표시한다.
2.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못한 어미 결합형을 괄호('()')로 표시한다.
3. 제약으로 인해 해당 구성에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로 표시한다.

| 상위절 | | | 내포절 |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
| 종결형 | 평서형 | -더- 無 | 합쇼체 | -답니다 ○ | -더랍니다 | -납니다 | (-더납니다) | -으랍니다 | -잡니다 | -으립니다 | |
| | | | 하오체 | -다오 ○ | (-더라오) | (-냐오) | (-더냐오) | -으라오 | -자오 | -으러오 | |
| | | | 하게체 | -다네 ○ | -더라네 | (-냐네) | (-더냐네) | -으라네 | -자네 | -으러네 | |
| | | | 해라체 | -단다 ○ | -더란다 | -난다 | (-더난다) | -으란다 | -잔다 | -으린다 | |
| | | | 해요체 | -대요 ○ | -더래요 | -내요 | (-더내요) | -으래요 | -재요 | — | |
| | | | 해체 | -대 | -더래 | -내 | (-더내) | -으래 | -재 | — | |
| | | -더- 有 | 합쇼체 | (-다더랍니다) | (-더라더랍니다) | (-냐더랍니다) | (-더냐더랍니다) | (-으라더랍니다) | (-자더랍니다) | (-으러더랍니다) | |
| | | | 하오체 | -답디다 | (-더라더라오) | (-냐더라오) | (-더냐더라오) | -으랍디다 | -잡디다 | (-으럽디다) | |
| | | | 하게체 | (-다더라네) | (-더라더라네) | (-냐더라네) | (-더냐더라네) | (-으라더라네) | (-자더라네) | (-으러더라네) | |
| | | | 해라체 | (-다더란다) | (-더라더라) | -냐더라 | (-더냐더라) | -으라더라 | -자더라 | (-으러더라) | |
| | | | 해요체 | -다테요 | (-더라테요) | (-냐테요) | (-더냐테요) | (-으라테요) | (-자테요) | (-으러테요) | |
| | | | 해체 | -다테 | (-더라테) | (-냐테) | (-더냐테) | -으라테 | (-자테) | (-으러테) | |
| | 감탄형 | -더- 無 | 합쇼체 | — | — | — | — | — | — | — | |
| | | | 하오체 | — | — | — | — | — | — | — | |
| | | | 하게체 | — | — | — | — | — | — | — | |
| | | | 해라체 | — | — | — | — | — | — | — | |
| | | | 해요체 | -다는군요 -다네요 | -더라는군요 -더라네요 | (-냐는군요) (-냐네요) | (-더냐는군요) (-더냐네요) | -으라는군요 -으라네요 | (-자는군요) -자네요 | -으러는군요 (-으러네요) | |
| | | | 해체 | -다는구나 -다는군 -다네 | (-더라는구나) -다는군 -더라네 | (-냐는구나) (-냐는군) (-냐네) | (-더냐는구나) (-더냐는군) (-더냐네) | (-으라는구나) -으라는군 -으라네 | -자는구나 (-자는군) -자네 | -으러는구나 (-으러는군) -으러네 | |

| | | | | | | | | | | |
|-----|-----|----------|-----|--------------------------|--------------------------------|-----------------------------|--------------------------------|------------------------------|-----------------------------|--------------------------------|
| 종결형 | 감탄형 | -더- 有 | 합쇼체 | — | — | — | — | — | — | — |
| | | | 하오체 | — | — | — | — | — | — | — |
| | | | 하계체 | — | — | — | — | — | — | — |
| | | | 해라체 | — | — | — | — | — | — | — |
| | | | 해요체 | -다더군요 (-다더네요) | (-더라더군요) (-더라더네요) | (-냐더군요) (-냐더네요) | (-더냐더군요) (-더냐더네요) | -으라더군요 (-으라더네요) | (-자더군요) (-자더네요) | (-으려더군요) (-으려더네) |
| | | | 해체 | -다더구나 -다더군 (-다더네) | (-더라더구나) (-더라더군) (-더라더네) | (-냐더구나) (-냐더군) (-냐더네) | (-더냐더구나) (-더냐더군) (-더냐더네) | (-으라더구나) -으라더군 (-으라더네) | (-자더구나) (-자더군) (-자더네) | (-으려더구나) (-으려더군) (-으려더네) |
| | 의문형 | -더- 無 | 합쇼체 | -답니까 ○ | (-더랍니다) | (-냐니까) | (-더냐니까) | -으랍니다 | (-잡니까) | -으렵니까 |
| | | | 하오체 | -다오 ○ | (-더라오) | (-냐오) | (-더냐오) | (-으라오) | (-자오) | (-으러오) |
| | | | 하계체 | -다는가 | (-더라는가) | (-냐는가) | (-더냐는가) | -으라는가 | -자의가 | -으러는가 |
| | | | 해라체 | -다냐 ○ (-다느냐) -다니 ○ | (-더라냐) (-더라느냐) (-더라니) | -냐니 | (-더냐니) | -으라냐 -으라니 | (-자냐) -자니 | (-으려냐) (-으려느냐) -으려니 |
| | | | 해요체 | -대요 ○ | -더래요 | -내요 | (-더내요) | -으래요 | -재요 | — |
| | | | 해체 | -대 ○ | -더래 | -내 | (-더내) | -으래 | -재 | — |
| | | -더- 有 | 합쇼체 | (-다더랍니다) | (-더라더랍니다) | (-냐더랍니다) | (-더냐더랍니다) | (-으라더랍니다) | (-자더랍니다) | (-으려더랍니다) |
| | | | 하오체 | -답디까 ○ | (-더랍니다) | (-냐디까) | (-더냐디까) | -으랍니다 | (-잡디까) | (-으렵디까) |
| | | | 하계체 | -다던가 ○ | (-더라던가) | (-냐던가) | (-다냐던가) | -으라던가 | (-자던가) | (-으려던가) |
| | | | 해라체 | -다더냐 ○ -다더니 ○ | (-더라더냐) (-더라더니) | (-냐더냐) (-냐더니) | (-더냐더냐) (-더냐더니) | -으라더냐 (-으라더니) | (-자더냐) (-자더니) | (-으려더냐) (-으려더니) |
| | | | 해요체 | — | — | — | — | — | — | — |
| | | | 해체 | — | — | — | — | — | — | — |
| | | | 명령형 | — | — | — | — | — | — | — |
| | | | 청유형 | — | — | — | — | — | — | — |

| | 연결어미 | 평서형 | | 의문형 | | 명령형 | 청유형 | 연결형 |
|------|-------------------|----------------------------|-------------------------------|----------------------|-------------------------------|-------------------------|----------------------|---------------------------|
| | | -더- 無 | -더- 有 | -더- 無 | -더- 有 | | | |
| 연결형 | -고 | -다고 ○ | -더라고 | -냐고 ○ | -더냐고 | -으라고 ○ | -자고 ○ | -으려고 |
| | -(으)면서 -(으)며 | -다면서 ○ -다며 ○ | -더라면서 ○ -더라며 ○ | -냐면서 ○ -냐며 ○ | (-더냐면서) (-더냐며) | -으라면서 ○ -으라며 ○ | -자면서 ○ -자며 ○ | -으러면서 -으러며 |
| | -(으)면 -거나 | -다면 ○ -다거나 | -더라면 (-더라거나) | -냐면 -냐거나 | (-더냐면) (-더냐거나) | -으라면 -으라거나 | -자면 ○ -자거나 | -으러면 -으러거나 |
| | -(으)니까 | -다니까 ○ | -더라니까 ○ | -냐니까 ○ | (-더냐니까) | -으라니까 ○ | -자니까 ○ | -으러니까 |
| | -(으)니 | -다니 | -더라니 ○ | -냐니 | (-더냐니) | -으라니 | -자니 | -으러니 ○ |
| | -거나 -든지 -든가 | -다거나 ○ -다든지 ○ -다든가 ○ | (-더라거나) (-더라든지) (-더라든가) | -냐거나 -냐든지 -냐든가 | (-더냐거나) (-더냐든지) (-더냐든가) | -으라거나 -으라든지 -으라든가 | -자거나 -자든지 -자든가 | -으러거나 (-으러든지) -으러든가 |
| | -느니 | -다느니 | (-더라느니) | -냐느니 | (-더냐느니) | -으라느니 | -자느니 | (-으러느니) |
| | -는데 | -다는데 | -더라는데 | -냐는데 | (-더냐는데) | -으라는데 | -자는데 | -으러는데 |
| | -던데 | -다던데 | (-더라던데) | (-냐던데) | (-더냐던데) | -으라던데 | (-자던데) | (-으러던데) |
| | -지만 | -다지만 | (-더라지만) | -냐지만 | (-더냐지만) | -으라지만 | -자지만 | (-으러지만) |
| | -더니 | -다더니 | (-더라더니) | -냐더니 | (-더냐더니) | -으라더니 | -자더니 | (-으러더니) |
| 관형사형 | -는~-ㄴ | -다는 -단 | -더라는 -더란 | -냐는 -난 | -더냐는 -더냐는 | -으라는 으란 | -자는 -잔 | -으려는 (-으런) |
| | -은 | — | — | — | — | — | — | — |
| | -을~-르 | -달 | -더랄 | -날 | -더날 | -으랄 | -잘 | (-으럴) |
| 명사형 | -던 | -다던 | -더라던 | -냐던 | -더냐던 | -으라던 | -자던 | -으러던 |
| | -기 -음 | -다기 — | -더라기 — | -냐기 — | -더냐기 — | -으라기 — | -자기 — | -으러기 — |

그리고 장별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둔다.

3장에서 상위절이 평서형인 경우에 해당된 모든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 실제의 사용 여부와 단일 어미화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15>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거듭 언급하지 않고 이를 통해 포착한 체계적 특징을 요약해 본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위절에 ‘-더-’가 쓰인 구성에는 하오체 ‘-답디다’, ‘-(으)랍디다’와 ‘-잡디다’만 쓰이고 있다는 양상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준다. 둘째, 단일어미화 과정을 거쳐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셋째,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과 연결형 내포절 중에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분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의문형 내포절인 구성에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이 가장 적다. 넷째, 평서형과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에 내포절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그렇지 않은 어미 결합형보다 사용 빈도가 낮고 단일어미화가 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적다. 다섯째,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다.

이외에 개별 어미 결합형에 대해 사전 또는 기존 연구에 밝혀지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내용도 있다. 첫째,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지만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대’는 ‘-고 하-’가 환원되면 ‘인용’이 아닌 ‘명령’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다고 하-’ 구성은 해체로 쓰일 경우에 인용동사 ‘하-’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결형 ‘-(으)려 하-’ 구성에 해요체 ‘-(으)레요’와 해체 ‘-(으)레’인 어미 결합형은 고유어 어휘 중 비어두음절(非語頭音節)이 ‘레’로 발음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다고 하-’ 구성에 하오체 어미 결합형 ‘-다오’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과 달리 ‘-다고 하더-’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하오체 어미 결합형인 ‘-답디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하오체 어미 결합형인 ‘-답디다’는 대부분 해체나 해요체와 함께 쓰이고 있는 만큼 상대경어법 등급이 성립 시에 해당된 하오체와 거리가 생겼고 해체나 해요체와 근접해졌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표30>으로 정리하였다. <표30>에서 보인 여러 체계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상위절에 ‘-더-’가 없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만, 의문형 내포절인 경우의 어미 결합형은 예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접인용문 인용동사에 결합될 수 있는 ‘감탄’의 종결어미는 ‘-구나’, ‘-군’과 ‘-네’는 해요체와 해체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해요체와 해체로만 실현된다. 둘째,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에 해당된 모든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으로 인해 단일어미화로 새로운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이 없는 것이다. 이의 이유는 상위절이 감탄형인 경우의 어미 결합형 자체에 ‘감탄’ 또는 ‘놀라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답니다’ 등 어미 결합형보다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져서이다. 세 번째는 내포절과 상위절에 모두 ‘-더-’가 쓰인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5장에서는 상위절이 의문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사용 양상과 단일어미화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실제 사용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는 5.6에서 제시한 <표46>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체계적 특징을 요약해 본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미 결합형은 대부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도

평서형 내포절인 구성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둘째, 상위절에 ‘-더-’가 쓰인 경우에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로부터 형성된 ‘-더라’, ‘-더냐’, ‘-더니’와 ‘-데’ 중에 ‘-더라’, ‘-더냐’와 ‘-더니’는 해라체로만 실현될 수 있고 ‘-데’는 평서형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결형 내포절인 경우에도 해요체와 해체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해요체와 해체는 각각 ‘-레요’와 ‘-레’로 적을 수 있으나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쓰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부 어미 결합형에 관한 기존 연구와 사전 해석이 결여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법·의미적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다오’, ‘-다는가’, ‘-다냐’와 ‘-대요’는 단일어미화가 되어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상위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다느냐’와 ‘-다냐’ 간에 ‘-다느냐’는 예문이 없고 ‘-다냐’만 예문이 추출되었다. 이는 ‘-느냐/으냐’가 ‘느’ 탈락에 의해 ‘-냐/으냐’로 변화하였고, ‘-냐/으냐’는 다시 이형태 ‘-냐’로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내포절 종결어미 ‘-다’에 ‘-느냐’와 ‘-냐’ 간에 ‘-냐’가 결합되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셋째, ‘-다니’는 ‘원인’이나 ‘근거’의 연결어미 ‘-(으)니’ 또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류한 뒤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니’는 ‘-고 하-’의 환원뿐만 아니라 뒷발화의 유무로 ‘인용’의 어미 결합형과 별개의 종결어미로 분류하였다. 전자에 해당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있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에 해당된 ‘-다니’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뒷발화도 이어지지 않는다. 넷째, ‘-냐/(으)라/자니’는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인용’의 어미 결합형인 ‘-다니’와 동일한 해석을 취할 수 있다. ‘-냐니’는 청자의 정보 요청 의문 발화를, ‘-(으)라니’는 청자의 명령 발화를, ‘-자니’는 청자의 청유 발화를 반복하고 청자에게 되묻는 데 쓰인다. 다섯째, ‘-ㄴ/는’이 통합되지 않은 ‘-다니’는 간접인용문에서 비롯하고 단일어미화가 된 ‘-다니’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간접인용문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체계에 두는 것보다 별개의 어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섯째, 상위절은 ‘-더-’가 쓰인 의문형이고 내포절은 ‘-더-’가 쓰이지 않은 평서형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 해라체 ‘-다더냐’의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장은 상위절이 연결형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사용 여부와 단일어미화 여부는 앞서 <표61>에서 정리한 바 있다. <표61>에서 보인 체계적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한 어미 결합형은 연결어미 ‘-고’, ‘-(으)면서’, ‘-(으)니까’, ‘-(으)니’행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포절에 ‘-더-’가 쓰이지 않은 경우가 내포절에 ‘-더-’가 쓰인 경우보다 단일어미화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많다. 둘째, 내포절이 의문형이고 ‘-더-’가 쓰인 경우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 중에 ‘-더냐고’ 외에 모두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이 외에 기존 연구에 연결형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의 수가 많아 여러 어미 결합형에 관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관한 보완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결어미 ‘-고’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고’ 중에 ‘-다고’ 외에 ‘-냐/(으)라/자고’도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결어미 ‘-(으)면서(며)’와 결합되어 형성된 ‘-냐면서(며)’에 대해 이필영(1993)과 김수태(2001)에서 ‘-냐면서(며)’는 비환원적 융합형, 즉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어미 기능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냐면서(며)’도 ‘-다/(으)라/자면서(며)’처럼 단일어미화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것이다. 종결어미로서의 ‘-냐면서(며)’는 ‘아는 내용에 대한 확인 물음’과 ‘따짐’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셋째, 연결어미 ‘-(으)면’과 결합되어 형성된 ‘-더라면’은 ‘-고 하-’의

환원이 불가능하고 ‘-다면’처럼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인해 ‘인용’의 어미 결합형이 아닌 단일어미화로 별개의 연결어미로 간주해야 한다. 넷째, 연결어미 ‘-(으)니까’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까’ 중에 ‘-다니까’는 단일어미화로 ‘반복 강조’와 ‘불만’의 의미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였다. 이와 달리 ‘-냐/(으)라/자니까’는 단일어미화로 ‘반복 강조’의 의미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기능만 획득하였고 ‘불만’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종결어미 ‘-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에 반해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다/냐/(으)라/자니’는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한 ‘인용’의 어미 결합형에 해당된다. 여섯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더라니’는 예문이 극히 적지만 모두 종결 위치에 쓰이며 구문에는 부사 ‘어쩐지’가 쓰여 있다. 부사 ‘어쩐지’는 주로 혼잣말에 쓰이기 때문에 ‘-더라니’는 화자가 목격하거나 겪은 일에 대한 혼잣말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일곱째, 연결어미 ‘-(으)니’와 결합되어 형성된 ‘-(으)러니’는 화자 또는 구문 행위 주체의 예측이나 생각을 나타낼 경우 연결어미 ‘-(으)려’와 ‘-하니’로 환원될 수 없는 단일어미화가 된 별개의 연결어미로 쓰인다.

7장은 상위절이 관형사형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확보한 첫 번째 사실은 ‘-ㄴ/은/는/르/을’ 중 상위절(후행절) 동사 ‘하-’에 결합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은/는/르/던’ 4개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고 하-’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어미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 그 중 실제로 예문이 추출되지 않은 몇몇 어미 결합형이 있는데 이를 이미 <표62>로 정리하였다.

8장은 상위절이 명사형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을 살펴본 것이다. 명사형 어미 ‘-기’와 ‘-음’ 중에 ‘-기’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 결합형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데에 반해 ‘-음’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2 의의 및 한계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결합형은 간접인용문뿐만 아니라 연결형 ‘-(으)려 하-’와 동사 ‘하-’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구성에 형성될 수 있음을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의 존재 여부,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 여부에 대해 기술하며 관련 원인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 어미 결합형을 망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어미 결합형의 단일어미화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리고 소홀히 다루었던 어미 결합형의 경우에 대해 보다 많은 예문을 통해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기술한 것이 어미 결합형에 대한 이해에 분명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별 어미 결합형의 사용 빈도와 단일어미화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외의 양상에 대해 깊이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결형 ‘-(으)려 하-’에 해당된 ‘-(으)립니다’ 등 어미 결합형은 단일어미화가 되지 않았으나 ‘하-’의 축약으로 인해 1인칭 주어와만 쓰이게 된다. 이러한 인칭 사용의 축소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단일어미화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단일어미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밥을 먹다니.’에 쓰인 ‘-다니’는 간접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다니’에 비해 ‘-ㄴ/는’이 통합되지 않는 형태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ㄴ/는다니’의 의미와 동일하다. 본고에서 ‘-ㄴ/는’이 통합되지 않는 ‘-다니’를 별개의 어미로 간주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간접인용문 구성에 해당된 ‘-ㄴ/는다니’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이유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였다. 한편, 체계적으로 내포절에 ‘-더-’가 쓰인 구성에 해당된 어미 결합형은 그렇지 않은 어미 결합형보다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본고는 일정한 대화 맥락이 주어질 경우 ‘-더-’가 쓰이지 않는 어미

결합형은 ‘-더-’가 가진 ‘목적’이나 ‘경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화용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와 다른 해석을 취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들은 본고의 한계점이자 향후 연구 과제라 생각 된다.

<참고문헌>

- 강규영(2017),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규영(2020), 「한국어 어미 ‘-다니’의 세 가지 용법」, 『한국어 의미학』 69, p. 219-251.
- 고영근(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어학연구』 10, p. 118-157.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서법 동작성』, 태학사.
- 구종남(2017), 「인용접속문의 축약 현상 연구」, 『국어문학』 66, p. 125-155.
- 구종남(2019),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까’의 의미와 문법화」, 『한민족어문학』 85, p. 81-113.
- 구종남(2020), 「종결어미 ‘-다면서’의 문법화와 의미 해석」, 『국어문학』 75, p. 1-27.
- 권재일(1998), 「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 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p. 59-79.
- 김신혜·남신혜(2022), 「‘-다고’ 구문에 대한 말뭉치 기반 연구」, 『우리말연구』 71, p. 115-147.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태(1994), 「우리말 인용표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1, p. 239-256.
- 김수태(2000), 「‘-다니, -느냐니, -으라니, -자니’에 대하여」, 『문창어문논집』 37, p. 499-524.
- 김수태(2001), 「‘-다면서, -으라면서, -자면서’에 대하여」, 『언어과학』 8, p. 5-21.
- 김수태(2005), 『마침법 씨끝의 융합과 그 한계』, 박이정.
- 김수태(2022), 「융합어미 ‘-X면’류의 기능 의미와 그 체계(I) - ‘-다면, -냐면, -자면; -노라면, -을라치면, -을작시면’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9, p. 1-31.
- 김의수·김건영(2017), 「단어 형성의 한 축으로서의 단일어화」, 『언어와 언어학』 76, p. 23-40.
-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 p. 171-189.
- 김현정(1997),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 연구 - 어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지(2016), 「연결어미 ‘-니까’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 40, p. 78-99.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2, p. 71-91.
- 남기삼(1973),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탑출판사.
- 남미정(2010),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재고」, 『한국어학』 49, p. 209-233.
- 명정희(2017), 「종결어미 ‘-다고’류의 양태 의미 - 의문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75, p. 101-128.
- 목지선(2020), 「복합형어미 ‘-다니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 『어문학』 150, p. 31-62.
- 박재연(2000),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 24, p. 171-194.
- 박재연(2003),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다’에 대하여」, 『어문연구』 31, p. 85-110.
- 박재연(2006), 「‘-던가’, ‘-더라’ 의문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p. 199-227.
-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한국어 의미학』 30, p. 119-141.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가지는가?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 p. 97-127.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 서태룡(1988), 『국어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서태룡(2005), 「조사화와 어미화의 끝 구성요소」, 『震檀學報』 99, p. 105-125.
- 서희정(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용 종결어미의 인용 정보와 의미기능 - 인용구문 및 후행 어미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 p. 245-271.
- 손세모돌(1997), 「연결어미 ‘-고자’와 ‘-려고’에 대하여」, 『한말연구』 3, p. 91-110.

- 손세모(1998), 「{(는/ㄴ)단다}의 어미화」, 『한국언어문화』 16, p. 105-130.
- 손옥현·김영주(2009),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28, p. 49-71.
-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재목(1998),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p. 135-169.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안명철(1990), 「國語의 融合 現像」, 『국어국문학』 103, p. 121-137.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1),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 p. 93-112.
- 안주호(2003), 「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10, p. 145-165.
- 안주호(2006),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근대국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3, p. 143-169.
- 안주호(2011), 「현대국어 {-고} 계열 조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 의미학』 34, p. 213-233.
- 양정석(2022), 「‘-더-’계통 연결어미들의 형식의미론적 기술」, 『배달말』 71, p. 1-39.
- 양지현(2013), 「의도표현에 대하여 - ‘-려 하(다)’, ‘-려고(요)’, ‘-려고 하(다)’를 중심으로」, 『배달말』 52, p. 51-74.
- 오규환(2013), 「단어 형성 과정으로서의 어휘화」, 『국어학』 68, p. 323-366.
- 유창돈(1976), 『語彙史研究』, 二友出版社.
- 유필재(2014),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70, p. 59-83.
- 유현경(2001),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p. 99-122.
- 이광호(1980), 「접속어미 [-면]의 의미기능과 그 상관성」, 『언어』 5(2), p. 33-55.
- 이금영(2015), 「‘-니’ 통합형 어미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 85, p. 25-52.
- 이금희(2005), 「引用文 形式에서 文法化된 語尾·助詞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p. 233-403.
- 이금희(2014), 「確認 疑問法 終結語尾 ‘-다면서, -다고, -다지’의 話用的 條件과 意味」, 『어문연구』 42, p. 59-86.
- 이금희(2017),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화와 어휘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81, p. 91-113.
- 이금희(2020), 「한국어 동사의 문법화에 대하여-조사화와 어미화를 함께 일으키는 동사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7, p. 209-227.
- 이상복(1974),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 p. 131-154.
- 이상복(1984), 「국어의 상대 존대법 연구」, 『배달말』 9, p. 1-30.
- 이선용(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소훈(2013), 「‘-다니’類에 대하여」, 『어문연구』 41, p. 125-149.
- 이승희(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 이익섭·이상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익섭·임홍빈(1988),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지양(1994), 「어휘화된 융합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16, p. 79-113.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이창덕(1999), 「현대 국어 인용체계 연구」, 『텍스트언어학』 6, p. 255-299.
- 이태영(1988), 『국어동사의 문법화연구』, 한신문화사.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필영(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 ‘다-, 이라-, 더라-, 려-, 노라-’형을 중심으로」, 『국어학』 26, p. 1-32.
- 이희자·이종희(2002),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와 연구』, 한국문화사.
- 장요한(2013), 「국어 접속어미의 통시적 연구 - ‘커니와’와 ‘-다니’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학』 119, p. 1-26.
- 전영철(1990), 「한국어 인용동사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1, p. 41-54.
- 전혜영(1984), 「접속어미 ‘-다면’의 의미기능 - 접속어미 ‘-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 p. 243-256.
- 전혜영(1996), 「‘-다고’ 반복 질문의 화용적 기능」, 『언어』 21, p. 889-911.
- 정한대로(2015), 『한국어 등재소의 형성과 변화』, 태학사.
- 진관초(2016), 「한국어 의외성 표지 ‘-다니’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p. 91-126.
- 채숙희(2011), 「結果의 ‘-라고’와 目的의 ‘-자고’에 對하여」, 『어문연구』 39, p. 97-119.
- 채숙희(2013),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 채숙희(2019), 「종결형 ‘-다고’류와 전달 증거성」, 『언어학 연구』 50, p. 101-128.
- 채숙희(2023),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어학』 107, p. 469-524.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용(1997), 「문법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2, p. 469-489.
- 최형용(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권2호, p. 301-318.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팽이림(2022), 「연결어미 ‘-(으)라고’에 대한 재고」, 『국어문학』 79, p.1-29.
- 팽이림(2023), 「‘-더-’가 쓰인 간접인용문에 대한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권 22호, p. 771-784.
- 한길(1991), 『국어종결어미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허원욱(1995), 「현대 국어의 인용마디 연구」, 『겨레어문학』 19, p. 755-779.
- 허재영(1997), 「우리말 문법화 연구의 흐름」, 『한말연구』 3, p. 197-215.

菅野裕臣 외(1991), 『コスモス朝和辭典』, 白水社.

Antoine Meillet(2017[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Federal University Juiz of Fora (UFJF).

Jespersen, Ott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aul J. Hopper·Elizabeth Closs Traugott(1999),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한신문화사.

Sperber, Dan.; Wilson, Deirdre(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asil Blackwell.

A Study on Ending Compounds in Contemporary Korean

Peng, Yil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analyze Contemporary Korean ending compounds, considering their usage, frequency, and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each ending compound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single ending.

In Chapter 3, for instances where the quotative clause is declarative,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actual use, and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single ending. It presented five systematic features and three patterns for individual ending compounds. Firstly, ending compounds that are used frequently or are actually in use are mainly concentrated in constructions where the quotative clause does not contain '-deo-'. Secondly, ending compounds that have acquired ending function through the ending univerbation a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constructions where the quotative clause does not contain '-deo-'. Thirdly, among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hortative, and conjunctive embedded clauses, ending compounds that are used frequently or are actually in use are mostly distributed in the declarative embedded clause. Fourthly, in cases of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mbedded clauses, ending compounds with '-deo-' has a lower frequency of use compared to those without '-deo-'. The number of ending compounds used as an ending is relatively low. Fifthly, ending compounds with '-deo-' in both the quotative and embedded clauses are not actually in use.

Furthermore, cases that have not been clarified in dictionaries or previous studies, or require supplementation were addressed. Firstly, ending compounds indicating 'quotation' can be restored to '-go ha-', but the ending compounds '-dae' becomes a 'command' meaning when '-go ha-' is restored. Secondly, the reason why the ending compounds '-(eu)ryeyo' and '-(eu)rye' from '-(eu)ryeo ha-' are not used is presumed to be due to the absence of instances in native vocabulary where the empty initial syllable 'ㄹ예(rye)' is pronounced. Thirdly, while the usage frequency of the semiformal style(hao-style) ending compounds '-dao' is relatively low in the structure of '-dago ha-'. In contrast, among the ending compounds corresponding to '-dago hadeo-', the usage frequency of semiformal style(hao-style) ending compounds '-dapdida' appeared to be the highest. Additionally, semiformal style(hao-style) ending compounds '-dapdida,' being primarily used in final position with the familiar polite haeyo-style or familiar hae-style, suggests that currently '-dapdida' has distanced itself from the semiformal style(hao-style) and has become closer to the familiar polite haeyo-style or familiar hae-style.

In Chapter 4, for instances where the quotative clause is exclamative sentence,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actual use, and the ending univerbation. The systematic features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Firstly, ending compounds that are used frequently or are actually in use are

mainly concentrated in constructions where the quotative clause does not contain '-deo-'. Secondly, there are no ending compounds that have acquired new ending functions, possibly due to the relatively low frequency of use for all the ending compounds identified in this context. Thirdly, ending compounds with '-deo-' in both the quotative and embedded clauses are not actually in use.

In Chapter 5, we examined ending compounds corresponding to cases where the quotative clause is interrogative, revealing three systematic features in these instances. Firstly, ending compounds with high frequency or those actively used a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configurations with declarative embedded clause. Secondly, when '-deo-' is used in the quotative clause, there are no ending compounds of familiar polite haeyo-style and familiar hae-style. This is because among the ending compounds derived from '-deo-', namely '-deora', '-deonya-', '-deoni', and '-de', '-deora', '-deonya', and '-deoni' can only be realized in the haera-style, and '-de' can only be used in declarative sentences. Thirdly, in the case of conjunctive embedded clauses, there are also no ending compounds of familiar polite haeyo-style and familiar hae-style.

And, regarding the absence of existing research and dictionary interpretations for some ending compound, the following points were discussed. Firstly, among the ending compounds corresponding to interrogative sentence in the quotative clause without '-deo-' and declarative constructions in the embedded clause without '-deo-', it was confirmed that '-dao', '-daneunga', '-danya', and '-daeyo' can be used as a final ending. Secondly, among '-daneunya' and '-danya,' there were no examples found for '-daneunya,' only '-danya' had confirmable examples. This is related to the change where '-neunya/eunya' transformed into '-nya/eunya' due to the elision of 'neu' and '-nya/eunya' is further evolving into the monolithic form '-nya'. Thirdly, '-dani' is classified as a ending compounds of the conjunctive ending '-(eu)ni,' which indicates 'cause' or 'reason' and the ending '-ni' in haera-style. Among these, '-dani' through the combination with the haera-style interrogative sentence final ending '-ni' is explained to be an ending. The '-dani' through the combination with the conjunctive ending '-(eu)ni' can be reduced to '-go ha-' and may be followed by additional explanations in a back-channeling manner. In contrast, '-dani' through the combination with the sentence-terminating ending '-ni' cannot be reduced to '-go ha-' and does not lead to further back-channeling explanations. Fourthly, '-nya/(eu)ra/jani' by the combination with the sentence-terminating ending '-ni' can be interpreted similarly to the 'quotation' ending compound '-dani'. '-nyani' is used for the listener's request for information, '-(eu)rani' for the listener's command, and '-jani' is employed for the listener's persuasion and asking again. Fifthly, the '-dani', which has not been integrated with '-neun/n', shares a similar meaning with the ending '-dani'. However, since it does not originate from indirect quotations, interpreting it as a separate grammatical form rather than incorporating it into the same system seems more appropriate. Sixthly, in cases where the quotative clause is an interrogative sentence with '-deo-', and the embedded clause is a declarative sentence without '-deo-', the frequency of usage of the '-dadeonya' in the haera-style is not very high. But it appears to have acquired the function of a final ending.

In Chapter 6, examines examples of ending compounds in cases where the quotative clause is a conjunctive form. Through this analysis, two systematic features were identified. Firstly, ending

compounds that have acquired an ending functions which are distributed in conjunctive endings such as '-go', '-myeonseo', '-nikka' and '-ni'. Secondly, among the ending compounds corresponding to cases where the embedded clause is interrogative and '-deo-' is used, no examples were found for any ending compounds except '-deonyago'.

In addition, various ending compounds not clarified in previous studies were described in detail. Firstly, among ending compounds by combining with the conjunctive ending '-go,' in addition to '-dago,' '-nya/(eu)ra/jago' is also can be used as an ending. Secondly, with regards to the combination with the conjunctive ending '-(eu)myeonseo(myeo),' it was explained that '-nyamyeonseo(myeo)' did not become an unreduced fusion form, according to Lee, Pil-Young(1993) and Kim, Soo-Tae(2001). However, upon reviewing various examples, it was confirmed that '-nyamyeonseo(myeo)' also acquires the function of an ending. The sentence-terminating ending '-nyamyeonseo(myeo)' can be used to express inquiries for confirming known information and making comparisons. Thirdly, '-deorameon' by the conjunctive ending '-(eu)myeon' is not reducible like '-go ha-', and it cannot combine with pre-final ending '-get'. Therefore, it should be regarded as a separate conjunctive ending that has undergone ending univerbation. Fourthly, among ending compounds by combining the conjunctive ending '-(eu)nikka', '-danikka' has acquired the function of an ending, carrying meanings of 'repeated emphasis' and 'discontent'. In contrast, '-nya/(eu)ra/janikka' also can be used as an ending with the meaning of 'repeated emphasis,' but it is not used with the meaning of 'discontent'. Fifthly, compared to '-(eu)ni' combined with final ending, '-(eu)ni' combined with conjunctive ending, ending compounds '-da/nya/(eu)ra/jani', corresponds to an 'indirect quotation' ending compounds where the restoration of '-go ha-' is possible. Sixthly, '-deorani' has very few examples, but all are used in the final position, accompanied by the adverb 'somehow(어쩐지)' in the sentence. Seventhly, '-(eu)ryeon' is used as a separate conjunctive ending, not reversible to conjunctive ending '-(eu)ryeo' and '-hani,' when expressing the speaker's or the syntactic act subject's prediction or thought.

In Chapter 7, examines ending compounds corresponding to adnominal ending where the quotative clause serves as an adnominal ending. Among the adnominal endings '-n/eun/neun/rieul/eul/don', only '-n/neun/rieul/don' can be combined with the quotative clause. Additionally, they did not acquire the function of an ending.

In Chapter 8, examines the ending compounds where the quotative clause functions as a nominal. Among the nominal endings, those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gi' are actively used, while those formed by '-eum' are confirmed to be not in use.

Key Words: ending compounds, '-go ha-', ending univerbation, indirect quotation, -(eu)ryeo ha-